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2013. 9

국가미래연구원

- *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지난 2013년 7월 9일에 발표한 국민행복지수 및 국민안전지수와 향후 분기마다 발표할 국민행복지수 및 국민안전지수는 본 논문의 분석방법론 및 주요연구내용에 기반을 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 또한 본연구보고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김시언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이승섭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학사과정
연구보조원	해현용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학사과정

주요 목 차

요약	i ~ ii
I. 연구의 목적	1
II. 국민행복지수와 경제행복지수의 측정과 사례	3
1. 경제지표를 이용한 측정	3
2. 경제지표와 대안적 지표를 이용한 측정	6
(1) 해외	6
1) Osberg and Sharpe(2002)의 경제행복지수	6
2) 오쿤의 고통지수(misery index)	8
3) 사무엘슨의 행복 공식	8
4) 경제지표 이외의 대안적 변수의 선택	8
5) UNDP의 인간개발지수(1990)	9
6) 국가후생지수(National Index of Well-being: NIW 2006)	10
7) WEF의 성 격차지수(2006)	10
8) 뉴스위크지 삶의 질 지수(2010)	11
9)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의 생태계지수(2010)	12
10)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지수(2011)	13
(2) 각국의 지표 현황 및 준비	16
1) 영국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2011)의 행복지수	16
2) 독일의 Commission of Inquiry(2013)의 행복지수	17
3) 이탈리아의 Benessere Equo e Sostenibile(BEX, 2012)의 행복지수 ..	17
4) 프랑스와 독일(2010)의 행복지수	18
5) 미국	20
6) 일본의 행복도지표	22
7)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1992)	26

(3) 국내 행복지수 산정결과	28
1) 현대경제연구원	28
2) LG경제연구원의 사회경제고통지수와 생활경제고통지수	30
3)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행복지수	31
4) 서울서베이조사	32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9)	38
6) 보건사회연구원(2009)의 OECD 행복지수	41
7) 보건사회연구원(2011, 2012)	43
8) 통계청(2011)	45
9) 이내찬(2012)	48
10) 남주하 · 김상봉(2012)	51
3.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이용한 측정	53
(1)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53
(2) Med Jones	55
(3) 지구촌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	56
 III. 변수 및 분석방법론	59
1. 변수의 선정	59
2. 분석방법론	62
 IV. 국민행복지수의 측정 결과	66
1. 전반적 결과	66
2. 대항목과 국민행복지수	69
3.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항목/소항목과 국민행복과의 상관관계 · 70	
4. 삶의 질의 중항목/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관계분석	73
5.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의 중항목/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관계분석 · 79	
 V.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	86
1. 정책적 시사점	86
2. 분석의 한계점	91

표 목 차

〈표 1〉 행복지수의 측정과 사례	5
〈표 2〉 경제행복지수의 주요내용	6
〈표 3〉 UNDP의 인간개발지수 구성	9
〈표 4〉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10
〈표 5〉 WEF의 세계 성 격차지수	11
〈표 6〉 뉴스위크의 세계 최고 국가 지수	12
〈표 7〉 OECD의 BLI	15
〈표 8〉 프랑스와 독일의 지표체계	19
〈표 9〉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행복지수 산정 변수	31
〈표 10〉 서울서베이조사 개요	33
〈표 11〉 경제사회발전지표 체계	39
〈표 12〉 보건사회연구원의 지표	42
〈표 13〉 OECD 행복지수 종합순위 및 점수(2008 기준)	43
〈표 14〉 지표구성 및 자료원	44
〈표 15〉 OECD 행복지수 종합순위 및 점수(2010 기준)	45
〈표 16〉 통계청 녹색성장정책지표	46
〈표 17〉 지속가능발전지표	47
〈표 18〉 행복지수의 지표	49
〈표 19〉 부문별 한국의 순위	51
〈표 20〉 경제행복지수지표	51
〈표 21〉 소항목과 경제행복지수와의 중요도와 기여도 분석	53
〈표 22〉 GNH 세부지표	54
〈표 23〉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 1인당 국민소득, 총 GDP	58
〈표 24〉 국민행복지수의 변수 설정과 산출방식	61
〈표 25〉 설문조사결과 AHP 가중치(중요도)	63
〈표 26〉 주요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중요도(상위 10대 중항목)	65
〈표 27〉 국민행복지수와 대항목간의 상관계수	70
〈표 28〉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내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계수	71
〈표 29〉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지출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계수	73

〈표 30〉 삶의 질의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계수	74
〈표 31〉 고용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계수	75
〈표 32〉 건강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계수	76
〈표 33〉 민간의 교육비 부담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계수.....	77
〈표 34〉 환경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계수	78
〈표 35〉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계수	80
〈표 36〉 물가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관계	81
〈표 37〉 소득분배 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관계	82
〈표 38〉 사회안전 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관계	83
〈표 39〉 노후 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관계	85
〈표 40〉 국민행복지수와 대항목의 기초통계치	85

그 립 목 차

<그림 1> Osberg and Sharpe(2002)의 경제행복지수 구조	7
<그림 2> 일본의 행복도지표 체계	24
<그림 3>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	29
<그림 4> LG경제연구원의 사회경제고통지수와 생활경제고통지수	30
<그림 5>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행복지수 추이	32
<그림 6> 경제사회발전지표의 영역별 한국 순위 경향	40
<그림 7> 국민행복지수	67
<그림 8> 국민행복증가율지수와 GDP성장률지수	69
<그림 9> 국민행복지수와 3대 대항목 지수 추이	70
<그림 10>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내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71
<그림 11>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지출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72
<그림 12> 삶의 질의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74
<그림 13> 고용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75
<그림 14> 건강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76
<그림 15> 민간의 교육비 부담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77
<그림 16> 환경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78
<그림 17>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내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추이	79
<그림 18> 물가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81
<그림 19> 소득분배 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82
<그림 20> 사회안전 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83
<그림 21> 노후 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84
<그림 22> 고용률지수 추이	87
<그림 23> 비정규직비율지수 추이	87
<그림 24> 기대수명지수 추이	88
<그림 25> 사망률지수 추이	88
<그림 26> 고등교육물가지수 추이	89
<그림 27> 중산층비중지수 추이	89
<그림 28> 소득분배지수 추이	90
<그림 29> 범죄율지수 추이	90
<그림 30> 식품안전지수 추이	91

부 록 목 차

〈부록 1〉 AHP 분석방법론	95
〈부록 2〉 설문지의 내용	97
〈부록 3〉 설문조사결과 AHP 가중치	99
〈부록 4〉 종합지수와 중항목 이하의 상관관계	100

요 약

-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하여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하여 분기별로 국민행복지수를 산출
- 국민행복지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 20개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하여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
- 대항목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으로 구성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1인당 소비지출,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1인당정부부채,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1인당 가계부채
 - 삶의 질: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 지출, 환경, 주거, 문화시설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중산층 비중, 물가,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 안전, 노후 안정
-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 분석에서 일관성 비율이 0.1이하인 19명의 설문결과를 평균하여 각 구성요소들의 가중치인 중요도를 최종 산출
- 가중치 산정 결과
- 대항목의 경우,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도는 32.03%, ‘삶의 질’은 34.96%,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32.99%로 나타남
- 가중치 상위 10대 중항목
 - 고용(9.57%), 건강(9.43%), 인적자본형성 및 노동생산성(8.82%), 사회 안전(6.38%), 민간교육비 지출(6.14%), 1인당 자본스톡(6.12%), 1인당 소비지출(5.82%), 부패와 신뢰수준(5.67%), 노후안정(4.86%), 1인당 가계부채(4.25%) 등으로 나타남

□ 국민행복지수 산출결과

○ 34개의 소항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95.95로 최저수준으로 나타나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11.27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는 추세

○ 2009년 4분기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13년 1분기에 113.03으로 상승

-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민행복지수의 대항목의 모든 부분에 걸쳐 나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이 개선되어 국민행복지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무현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국민행복지수의 평균은 104.94로 이명박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7.68에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박근혜정부는 2013년 2분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지수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2013년 10월 1일에 발표할 예정

○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과 정책적 시사점

- 박근혜정부의 주요공약은 고용률(70%), 중산층 70% 복원, 반값등록금(교육), 소득분배 개선, 건강(사망률, 기대수명) 및 의료복지 개선, 사회안전(사회폭력, 식품안전 등), 노동의 질(정규직 비중) 등으로 나타남

- 이중 고용률, 사회안전, 교육(반값등록금), 건강, 노동의 질(비정규직 비중)은 전문가 서베이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행복증대를 위한 새 정부의 주요공약들이 경제전문가들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함을 시사

- 또한 주요공약들이 최근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공약 실천의지도 강해 국민행복지수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

I. 연구의 목적

-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GDP의 한계를 국제적으로 인식하면서 Beyond GDP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여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측정의 필요성 대두
- GDP의 한계: GDP는 국민생활 요소 중 물질적 조건의 일부만을 반영하며, 건강, 일, 교육, 사회연결망이나 지속가능성은 미반영
- 관심의 이동: 정책목표가 기존의 경제적 조건과 함께 좋은 삶(good life)과 좋은 사회(good society)로 이동하여 측정의 중요성이 부각

- 최근 경제성장이 반드시 국민행복을 초래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외에 삶의 질, 환경 등을 포함하여 경제후생(welfare) 및 국민행복을 추정하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
- 순경제후생(Net Economic Welfare: NEW) = GNP-공해비용 + 가정주부서비스 + 여가가치 = 녹색 GNP(green GNP) + 가정주부서비스 + 여가가치
- 프랑스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발전의 측정’
- 부탄의 국민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
- 신경제학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의 지구촌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
- 이외에도 UN, OECD 등에서도 국민행복지수를 측정하여 발표

- 국내에서도 국민행복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으나 자료의 부족, 자료의 주관성, 측정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정확한 지수화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
-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긴 시계열을 확보하기 어려움
- 주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행복을 측정할 수 있으나 지수화하기 어려움
- 국민행복지수는 연구목적에 따라 구성변수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향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국민행복지수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10년간(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하여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하여 국민행복지수를 분기별로 산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에 있음
- 국민행복지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 20개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하여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
- 대항목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으로 구성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1인당 소비지출,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1인당정부부채,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1인당 가계부채
 - 삶의 질: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 지출, 환경, 주거, 문화시설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중산층 비중, 물가,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 안전, 노후 안정
-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 분석에서 일관성 비율이 0.1이하인 19명의 설문결과를 평균하여 각 구성요소들의 가중치인 중요도를 최종 산출

II. 국민행복지수와 경제행복지수의 측정과 사례

1. 경제지표를 이용한 측정

- ☐ GDP는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에 국한되는 개념이나 한 국가의 복지 수준 결정에서 경제적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경험적 가정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현실적 환경이 결합하면서 사회발전 정도를 반영하는 단일 지표로 활용되어 왔음
- ☐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객관적 산출을 통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며, 현재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음
- ☐ GDP는 복지국가의 달성을 위한 복지재정의 확충과 지출 수준 결정, 조세와 사회보험 부담 수준과도 높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의 대체변수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임
- ☐ 또한 GDP는 객관적인 산출을 통해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음
- ☐ 그러나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고, 외부효과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분배 문제와 사회적 자본을 비롯한 비임금노동 관련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국가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단일 지표로서 가지는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김용하 외, 2009; 박명호 외, 2009; 통계청, 2009, CMEPP, 2008)
- ☐ 국가의 복지 수준 및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단일지표로서 GDP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 할 수 있음
- ☐ 이에 따르면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은 빈곤선에 근접할수록 소득과의 강한 관련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 욕구(basic needs)가 충족된 국가들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체감도가 소득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09)
- ☐ 새로운 소득관련 지표로 활용된 사례로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및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NNI) 등을 들 수

있음

- GNI의 경우, 국내 생산 중심의 개념인 GDP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순소득과 수출입 품목의 교역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의 후생복지와 밀접한 체감경기를 보다 잘 반영한다는 주장임
- NNI의 경우, 가처분소득의 개념이 포함되어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복지 관련 지출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어, OECD에서 논의된 바 있는 NIW 지표(National Index of Well-being)에서 활용되었음(김용하 외, 2009).

□ 경제성장과 경제후생(welfare)을 동시에 고려하게 됨

- 기존의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GNP 또는 GDP 측정에 삶의 질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
 - 순경제후생지표(Net Economic Welfare: NEW, 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 → 경제복지 측정이지만 측정의 한계
 - 순경제후생(NEW) = GNP - 공해비용 + 가정주부서비스 + 여가가치
= 녹색 GNP(Green GNP) + 가정주부서비스 + 여가가치
 - MEW는 GDP를 근간으로 하면서 육아, 여가활동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계활동과 교육과 건강에 대한 투자에서 얻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GDP 추계를 보완하고, 소음, 공해, 쓰레기 배출 등과 같은 외부효과 유발요인을 반영하였음
 - MEW는 GDP의 한계를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완·평가하고자 한 의미 있는 시도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GDP 성장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구체적인 측정에는 이르지 못함

<표 1> 행복지수의 측정과 사례

경제지표를 이용한 측정	중요항목
국민총소득(GNI)	순소득과 수출입 품목의 교역조건 등
국민순소득(NNI)	가처분소득 등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	녹색GNP(GreenGNP), 가정주부서비스, 여가가치 등
경제지표와 대안적 지표를 이용한 측정	
해외	중요항목
Osberg and Sharpe(2002)의 경제행복지수	1인당소비지출(C), 1인당자본스톡(K), 빈곤의심화정도(LIM), 실업(UR) 등
오쿤의 고통지수	실업률, 물가 등
Mroczek and Kolarz(1998)	연령
Nolen-Hoeksema and Rusting(1999)	성별
Lee, Seccombe, and Shehan(1991)	결혼
Blanchflower and Oswald(2001)	행복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Lane(2000)	민주주의
Putnam, Leonardi, and Nanetti(1993)	사회적 자본, 시민적 자질
Nye, Zelikow, and King(1997)	정부에 대한 신뢰
Ruut(2000)	정부정책, 민주주의제도
Bruno and Eichenberger(1999)	분권화정도
UNDP의 인간개발지수(1990)	출생시 기대여명, 성인문자해독률, 교육기회, 1인당국내총생산
국가후생지수(NIW, 2006)	소득분포, 고용률, 학업성취도, 소득불평등, 빈곤율, 기대수명, 자살률
성격차지수(WEF, 2006)	소득, 여성고위관료 및 임원수, 여성 순 고등학교등록자수, 탄생아성비 등
EIU지수(EIU, 2005)	기대수명, 커뮤니티생활(교회, 노조참가율) 등
세계최고의 국가지수(2010)	공인기관의 시험결과(TIMSS와PISA), 기대수명, 불평등, 생산성성장 등
생태계지수	경작지, 수력발전 등 (이산화탄소흡수 또는 방지시설)
BLI(Better Life Index, OECD, 2011)	인당방수, 고용률, 기대수명, 상해율, 인생만족도 등
경제지표와 대안적 지표를 이용한 측정	
국내	중요항목
현대경제연구원 EHI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등
LG경제연구원생활경제고통지수	물가, 실업률
삼성경제연구소경제행복지수	최종소비지출, 근로소득, 소득5분위배율 등
서울서베이조사	관광/여가, 문화, 환경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9)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
보건사회연구원(2009)의 OECD 행복지수	경제적 자원 및 연관요인, 사회적 요인-자립, 사회적 요인-형평성 등
보건사회연구원(2011,2012)	경제활력, 지속가능, 복지수요 등
통계청(2011)의 녹색성장지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립, 신 성장동력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강화
통계청(2011)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 환경, 경제
이내찬(2012)	인당방수, 필수시설불비가구비율, 가처분소득, 인당GDP 등
남주하·김상봉(2012)의 경제행복지수	소비, 미래성장 및 부의 스톡, 소득분배, 경제적 안정 및 안정 등
각국의 지표 현황 및 준비	
국가와 연도	중요항목
영국의 행복지수측정(2011)	삶의 질
독일의 행복지수(2013측정예정)	경제/사회성장, 삶의 질, 지속가능한 규제정책 등
이탈리아의 행복지수(2012)	웰빙과 발전
프랑스와 독일의 행복지수(2010)	경제성과, 삶의 질, 지속가능성
미국의 KNIS(2010)	시민생활, 문화생활, 죄와 정의 등
일본의행복도지표(2011)	경제사회상황, 건강, 관계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1992)	주거, 소비지출, 근로, 양육 등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이용한 측정	중요항목
부탄국민총행복지수(GNH)	정신적 웰빙, 생태, 건강, 교육 등
Med Jones의 GNH	경제적 안정, 환경적 안정, 육체적 안정 등
영국의지구촌행복지수(HPI)	삶의 만족도, 평균수명, 생태학적 면적

2. 경제지표와 대안적 지표를 이용한 행복측정

(1) 해외

1) Osberg and Sharpe(2002)의 경제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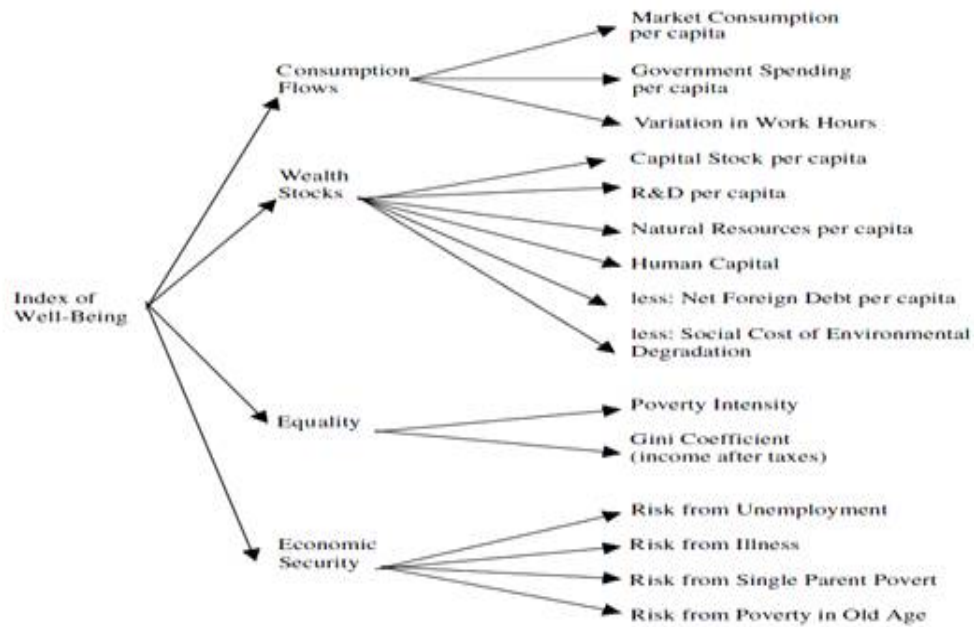
☐ 경제행복지수

-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양적 지표만으로는 국민의 경제적 행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소득분배, 경제안정 등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 일본, 캐나다 등에서 경제성장과 개인의 행복 또는 삶의 만족도의 괴리 현상 발생(Osberg & Sharpe(2002))

〈표 2〉 경제행복지수의 주요내용

부문	변수
소비부문	1인당 소비지출(C) 1인당 정부지출(G) 근로시간 변화(WT)와 1인당 무임금노동(UW)
부(Wealth) 부문	1인당 자본스톡(K) 1인당 R&D 스톡(R&D) 1인당 천연자원(NR) 인적자본(HC) 1인당 대외순부채(D) 환경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CO ₂ 배출량, ED)
평등부문	빈곤의 심화정도(LIM) 지니 계수(GINI)
안정부문	실업(UR) 건강(ILL) 한 부모에 의한 가난(SPP) 노년층 가난(OLD)

〈그림 1〉 Osberg and Sharpe(2002)의 경제행복지수 구조



○ 추정산식

$$\begin{aligned}
 \text{경제행복지수} = & 0.25[C+UP+G+WT] \\
 & +0.25[K+R\&D+HC+NC-DD]+0.25[(0.75)LIM+(0.25)GINI] \\
 & +0.25[(0.2772)UR+(0.4066)ILL+(0.2072)SPP+(0.1090)OLD]
 \end{aligned}$$

○ 각 4개의 대목목에는 같은 가중치를 0.25로 주고 대안적인 가중치로 0.7, 0.1, 0.1, 0.1 부여

○ 안정부문은 국가들마다 비중을 달리하여 가중치 부여

○ 1990년대 이후 각국에서 ‘경제생활을 통해 가계가 느끼는 생활 만족도’인 경제행복도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행복지수를 객관적으로 측정

- 서베이를 통한 경제행복도 조사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가 있으나 ‘주관적 행복도’에 그치고 있음
- 가계의 경제행복지수는 일반적으로 소비부문, 자산소득을 포함한 소득 부문, 소득분배, 경제적 안정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경제적 안정성은 고용, 주거, 노후, 교육, 물가 등을 반영

2) 오쿤의 고통지수(misery index)

- 실업률과 물가를 고려하여 고통지수를 산출

3) 사무엘슨의 행복 공식

-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면 행복도가 상승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비보다 욕망이 더 증가하면 오히려 행복도가 감소
 - $\text{행복} = \text{소비} / \text{욕망}$

4) 경제지표 이외의 대안적 변수의 선택

- 사회인구학적 논의
 - 연령과 행복: Mroczek and Kolarz(1998)
 - 성별과 행복: Nolen-Hoeksema and Rusting(1999)
 - 결혼과 행복: Lee, Seccombe, and Shehan(1991)
 - 행복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Blanchflower and Oswald(2001)
- 실업
 - 직업만족도
- 정치
 - 민주주의와 행복의 관계: Lane(2000)
 - 사회적 자본이나 시민적 자질: Putnam, Leonardi, and Nanetti(1993)
 - 정부에 대한 신뢰: Nye, Zelikow, and King(1997)
 - 정부정책과 행복: Ruut(2000)
- 법 또는 제도
 - 민주주의 제도와 행복: Ruut(2000)
 - 분권화: Bruno and Eichenberger(1999)

5) UNDP의 인간개발지수(1990)

-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170여개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간개발의 세 가지 차원을 측정·비교하고 있음
- 인간개발지수는 각국의 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1인당 GNP 등을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수화

〈표 3〉 UNDP의 인간개발지수 구성

차원	지표	차원지수
길고 건강한 삶(a long and health life)	출생 시 기대여명	평균수명지수
지식(knowledge)	성인문자 해독률	교육지수=2/3(성인문자 해독률)+1/3(교육기회)
	교육기회	
삶의 적정 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	1인당 국내총생산(PPP)	국내총생산 지수

- 방법론과 결과
- HDI는 평균수명, 교육지수, 일인당 국내총생산에 대해 표준화한 후, 지표별로 평균을 구한 평균손실지표(average deprivation indicator)을 만들고 1에서 빼는 방식으로 산출
- 2010년 우리나라의 HDI 순위는 12위로서, 2006년부터 4년간 연속으로 26위에 머무르던 상황에서 비약적인 순위 상승이 있었음
 - 1, 2, 3위는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의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순위 상승은 금융·경제 위기와 더불어 2009년 재정위기가 겹쳐서 발생한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순위가 대폭 하락한 것과 소득기준으로 HDI 성장속도에서 3위에 오르는 등 경제적 활력과 관련한 항목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것에서 기인
- 기본적으로 HDI는 GDP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던 한 국가의 삶의 질 수준을 사회적 발전 수준(지식) 및 행복 관련 지표(평균수명)들로 보정하여 측정한 지표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HDI를 기준으로 구분한 상위, 중위, 하위 국가들 간에는 HDI 구성요소의 가중치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6) 국가후생지수(National Index of Well-being: NIW, 2006)

- 2006년 OECD가 유럽연합회 집행위원회 산하 JRC(Joint Research Centre)와 함께 개최한 삶의 질과 사회진보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워크숍에서 제안
- NIW는 캐나다의 복지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를 기초로 하여 개발된 지표로서 화폐지표와 비화폐지표로 크게 대별
- 화폐지표에는 경제적 자원 및 경제적 자원에 연관된 요인을, 비화폐지표에는 사회적 요인 및 환경, 주관적 행복 등을 포함
- NIW 지표는 경제적 자원 및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사회적 요인-자립, 사회적 요인-형평성, 사회적 요인-건강, 사회적 요인-사회적 연대, 환경, 주관적 행복-주관적 생활만족도 등 7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인에는 세부지표들이 존재

<표 4>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구분1	구분2	범주	세부지표
객관적 지표	화폐지표	경제적 자원 및 연관요인	국민순생산(NNI)
			가구가처분소득
			여가시간
			균등소득분배
	비화폐지표	사회적 요인-자립	고용률
			미취업가구원 비율
			평균 교육년수
			평균 학업성취도
		사회적 요인-형평성	Gini 계수
			상대빈곤율
			아동빈곤율
		사회적 요인-건강	성별임금격차
			출생시 기대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률
		사회적 요인-사회적 연대	잠재적 수명손실
			지역사회활동 참여
			자살률
			감옥수감자 비율
			범죄피해율
		환경요인	
주관적 지표		주관적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7) WEF의 성 격차지수(2006)

- 200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제안된 세계 성 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는 각국의 성 격차의 정

도와 범위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개선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임

- 이 지표는 경제 참가와 기회, 교육, 건강, 정치의 네 범주, 14개 지표로 구성 되어 있음
- 각 지표는 정규화 하며 범주별 지표의 가중치는 0.01을 지표별 표준편차로 나누고 이 값들을 합산하여 다시 표준화하여 정함
 - 이 방식에 따르면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부여됨

〈표 5〉 WEF의 세계 성 격차지수

범주	지표
경제 참가와 기회	노동력
	유사직종의 임금
	소득
	국회의원, 여성 고위관료 및 임원수
	전문 기술직 종자사수
교육성취	여성 문맹률
	여성 순 초등학교 등록자 수
	여성 순 중학교 등록자 수
	여성 순 고등학교 등록자 수
건강 및 생존	탄생아 성비
	여성 기대수명
정치권한	국회 여성의원 수
	여성 고위공무원 수
	여성 국가 또는 정부 수장(최근 50여년)

8) 뉴스위크지 삶의 질 지수(2010)

- ☐ 행복지수의 공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사경제 전문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사의 계열사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05년부터 ‘삶의 질 지수’ (Quality-of-life index)를 개발하여 국가 간 국제비교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 지표는 총 8개로 기대 수명, 이혼율, 커뮤니티 생활(교회, 노조 참가율), 인당 GDP, 정치 안정 및 치안 등급, 위도, 실업률, 정치 및 시민 자유 지수(평균), 성 차별이며 대상 국가는 111개 국가임
- EIU 지수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얻어진 지표의 계수를 가

중치로 이용하여 합산

- ☐ 한편 미국의 뉴스위크지는 2010년부터 ‘세계 최고 국가’ (World’s Best Countries)라는 타이틀 하에 경쟁력 있는 국가를 살펴보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하고 있음
- 뉴스위크는 지표 범주를 교육, 건강, 삶의 질, 경제 동태 및 정치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제 동태를 제외하고는 행복과 관련되는 범주
- 교육 범주는 공인기관의 시험 결과, 건강 범주는 기대 수명으로 구성
- 삶의 질 범주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성 격차, 극빈 인구 비율, 인당 소비, 물리적 환경을 나타내는 살해율과 환경성과 지수, 실업률로 구성
- 정치적 환경 범주는 정치적 자유도 등급, 투표율 및 정치 안정 등급으로 구성
- 모든 지표는 표준화되고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여 지수를 도출
- 국가 간 순위는 인당 GNI의 수준 또는 인구수에 따른 국가 규모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표 6〉 뉴스위크의 세계 최고 국가 지수

범주	지표
교육	공인 기관의 학력 평가(TIMSS와 PISA)
건강	기대 수명
삶의 질	불평등(지니계수, 성 격차), 극빈 인구 비율, 생활수준(인당 소비), 물리적 환경(살해율, 환경성과 지수, 경제안정(실업률))
경제 동태	생산성 성장, 다양성(서비스 및 제조업 비중), 혁신, 사업 활력(사업용이성, 파산, 신규 사업 개시 기간), 증권시장 자본화
정치적 환경	정치 자유도 등급, 투표율, 정치 안정 등급

주) 환경성과 지수는 예일대, 혁신 지표는 WEF, 정치 자유도 등급은 Freedom House, 투표율은 Global Peace Index 참고

9)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의 생태계지수(2010)

- ☐ 한편 지속가능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 GFN)는 매년 세계 각국의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과 생태용량

(biocapacity)을 공표

- ☐ 생태발자국은 1990년대 초반에 캐나다의 경제학자 Warkernagel과 Rees(1996)에 의해 개발된 개념으로 주어진 기술과 자원 관리 관행 하에 개인이나 인구 또는 활동에 의해 소비되어 생성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생태용량은 자원을 생성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생물학적으로 생산적인 토지와 수자원의 양을 의미
- 생태발자국이 생태용량보다 크다는 것은 자원의 용량을 넘어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생태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환경오염의 가속화와 자원의 고갈을 막아야 함
- ☐ EF 지수는 일차 생산물(경작지, 목초지, 산림(목재, 연료, 일산화탄소 흡수), 어장)의 실제 수확, 국가 인프라와 수력발전, 화석 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흡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포함
- 연간 국내 생산량(또는 소비량)/연간 국내 평균 생산량 × 생산성인자(yield factor) × 등가인자(equivalent factor)에 의해 계산
- 여기서 생산성인자는 같은 토지 형태의 세계 평균 생산성과 비교할 때 해당국가 토지 형태의 상대적 생산성을 나타내며, 등가인자는 세계 평균 생산성 토지와 비교할 때 특정 토지 형태(경작지, 산림, 초지 등)의 상대적 생산성을 나타냄
 - 등가인자는 연간 국내 평균 생산량(소비단위/면적)/연간 세계 평균 생산량(소비단위/면적)으로 정의되므로 지수 공식은 연간 국내 생산량(또는 소비량)/연간 세계 평균 생산량(소비단위/면적) × 등가인자' 와 동일하며 한편 등가인자의 단위는 면적/세계면적(global hectare: gha)임
- 생태용량 지수도 유사하게 정의
- 지수는 국가를 중심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의 순 효과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생태발자국은 “소비 = 생산 + 수입 - 수출”의 관계식을 만족

10)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지수(2011)

- ☐ 스티글리츠 위원회

- 2008년 1월 프랑스에서 GDP보다 사회적 후생(social well-being)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 위해 스티글리츠 위원회 설립
- ‘경제적 성과와 사회발전의 측정’을 목표로 GDP 이슈, 지속가능 성과 환경(Sustainable Development & Environment),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3개 분과로 연구를 진행
 - 삶의 질은 생활수준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함
 - 보건(수명, 사망률, 질병 등), 교육, 개인활동(시간활용), 정치적 지배 구조, 사회적 연계, 환경조건, 개인적 불안정성(범죄, 사고, 자연재앙 등), 경제적 불안정성(실업, 병, 노령 등) 등 8가지 요인을 강조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2004년 팔로메에서 개최된 ‘통계, 지식과 정책’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ies) 포럼 이후 축적된 성과와 Stiglitz 외(2009)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 5월, 11개 범주, 2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보다 나은 삶의 지수’ (Better Life Index: BLI)를 공개
- BLI의 큰 축은 물질적 생활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임
 - 전자는 국민들의 소비 가능성과 소유 재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반면, 후자는 국민들의 금전 이외의 속성의 집합으로 삶의 기회를 형성
 - 물질적 생활 조건에는 소득과 부, 직업 및 주거가 포함되며 삶의 질에는 건강, 일과 개인 생활 간 균형, 교육, 커뮤니티, 정부의 운영 방식, 환경, 치안 및 전반적 인생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포함
- BLI의 특징은 거시 지표보다는 개개인의 행복을 나타내는 미시 지표, 평균치 외에 분포 또는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물론 주관적 측면도 살펴봄
- 각 지표는 데이터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기준으로 10점 기준으로 정규화 되어 회원국 간 비교

- OECD는 BLI 지표를 이용하여 단일 수치인 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가중치 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일임
- BLI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시간 경과에 따른 행복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of well-being over time)임
- 이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이 행복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사회경제 및 자연 체계의 지속가능성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자연, 경제, 인간, 사회자본 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의존
- 행복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지표 체계의 구축과 개선 작업은 진행 중

〈표 7〉 OECD의 BLI

범주	지표
주거	인당 방수, 기초설비부재주거
직장	고용률, 장기실업률
소득	가처분소득, 가계 금융소득
개인생활과 직장 간 균형	자녀보유여성고용률, 피고용인노동시간, 개인 여가시간
건강	기대수명, 자기보고건강
커뮤니티	사회네트워크 안정성(접촉 빈도)
지배구조	투표율, 입법과정자문공개
교육	고등학교 졸업률, 독해력
환경	공기오염
치안	상해율, 살해율
인생 만족	인생만족도

- OECD는 BLI에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의 의뢰에 의해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 체계에 대해 검토한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인 Stiglitz와 Sen 그리고 Fitoussi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경제성과 및 사회 진보의 측정」(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2009)에서 권고된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음
- 이 보고서의 권고 내용은 우선 정확한 소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 간 소득의 유입과 유출을 감안하여 국내 가처분 소득(national disposable income) 개념을 사용하고, 부의 측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또한 가구의 관점에서 실질 구매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 조정 가처분 가구 소득(real adjusted disposal household income)을 사용하고, 평균 소득은 소득분포가 왜도된(skewed) 경우 그 형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중위수(median)를 병행 사용하

도록 권고

- 한편, 유아, 요리, 세탁, 노인 보살피기 등 가구, 주로 여성의 서비스 생산 활동과 같은 비시장적 활동(non-market activities)에 대한 묵시적 소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권고 사항 중 실질적 소득과 부는 BLI의 지표에 반영되어 있음

(2) 각국의 지표 현황 및 준비

1) 영국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2011)의 행복지수

- ONS는 정기적으로 주관적인 삶의 질(wellbeing)을 측정
- 기존의 객관적인 삶의 질 측정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목적
- ONS는 2010년 11월과 2011년 4월 사이에 삶의 질(wellbeing)에 대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함
 - 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nowadays?
 - overall, how happy did you feel yesterday?
 - overall, how anxious did you feel yesterday?
 - overall, to what extent do you feel the things you do in your life are worthwhile?
- 매년 20만 명의 영국인들에게 0-10 scale로 질문에 응답
 - 매월 삶의 질(wellbeing)의 특정 영역별로 1,000명의 사람들을 조사 (the ONS Opinions Survey)
 - 지역별 및 그룹별로 주관적인 삶의 질의 분포를 알 수 있으며, 전반적인 추세도 알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어린 학생들, 장애우들, 소수민족들, 죄수들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175회의 이벤트를 열었으며, 34,000건 이상의 반응을 얻음
 -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 이 중에서 삶의 질 측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 영국국민의 삶의 질(national wellbeing)과 영국에서의 삶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들은 무엇인가?
 - 영국국민의 삶의 질(national wellbeing)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 당신(또는 귀 기관)은 영국국민의 삶의 질(national wellbeing) 측정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참가자들이 선정한 중요한 요소들로는 건강, 우정, 가족 관계, 직업 만족도, 경제적 안전, 환경 등 그리고 여기에 교육-훈련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

2) 독일의 Commission of Inquiry(2013)의 행복지수

- 독일은 의회에서 <Growth, Prosperity, Quality of Life-New Ways towards Sustainable Production and Social Progress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에 대한 Commission of Inquiry를 설치하여 웰빙 측정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 2011년에 17명의 의원들(범 정당)와 1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발족하였으며 현 회기말(2013년)에 리포트를 제출하기로 함
-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와 사회에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 삶의 질(wellbeing)에 대한 통합 지수 개발
 - 성장, 자원 소비 및 기술개발 사이의 연관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제한
 - 지속가능한 규제 정책
 - 일, 소비자 행위, 및 라이프 스타일 등이 지속가능한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점검
- Federal Statistical Office는 2년마다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며, 35개의 항목과의 관계 안에서 독일의 지속가능 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점검할 계획

3) 이탈리아의 Benessere Equo e Sostenibile(BES, 2012)의 행복지수

- 이탈리아에서는 Benessere Equo e Sostenibile (BES)을 중심으로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측정을 위한 체계적 접근방법

을 마련

- 2010년 12월 이탈리아 통계국(The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STAT)과 국가 경제 및 노동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for the Economy and Labour: CNEL)가 협력하기 시작
 - CNEL에는 재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에서 100명 이상의 대표들이 참여
- 발전에 대한 정의, 적절한 지표들의 개발, 정치인 및 국민들에게의 홍보 등이 과제이며, 2011년부터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걸친 일련의 계획을 수행
- 제 1단계
 - 웰빙과 발전의 측정에 관한 중요 도메인에 대한 합의 도출. 예를 들면, 삶의 물질적 기반, 건강, 교육, 정치제도, 환경, 사회관계, 직업관계 등
 - 어린이 및 노인 등 다양한 사회 그룹들의 상황도 고려
 -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대중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
 - 매년 <일상 삶의 측면들>에 관한 다목적 서베이 실시를 위해 ISTAT은 24,000 가구를 설문할 것이며, 특히 2011년에는 삶의 질의 다양한 차원들(Stiglitz Commission에서 제안한 삶의 질 8 도메인)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물을 것
 - 발전과 관련된 차원들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전문가, 실무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보완할 예정
- 제 2단계
 - 논의 과정을 통하여 떠오를 특정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하나의 지수로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dashboard 형식으로 나타낼 것인지 논의할 예정
- 제 3단계
 - 2012년 12월에 최종 리포트 작성

4) 프랑스와 독일(2010)의 행복지수

- ☐ Stiglitz Commission을 탄생시켜 삶의 질 측정을 국제적 아젠다로 만

든 자는 바로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임

- Stiglitz Commission의 구성은 국제적이었지만, 많은 프랑스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프랑스 통계국(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INSEE) 및 파리에 근거를 둔 OECD에서 도 지원
- Stiglitz 리포트에 이어서, 프랑스-독일 장관 회의는 French Conseil d'Analyse Économique (CAE)와 the German Expert Council for the Assessment of Macroeconomic Development 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발전의 측정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할 것을 요청
- 2010년 12월에 Monitoring Economic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A Comprehensive Set of Indicators 리포트 작성
- 이들은 삶의 질에 대한 하나의 지수보다는 dashboard 방식을 선호
 - dashboard에는 경제성과, 삶의 질, 지속가능성 세 부문으로 구성

<표 8> 프랑스와 독일의 지표체계

경제성과	삶의 질	지속가능성
1인당 GDP	건강: 잠재 수면손실연한	민간부문 순 고정 자본형성 (GDP에 대한 비율)
근로시간당 GDP	교육: 15-24세 학생 수	R&D투자(GDP에 대한 비율)
고용률(15-64세 그룹)	개인 활동: 교대근무 근로자	경기변동을 조정한 재정수지(GDP에 대한 비율)
1인당 국민순생산	정치에 대한 국민의견 및 통치: 국민의견 반영 및 책임	재정 지속 가능 갭
1인당 최종소비지출(정부소비 포함)	사회적 연계 또는 유대: 스포츠, 문화활동 등에 사용한 시간	GDP갭에 대한 총 민간신용
소비단위당 순소득의 분배 척도(소득 5분위 배율)	환경: 특정 공기오염에 노출된 도시인구	실질 주가 갭
	개인적 및 경제적 불안정성: 빈곤율(개인안전지수)	온실가스 배출 현황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지원생산성: 재생 불가능한 국내재료 투입량
		생물의 다양성: 조류지표

- 그 동안에 INSEE는 이미 삶의 질에 대한 질문들을 서베이에 포함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 외에 건강, 주거환경, 직업, 레저시간, 그리고 인간관계 등 5개 도메인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
- Stiglitz Commission 멤버인 Daniel Kahneman이 개발한 <Day Reconstruction Method>를 따라서 앞으로 French Time Use Survey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물론, 각 활동이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물을 것
- 또한 2011년 6월 이후 INSEE는 온라인에서 삶의 질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
 - 개인들의 삶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함

5) 미국

-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the Key National Indicators Act에 서명하였는데, 이 법은 미국시민들에게 미국과 그들의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 (KNIS)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KNIS는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에서 주도하며, the State of the USA 라는 신설 비영리 기관과 협력
- 이 법은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법안이며, 향후 9년간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하원에서 7천만 달러를 책정하였으며, 개인으로부터 기부금도 받고 있음
- KNIS는 궁극적으로 약 300개의 지수들을 포함할 예정이며, 사용자에게 편리한 웹 사이트를 열어서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시민생활, 문화생활, 죄와 정의, 경제, 교육, 에너지, 환경, 가정과 아이들, 정치제도, 건강, 주거, 하부구조, 혁신, 안전, 교통 등이 주요한 변수가 될 것
- KNIS 개발 자문을 위해 의회는 8명의 최고 권위를 가진 학자들로 구성된 Key National Indicators Commission을 설치
- 2011년 여름 웹사이트 테스트 버전으로 60여개의 지수들이 선정되었으나 오로지 NAS 멤버들에게만 공개되었으며, 2013년 중반까지 KNIS를 온라인 상으로 전부 공개할 계획
- 웹사이트는 속칭 <스코어카드> 형식으로 지수들을 제공할 것이며,

시민들은 주, 지역, 및 그룹별로 분화된 많은 다양한 도메인들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

- 새로운 데이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1차 목적이지만, 기존의 데이터와 지향하는 데이터 사이의 갭을 찾아내어 메꾸는 것도 첫 단계의 과제

□ 이와 관련하여 갤럽은 또 하나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

- 갤럽은 매일 미국인 1,000명에게 삶의 질을 조사하며, 매달 영국인 및 독일인 1,000명을 인터뷰하고, Gallup-Healthways Well-Being Index의 구도 안에서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을 함

-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매일의 동정, 기초 수급, 안전, 건강, 경제, 직업 등이 주요 도메인이며, 이에 더하여 삶의 질에 대한 몇 가지 변수들을 포함
- 갤럽의 세계 여론 데이터가 세계 인구의 95%를 대변하며, 주관적 웰빙과 이에 관련된 측면들에 대한 광범위한 원천을 제공하고 국제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함

□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에서 주관하는 American Human Development Project는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를 벤치마킹 하고 있으며, 미국 내의 각 주를 대상으로 예상 수명, 교육 및 소득을 연구하여 순위를 정하는 보고서를 매 2년마다 발간할 예정

□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Jacksonville Community Council' s Community Indicators Project
- the Boston Indicators Project
- King County AIMS High
- the Baltimore Neighborhood Indicators Alliance
- the Community Assessment Project of Santa Cruz County

- the Central Texas Sustainability Indicators Project
- Indicators Northwest
- Virginia Performs
- the Truckee Meadows Tomorrow Quality of Life Indicators,
- the Orange County Community Indicators
- the Long Island Index
- the Silicon Valley Index
- the Arizona Indicators
- the Maine Measures of Growth in Focus
- Oregon Benchmarks
- Sustainable Seattle
- the Livable Tucson Vision Program

6) 일본의 행복도지표

- ☐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행복도(평균치)가 낮음
-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15세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음
- 20대에서 40대 전반의 남성, 1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의 여성 사망 원인은 자살이 가장 많고, 20대와 30대의 3명 중 한명이 과거에 자살을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함
- 또한 일본의 특징은 고령층이 가장 행복도가 낮다는 데 있음
- 통상 선진국에서는 연령과 행복도가 U자형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과 는 대조적

- ☐ 한편, GDP만을 사회발전의 지표로 보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목표 (사회진보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치, 경제, 사회, NPO(Non-Profit Organization) 등 세계각층에서 활발
- 1970년대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GDP의 상승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행복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Happiness paradox” 가 나타남

- 이후에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행복도 연구가 이루어져 옴
- “Happiness paradox” 는 고도성장기 이후의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님

□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행복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산출한 지표가 행복도지표임

- 즉, 행복도지표란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 시계열로 비교 가능하도록 만든 지표로, 평가를 위한 도구

- 따라서 지표작성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그러나 행복도지표 작성의 의미는, 기존에는 정책과정에서 무시되어 온 개인의 행복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는 데 있음

- 일본에 있어서 행복도의 원인과 요인을 파악하여, 국가, 사회, 지역이 개인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장단점과 개선해야할 점, 악화된 점을 명확히 하는 것
-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사회, 지역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 행복도지표의 체계

- 3개의 축

- 2011년 12월 작성된 행복도지표는 内閣府「国民生活選好度 調査」(이하「選好度調査」)와 기타 국내외의 행복도에 관한 조사연구 성과를 근거로 작성
- 경제사회상황, 심신의 건강, 관계 세 가지 축
- 2009년과 2010년도 選好度調査 결과를 살펴보면, 행복감을 판단할 때 중시되는 사항은 가족, 건강, 가계(소득, 소비), 정신적 여유(자유 시간)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자연, 지역사회, 천연자원, 생

물, 지구환경 등의 유지가 현 세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현 세대의 행복감이 이후세대의 행복감을 희생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은 3개의 축과 별도로 취급

- 따라서 행복도지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그림 2〉 일본의 행복도지표 체계



○ 라이프스테이지의 고려

- 행복도지표의 전체적인 구성은 3개의 축과 지속가능성이지만, 행복감을 판단할 때 중시하는 항목은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10대 후반~20대 전반, 20대 후반~30대, 40대~50대 전반, 50대 후반 이후로 구분
- 남성 10대 후반, 20대 전반에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 ‘정신적 여유’도 3번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과 큰 차이를 보임
- 남성 2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에는 ‘가계’ 혹은 ‘가족’이 가장 중요한 항목
- 50대 후반 이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
- 여성도 10대 후반에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친구’가 가장 중요하며, 또한 ‘정신적 여유’도 3번째로 중요
-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는 ‘가족’이 가장 중요
- 40대 전반 이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시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음

-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행복도 항목이 다른 것은, 출생 이후 취학, 취업, 전직, 결혼, 출산, 육아, 퇴직, 사별 등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라이프 스테이지를 거치기 때문
- 그러므로 향후 행복도지표를 산출할 때도 라이프 스테이지를 고려해야 함
- 따라서 행복도지표에서는 크게 ‘어린이·청년층’, ‘성인’의 2개 연령층과 ‘고령자’를 80세 전후에서 구분한 총 4개의 스테이지로 구분하여 지표를 검토

○ 국제비교의 가능성

- 해외의 경우 행복도지표를 구성하는 각종통계는 통계당국에서 검토, 제안, 작성하고 있음
- 일본의 통계와 조사로 파악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일본에서 행복도의 구성요소로 검토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지표도 많음
- 또한 개념이 비슷하고 일본에서도 파악가능한 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통계와 같은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국제비교가 가능
- 따라서 행복도지표에서는 해외의 지표를 검토하여 감안

○ 리스크가 높은 개인과 가구 파악

- 행복도지표의 각 개별지표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개인과 가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예를 들면 경제사회상황이 열악하고,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이 나빠고,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개인과 가구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를 파악할 필요

○ 과거 지표들과의 비교

- 지금까지 정부에서 작성했던 지표에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 SI), 국민생활지표(New Social Indicator: NSI),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 PLI), 생활구조개혁지표 등 총 4개
- 이와 같은 지표들은 GDP 등 종래의 경제지표만으로는 복지수준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만들어짐
- 과거 지표의 특징

- 생활활동영역을 기본으로 하여 체계화됨
- 별도의 데이터 생산 없이 기존에 이용 가능한 통계만으로 지표를 만들고자 함
- 국민생활지표, 생활구조개혁지표에는 주관적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행복의 수준과 만족의 수준 측정을 목표로 한 지표가 없었음
- 변화율로 표준화 하였고, 하나의 수치로 산출되는 통합지표를 작성
- 행복도지표의 특징을 과거 지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체계화함
 - 데이터 정비의 진전과 향후 발전을 고려하여, 현재 기존통계로 파악할 수 없는 지표에 대해서도 행복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면 모두 포함
 - 지표의 중복을 제거
 -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통합지표는 작성하지 않음
 - 통합지표에 대해서는 행복도지표의 목적은 일본사회의 장단점을 명확히 하고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데 있으므로, 하나의 수치로 결과를 표현하는 것은 각 분야의 특징을 은폐하는 것이 될 수 있음 사회상황의 진단서로써 행복도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지표를 만들지 않고 개개의 지표마다 장단점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행복도지표(안)에서는 통합지표를 산출하지 않음

7)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1992)

-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하나의 지수로 제시하기 위하여 신국민생활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할 바 있음
- 신국민생활지표는 일본에서 ‘풍요로움의 지표’라는 별칭으로 지칭되었으며,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의 주관으로 1992년부터 조사되었는데, 여기서 ‘풍요로움’의 개념은 경제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풍요로움, 사회의 안전·안심, 다양한 가치관의 허용,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외국으로부터의 존중, 좋은 환경의 장기적 지속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신국민생활지표의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은 8개 활동영역과 4개 생활평가를 축으로 하여 세부지표들을 배치

- 주거: 주거, 근린사회, 치안 등
- 소비지출: 수입, 지출, 소비생활 등
- 근로: 임금, 노동시간, 취업기회 등
- 양육: 육아, 교육지출, 교육시설, 진학률 등
- 보건의료: 의료, 보건복지서비스 등
- 여가: 휴가기간, 여가시설, 여가지출 등
- 교육: 대학, 평생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 관계: 혼인, 지역교류, 사회활동 등

□ 신국민생활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4개 생활평가를 축으로 하여 동일한 생활 행태라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안전·안심 축: 개인의 욕구로서 가장 기본적인 축
- 공정 축: 격차의 적음이나 사회의 따뜻함을 나타내는 축
- 자유 축: 개인 생활에서 선택의 폭을 나타내는 축
- 쾌적 축: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축

□ 8개 활동영역과 4개 생활평가 축을 교차하여 각 영역을 평가하거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추출한 후,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 표준화지수를 산정하였으며, 표준화지수는 기준연도인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각 연도 변화율의 절대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고, 각 연도의 변화율을 기준년도(1990년) 수준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

- 개별지표들 가운데 지표 수준의 상승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플러스,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지표는 마이너스 값을 부여하며, 활동영역별 개별지표의 표준화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종합점수를 산출

(3) 국내 행복지수 산정결과

1) 현대경제연구원

□ 2007년 12월 이후 반기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5개 요소의 하위지수를 가짐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적 행복지수(Economic Happiness Index: EHI)는 ‘5개 하위지수’와 ‘전반적 행복감’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 ⑥전반적 행복감
- 경제적 행복 예측: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며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차에 100을 더하여 100이상이면 행복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미만이면 반대
- 예: 그렇다가 60%, 아니다가 40%이면 60-40=20이며 100을 더해 120이 지수가 되며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조사 방식 및 대상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한 전화설문
- 전국의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학생 제외) 1,000명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09%

○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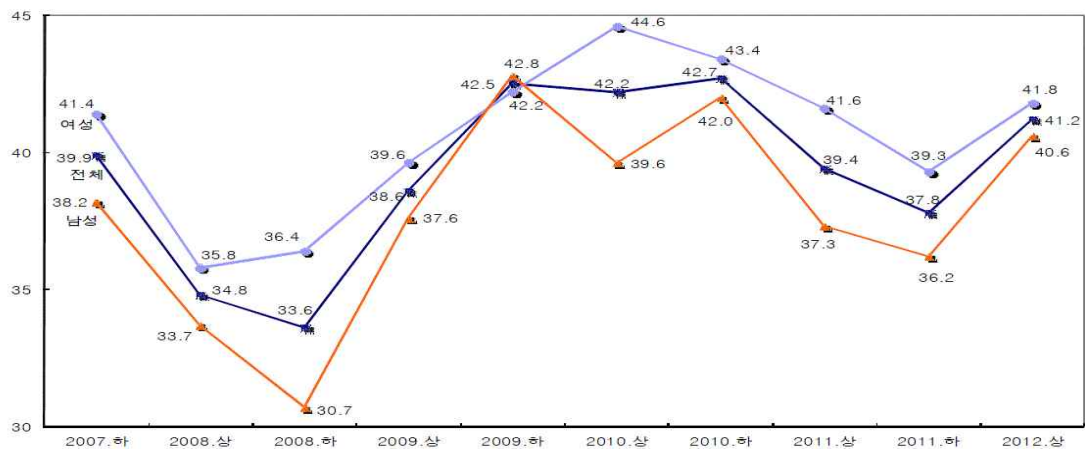
-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 소득별, 자산별, 학력별, 혼인상태별

□ 조사결과

- 경제적 행복지수는 상승한 반면,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 지수는 조사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경제적 행복지수는 대내외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생활 물가 안정과 신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41.2로 2011년 2월보다 3.4p 상승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지수는 4.6p 하락한 121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2012년 하반기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

〈그림 3〉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하면서 각 구성요소의 항목별 수치들도 전기대비 개선

-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이 2.8p, 경제적 우위 2.3p, 경제적 발전 2.1p, 경제적 평등이 7.2p 상승하였고 경제적 불안도 3.4p 개선되면서 경제적 만족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으며 전반적 행복도도 2.8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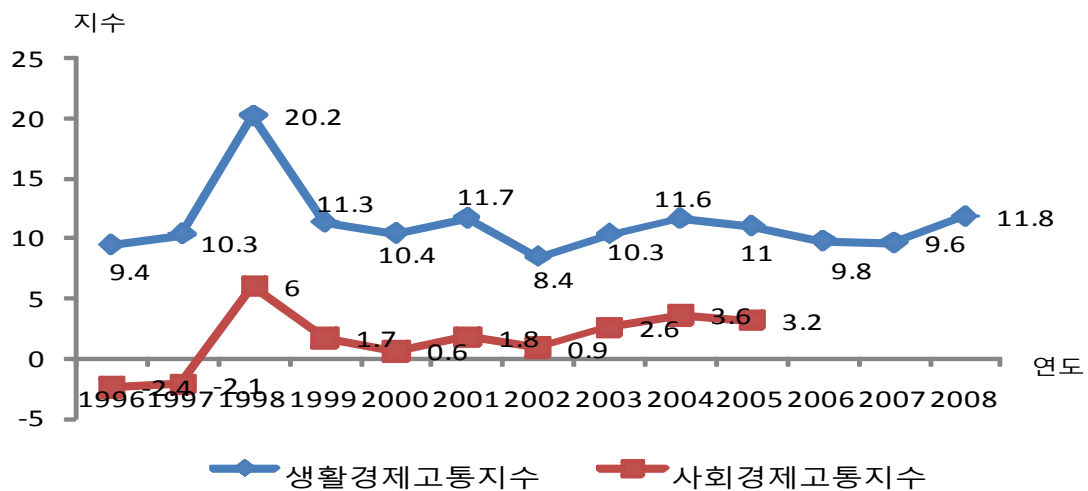
2) LG경제연구원의 사회경제고통지수와 생활경제고통지수

□ 생활경제고통지수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고통지수 산출

○ 생활경제고통지수=생활물가상승률+채감실업률

- 생활물가상승률: 기본 생필품 154개 가격변동
- 채감실업률=(실업자+17시간 이하 취업자)/경제활동인구×100
- 물가상승률이 3%이고 실업률이 4%이면 지수는 7이 됨
- 사회경제고통지수=(표준화한)물가상승률+(표준화한)실업률+(표준화한)소득배율(상위 20%/하위20%소득)+(표준화한)범죄율+(표준화한)자살률
- 표준화 방식: 시계열에 따른 분석에서 전 기간 평균이 0이 되게 하고, 표준편차를 1로 만들어 표준화
- 표준화에 따라 평균은 0이며, 양(+)이면 평균 이상의 고통을 의미하며 음(-)이면 평균보다 낮은 고통을 의미

<그림 4> LG경제연구원의 사회경제고통지수와 생활경제고통지수



주) 사회경제고통지수는 2005년, 생활경제고통지수는 2008년을 끝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경제고통지수는 1991년부터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나 두 지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1991년~1995년은 그림에서 제외

3)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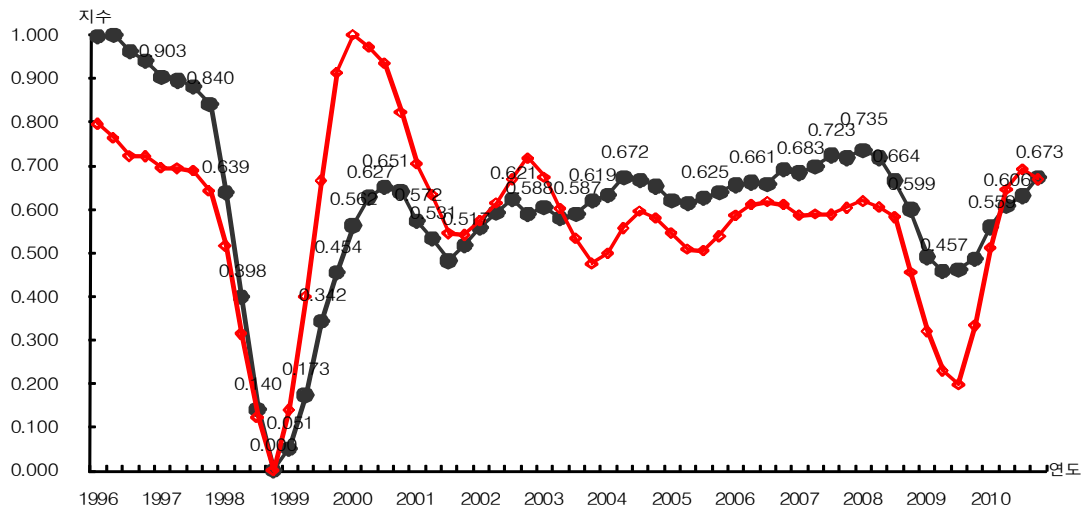
- 소비부문, 소득부문, 분배부문, 안정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질화, 평활화, 표준화, 무가중치 기법 사용
- 각 변수를 실질화, 평활화, 표준화 방식을 통해 변환한 후, 개별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인 경제행복지수를 도출
- 모든 변수는 선형축척기법(Linear Scaling Technique)을 사용하여 표준화하여 변수 측정단위 및 분포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개별변수가 종합지수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
- 분석기간(1996년 1/4분기~2009년 4/4분기) 중 경제행복도가 가장 낮은 시점의 값이 ‘0’, 경제행복도가 가장 높은 시점의 값은 ‘1’ 이 되도록 지수를 구성

〈표 9〉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행복지수 산정 변수

부문	변수
소비부문	- 최종소비지출(a) - 가계의 교양·오락비 지출(b)
소득부문	- 근로소득(c) - 금융소득(d) - 부동산소득(e)
분배부문	- 소득5분위배율(f)
안정부문	- 고용안정: 완전취업자 수 증감(g) - 주거안정: 주택가격상승률(h) - 가계소득증가율(i) - 노후불안: 고령자부양비율(j) - 고령층취업률(k) - 교육불안: 교육비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l) - 물가불안: 소비자물가상승률(m)
가계의 경제행복지수= $\frac{a+b+c+d+e+f+g+h-i+j+k+l+m}{10}$	

주) {x}는 변수 x가 선형축척기법에 의해서 표준화되었음을 의미

<그림 5>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행복지수 추이



주1) 검은색 동그라미는 경제행복지수를 의미하며, 적색 네모는 GDP성장률 지수를 의미
 주2) GDP성장률 지수는 경제행복지수와 대비를 이루기 위해 GDP의 전년 동분기 대비 성장률의 4분기 이동평균을 경제행복지수 같은 방식으로 지수화함

□ 삼성경제연구소 지수의 문제점: 산정변수의 단순성

○ 국내 경제행복지수의 산출에 있어 산정변수들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실질적인 경제행복지수를 나타내는데 한계

- 삼성경제연구소의 행복지수의 경우, 자본스톡 및 R&D 스톡에 대한 변수는 아예 없으며 분배 및 안정변수에서도 1가지 변수만을 포함
- 총 9개의 변수로 경제행복을 산출하는 것은 무리

□ 삼성경제연구소 지수의 문제점: 변수별 무가중치

○ 변수별 가중치에서도 단순히 균등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변수들의 경제행복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함

4) 서울서베이조사

□ 2003년 이후, 매해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는 매해 9월~다음해 2월까지 조사

○층화추출을 통해 구, 동, 주택유형으로 분류

〈표 10〉 서울서베이조사 개요

구 분	가구 및 가구원 조사
조사주기	2003년 이후 매년 실시
모집단	2011년 10월 서울시 거주 가구 및 만15세 이상 가구 구성원
조사내용	인구, 경제, 도시발전과 주거, 문화, 관광, 복지, 여성과 가족, 환경, 교통, 정보와 참여, 안전과 재난, 가치와 의식 등 총 12개 분야별 지표에 관련된 사항, 가구조사 기본 문항
조사기간	2011. 11. 1 ~ 2011. 11. 30
조사방법	가구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단, 만 15세 이상 가구원 부재 시 유치조사 병행
표본크기	20,000가구(만15세 이상 가구구성원 45,605명)
표본오차	가 구: $\pm 0.69\%$ (95% 신뢰수준) 가구원: $\pm 0.46\%$ (95% 신뢰수준)
표본추출방법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조사 기관	월드리서치 /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 가구조사편, 가구원조사표, 외국인 조사편, 사업체 조사편 크게 4부분으로 구성
- 가구조사편: 1. 생활환경 만족도, 2. 가사노동 부담 정도, 3. 거주지 이동 경험, 4. 최근 거주지 점유 형태 및 주거 형태, 5. 거주지 이동 의사, 6. 거주지 이동 지역 및 점유형태, 7. 향후 주거형태, 8. 거주지 선택 시 고려요인, 9. 부동산 자산 비율, 10. 보육 방법, 11. 이용 보육시설, 12. 가구 부채 및 주된 이유, 13. 주관적 소득 수준 인식, 14. 가족안전유형, 15. 생활안전도, 16. 가구소득
- 가구원 조사편: 1. 서울시민 고향 인식도, 2. 참여활동, 3. 행복지수, 4. 도시 위험도, 5. 자원봉사 활동, 6. 시민 기부, 7. 가족에 대한 가치관, 8. 고민 의논 대상자, 9. 개인적인 고민거리, 10. 서울 시민의 직업관, 11. 계층 인식, 12. 계층이동 가능성, 13. 공동체 의식, 14. 외국인과의 관계, 15.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16. 사회적 신뢰, 17. 사회적 차별, 18. SNS 이용 및 여가 활동, 19. 인터넷 사용 정도, 20. TV 시청 정도, 21. 사이버 피해 경험, 22. 평생교육 경험 (1) 평생교육 경험, (2) 평생교육 희망 교육과정, 23. 노후 준비 여부 및 방법, 24. 향후 희망하는 동거 형태, 25. 노후생활 희망정도, 26. 은퇴시기, 27. 은퇴 후 소득 활동, 28. 저출산 문제, 29.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30.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31. 노인의 월 평균 의료비, 32. 노인의 월 평균 소득, 33.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34. 통근, 통학 여부, 35. 서울시 문화환경 만족도, 36. 보행환경 만

족도, 37. 교통환경 만족도

- 외국인 조사편: 1. 서울에서의 삶의 질 (1) 삶의 질 만족도, (2) 행복 지수, 2. 교통 및 환경 (1) 교통수단 이용 형태 및 만족도, (2) 서울 대기의 쾌적한 정도, (3)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 3. 서울의 물가수준, 4. 문화시설 이용, 5. 결혼 생활, 6. 자녀의 보육 및 교육 (1) 자녀 보육 기관, (2) 교육기관의 문제점, (3) 자녀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 7. 건강 관련 (1) 전반적인 건강 상태, (2) 아플 때 주로 찾는 곳, (3) 이용하면서 힘든 점, (4) 보험 형태, 8. 사회 교류 및 일상 생활 (1) 정기적인 참여 단체 및 모임, (2) 한국에서 생활하기 가장 힘든 점, (3)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어려움, (4) 차별 받은 경험, (5) 차별 받은 정도, (6) 한국어 실력, 9. 향후 서울 거주 예상 기간
- 사업체 조사편: 1. 2011년 현재 고용현황, 2. 2012년 채용 계획, 3. 기업 신규인력 채용 기준 (경력 VS 신입), 4. 인력 채용 시 어려운 점, 5. 숙련노동력 구인 용이성, 6. 1인당 월평균 인건비, 6-1. 작년 대비 1인당 월평균 인건비 변화 정도, 7. 기업의 인건비 부담 정도, 8. 기업의 조세 부담 정도, 8-1. 조세 부담 항목, 9. 사업상의 규제 정도, 9-1. 사업상의 규제 개선, 10. 사업환경 만족도, 11. 행정 편의성 정도, 11-1. 행정 편의성 개선 정도, 12. 서울시 행정절차 중 편리한 점 및 불편한 점, 13. 가장 큰 애로사항, 14.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정보습득 용이성, 15. 외국기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성
- 서울시민 삶의 질, 서울의 계층구조 및 시민의식, 사회적 신뢰 및 공동체 의식, 서울주민의 주요 생활상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
- 서울시민 삶의 질: 2011년 서울시민의 종합행복지수 및 생활환경 만족도는 지난해 대비 향상됨. 또한, 교통환경, 녹지환경, 보행환경 만족도는 상승하였으며, 도시위험도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생활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 교통환경: 버스, 지하철, 택시
 - 생활안전도: 소음, 대기오염, 휴식공간 및 녹지부족, 수질오염, 범죠폭력, 길거리의 쓰레기 방치, 주차질서
 - 보행환경만족도: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정도, 서울도심 보행환경

만족정도

- 도시위험도: 자연재해, 밤거리, 다양한 범죄피해의 두려움, 건축물 사고에 대한 불안감
- 직업에 대한 만족도: 권역별, 연령대별
- 서울시민의 종합행복지수: 건강상태, 가정생활, 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사회생활의 평균

○ 서울시민의 생활상

- 가구주의 나이가 적을수록 이사계획이 높았고, 거주지 선택 시 경제적 여건(63.7%)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민의 절반이상이 SNS를 이용하며, 월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94시간임
- 65세 이상 노인들도 10명중 9명은 소득이 있었으며, 그 중 25.5%가 월 50-100만원 수준이었음. 월평균 의료비는 14만 2천원으로 조사됨
- 부채의 주된 이유: 주택 임차/구입, 교육비, 교육비/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재테크 투자, 의료비, 기타
- 이사계획: 이사를 계획하지 않은 경우, 계획하는 경우에 주거환경, 경제적 이유, 교육 여건, 지리적 여건/시간
- 이사 시 주거 점유 형태: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무상 및 기타
- 10년 후 어떤 주택에서 살 것인가: 아파트-아파트, 단독주택-아파트, 연립/기타-아파트, 단독주택-연립/기타, 아파트-단독주택, 연립/기타-연립/기타, 아파트-연립/기타
-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경제적 여건, 주변여건, 생활환경, 거주 안전성/주변 치안, 교육환경, 주차/방 개수, 자녀육아 및 양육, 재테크 수단, 해당지역의 이미
- SNS이용률 및 주로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포털의 블로그, 싸이월드, 트위터, 카페, 페이스북, 미투데이
- 1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연령별, 학력별
- 1일 평균 TV 시청시간

- 사이버피해: 스팸, 개인정보 침해, 사기 및 공갈스팸,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폭행 및 협박, 스토킹
-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기타
-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의료비
-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
- 노후생활자금 마련 준비: 보험, 국민/교원/공무원/군인연금, 은행저축, 개인연금, 부동산 투자, 주택규모 줄여 수익창출, 자녀 책임질 것
- 가족위험 여부: 비경험과 경험의 경우 가족의 건강 이상,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 직업 불안정, 투자 손실, 실직 또는 파산, 범죄 피해, 산업 재해, 기타

○ 서울시민의 교육과 문화

- 미취학 자녀 보육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매년 감소하고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6.02점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력, 고소득 층에서 만족도가 더욱 높음
- 보육방법: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봄, 보육시설에 보냄, 유치원에 보냄,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봄,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김
-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 민간 개인
- 문화환경: 연령대별
- 평생교육 경험률: 직장에서 받은 교육/훈련, 학원/사회교육원 수강, 지역문화센터/백화점 문화센터 강좌수강, TV 및 인터넷 학술 강좌수강, 스터디 클럽/개인과의
- 평생교육 희망과정: 취미/문화/교양/여가선용 관련 교육, 컴퓨터 관련 교육, 어학관련 교육, 일반기술 직업교육, 전통기능/전통문화 관련 교육, 사회봉사 관련 교육, 정규교육 과정

○ 서울시민의 가치와 인식

-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78.7%)하는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학력, 저연령일수록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외국인을 결혼 후 가족으로 수용’ 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공감은 전년보다 상승
-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서울태생 고향, 서울태생 고향 아님, 타지역 태생 고향같음, 타지역 태생 고향같지 않음
- 외국인과의 관계: 나 혹은 나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외국인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외국인 이민정책: 인구감소 해결위해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 필요, 이민자 많아지면 일자리 빼앗길 것 같다
- 계층의식: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에 대해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 계층이동 가능성: 높다, 보통, 낮다
- 직업관 및 소비관: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로 이직 의사, 여가선호, 주택마련 전 차 필요, 외형주의, 유명상표 선호
- 개인적인 고민거리: 경제관련 문제, 건강, 노후생활, 자녀양육, 가족간 문제, 진학/취업/은퇴 등 진로선택, 공부, 자기개발, 본인 및 가족의 결혼, 기타
- 개인적인 고민거리 의논 상대: 남편/아내, 어머니, 형제/자매, 아들/딸, 가족과 의논하지 않음
- 노후생활 희망 비율: 취미/교양활동, 소득창출 활동, 자기개발, 종교활동, 자원봉사, 손자녀 양육
- 저출산 문제의 원인: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기가 힘들어서, 자녀 양육의 심리적 부담, 고용 불안, 출산에 대한 의무감이 낮아져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부족

○ 시민참여 및 시민의식

- 서울시민 10명중 4명은 기부경험이 있고, 10명중 2명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은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5.53점)은 전년보다 약간 하락한 수준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58.2%)과 교육수준(50.1%), 직업(41.2%)에 의해 사회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함
- 자부심
- 기부: ARS를 통한 기부, 현금 직접 기부, 지로 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기부,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 자원봉사활동: 환경보전관련, 자녀교육관련, 아동/청소년/노인 봉사 참여 횟수
- 공동체 의식(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장애아와 어울리는 것 상관 없다, 가난은 사회제도 책임,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 위해 세금 부담의향, 여성 사회참여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사회적 신뢰: 가족, 이웃, 처음 만난 사람, 다른나라 사람, 공공기관
- 사회적 차별 가능성 요인: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외모, 나이, 성별, 국적, 출신지역, 종교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사회발전의 광범위한 요인들을 포괄하고, 경제적 발전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환경요인을 반영하는 성장패러다임의 일환으로서 경제사회발전지표를 개발, 이를 OECD 회원 국가들에 적용하고 한국의 수준을 평가
- 경제사회발전지표의 기본 체계는 국가의 발전 정도 또는 지속가능성은 경제, 사회, 환경 등 세 가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을 상정한 후(대분류), 산하에 5개 중분류, 17개 소분류, 50개 세부 지표를 활용
- 분석 연도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여 년간의 시계열적 자료로 구축하였으며, 경제사회발전지표의 기본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1〉 경제사회발전지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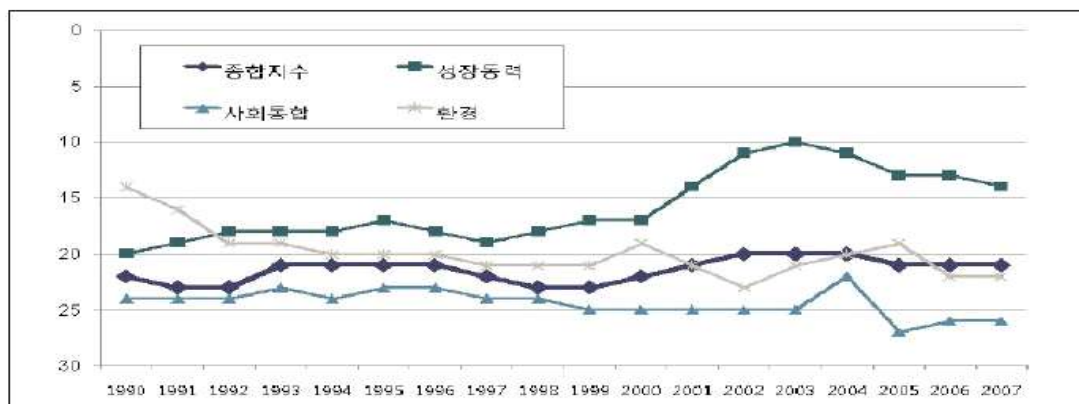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내용	세부내용
성장동력	안정적 성장	소득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
		거시안정성	물가	인플레이션
			재정	정부 부채비율
		금융발전	금융의 규모	주식+채권+은행자산
			활동성	민간신용
			안정성	금리변화율
	산업경쟁력	경제개방성	무역	무역규모
			외국인투자	FDI(inflow)
		정보화	인터넷	인터넷 사용자
			통신	이동통신 가입자
			컴퓨터	PC보급률
		과학경쟁력	연구개발	연구개발 종사자수
			특허	미국특허등록건수
		인적자본	노동의 양	남녀 고용률
			노동의 질	노동생산성
			교육수준	고등교육 이수율, 교육지출
사회통합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자유지수
			사회정치분야	언론자유
		안전	경제	실업률,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노령근로자 비율
			사회	건강, 자살률, 범죄율, 도로 사망률
		역능	경제적 역능	노동참가율
			사회적 역능	노조조직률
			정치적 역능	정치체제 민주성
		복지/분배	사회지출	사회지출비율
			분배	지니계수
		저출산고령화	저출산	출산율
			고령화	고령화 인구 비율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사회적 자본	신뢰	일반신뢰, 기관신뢰
			시민활동	참여정도
		관용사회	다문화주의	다문화지수
			관용성	타인에 대한 관용정도
			외국인 수용성	외국인 비율
		정부	정부 효과성	정부효과성지수
			법치	법치지수
			부패	부패지수
환경	환경	자연자원	에너지 고갈	energy depletion
			광물 고갈	mineral depletion
			삼림 고갈	net forest depletion
		환경위해성	온실가스 배출량	CO ₂ 배출량
			쓰레기 배출량	쓰레기 배출량
			대기오염 미립자	PM10

□ 2007년 종합지수 순위는 룩셈부르크가 1위, 스위스가 2위, 스웨덴이 3위로 나타났음. 1990년 이후로 종합지수 최상위권은 스위스, 스웨

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이었으며, 한국은 21위에서 22위 사이로 움직이고 있어서 큰 개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성장동력 영역에서 한국의 위치는 1990년 20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7년 14위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성장동력 영역에서의 최상위권 국가들은 룩셈부르크,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으로 나타남
- 사회통합 영역에서 한국의 위치는 1990년 24위 이후 개선되지 못한 채, 2007년에는 26위로 오히려 하락한 모습을 보였음. 사회통합 영역에서 양호한 국가들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구 유럽 국가들과 스위스였음
- 환경 영역에서 한국의 위치는 1990년 14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22위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환경 영역에서의 최상위권 국가들은 스웨덴, 헝가리, 스위스 등으로 나타남

<그림 6> 경제사회발전지표의 영역별 한국 순위 경향



- 한국의 자료를 통해 3대 영역과 1인당 GDP 사이의 지표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장동력은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통합지표와 환경지표는 역의 상관관계 또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남

- 한국의 결과를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재정의 거시안정성 및 경제성장 대비 금융 규모, 경제개방성, 과학 경쟁력, R&D 등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

-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동, 형평성 등의 분배 지표, 외국인 수용성 등의 관용사회 지표, 정부경쟁력과 국제사회 기여도에 있어서는 상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분야 위해성 지표에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계적 집락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시행한 결과 한국은 성장동력 측면에서는 북구유럽형과 서유럽형을 합친 유럽대륙형에 거의 마지막으로 합쳐지는 양상을,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일본, 멕시코, 미국 등과 함께 어느 나라와도 집락을 이루지 않는 별도의 국가로 분류되는 양상을, 환경 측면에서는 아시아-지중해형 집락에 속하는 양상을 보였음
- 경제사회발전지표 연구는 약 20여년에 걸친 국가별 시계열적 자료를 구축하고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을 고려한 지표체계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위계적 집락분석을 통해 도출한 한국 복지수준의 유형화는 향후 복지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경우, 경제적 활력 또는 경제적 성장 측면에서는 선진국가라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크게 모자람이 없거나 오히려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소득분배 등 형평성과 사회통합, 환경 요인 등에서는 향후 상당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연구들과 공통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6) 보건사회연구원(2009)의 OECD 행복지수

- NIW 연구체계를 활용
- 2006년 OECD 30개 회원국의 자료를 수집한 후, 보건의료, 기초보장,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등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를 거쳐 가중치를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범주별 순위 및 종합복지지수를 산출

〈표 12〉 보건사회연구원의 지표

구분1	구분2	범주	NIW세부지표	보건사회연구원 최종지표
객관적 지표	화폐지표	경제적 자원 및 연관요인	국민순생산(NNI)	좌동
			가구가처분소득	
			여가시간	
			균등소득분배	
	비화폐지표	사회적 요인-자립	고용률	좌동
			미취업가구원 비율	
			평균 교육년수	
			평균 학업성취도	
		사회적 요인-형평성	Gini 계수	좌동
			상대빈곤율	
			아동빈곤율	
				노인빈곤율
		사회적 요인-건강	성별임금격차	좌동
			출생시 기대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률	
		사회적 요인-사회적 연대	잠재적 수명손실	좌동
			지역사회활동 참여	
			자살률	
			감옥수감자 비율	
		환경요인	범죄피해율	좌동
주관적 지표		주관적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좌동

- 경제적 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환경, 주관적 생활만족도 등 7개 범주를 종합한 순위에서는 스위스가 1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순이었으며, 한국은 25위
- 경제적 요인 범주에서는 룩셈부르크가 1위였으며, 한국은 22위
- 한편 자립 범주에서는 스위스가 1위, 한국은 15위
- 형평성 범주에서는 덴마크가 1위였으며, 한국은 27위
- 건강범주와 사회적 연대 범주에서 한국의 순위는 각각 23위 및 26위로 하위권
- 환경 범주와 주관적 생활만족도 범주 역시 한국은 각각 23위, 26위로 하위권

〈표 13〉 OECD 행복지수 종합순위 및 점수(2008 기준)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스위스	0.747	16	프랑스	0.626
2	룩셈부르크	0.745	17	호주	0.618
3	노르웨이	0.736	18	일본	0.617
4	스웨덴	0.734	19	벨기에	0.599
5	오스트리아	0.712	20	미국	0.588
6	캐나다	0.697	21	이탈리아	0.580
7	덴마크	0.692	22	그리스	0.556
8	아이슬란드	0.692	23	체코	0.548
9	핀란드	0.687	24	포르투갈	0.525
10	네덜란드	0.669	25	한국	0.475
11	영국	0.666	26	폴란드	0.450
12	뉴질랜드	0.649	27	슬로바키아	0.427
13	아일랜드	0.646	28	멕시코	0.430
14	독일	0.638	29	헝가리	0.404
15	스페인	0.633	30	터키	0.310

주) 점수는 정규화 및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0~1사이 값임

7) 보건사회연구원(2011, 2012)

- ☐ 보건사회연구원(2011)을 업데이트한 결과
- ☐ 보건복지 종합지수는 5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작성
- ☐ OECD 국가의 종합복지수준을 작성하고, 이를 비교 분석
- ☐ 복지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활력, 지속가능,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 등 다섯 부문의 복지지수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개별 지표를 선정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단일 종합지수를 통하여 OECD 국가의 복지수준을 비교분석
- ☐ 2008년 이후에 시차가 최대 2년 이내인 자료들을 분석
- ☐ 표준화, 가중치, 종합지수의 작성과정
- ☐ 표준화는 순계열과 역계열로 나누어 최대 및 최소를 이용
- ☐ 보건사회연구원(2011)과 같은 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결정
 - 개별 지표에 대한 가중치 산출을 위하여 사회복지학(50%), 경제학(22%), 사회학(18%) 등의 분야의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실시하였으며, 이들 전문가들이 응답한 부문지표와 개별지표의 가중치 평균값

○ 종합지수는 지표별 가중치와 표준화된 값의 합으로 계산

〈표 14〉 지표구성 및 자료원

부문지표	개별지표	영문명	자료원(기준연도)	비고
경제활력지표(5)	고용률	Employment rates	OECD(2010)	
	실질경제성장률	Real GDP growth	OECD(2010)	
	물가상승률	Consumer Price Indices	OECD(2010)	소비자물가
	1인당 GDP	GDP per capita	OECD(2010)	미국 달러, 구매력 평가기준
재정지속지표(4)	국가부채비율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OECD(2010)	
	재정적자율	General government net borrowing or net lending	OECD(2010)	
	조세부담률	Total tax revenue	OECD(2010), Revenue Statistics	
	사회보험부담률	Social Security Funds	OECD(2010), Revenue Statistics	
복지수요지표(4)	노인인구비율	Elderly population	OECD(2010)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OECD(late-2000s)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50%)	OECD(late-2000s)	상대빈곤율
	실업률	Unemployment rates	OECD(2010)	
복지충족지표(6)	공적연금소득보장률	Gross public pension replacement rates	Pension at a glance 2009, OECD(2007)	
	건강보장률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outpu of pocket payment(% of total expenditure on health)	OECD(2010)	
	이동 및 보육지원율	SOCX-Child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OECD(2009), Social expenditure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회지출 이용
	장애급여 보장률	SOCX-Incapacity related	OECD(2009), Social expenditure	20-64세 인구대비, 장애관련 사회지출 비율 이용
	국가투명도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0)	0-10점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Public social expenditure	OECD(2009), Social expenditure	
국민행복지표(4)	자살률	Suicide, Mortality rate	OECD(2010), Health Data	인구 10만명당
	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s	OECD(2010), Health Data	
	평균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OECD(2010), Health Data	
	주관적 행복도	Life satisfaction	OECD	

□ 2010년 결과에서 스웨덴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23위임

〈표 15〉 OECD 행복지수 종합순위 및 점수(2010 기준)

순위	국가	점수	순위차	순위	국가	점수	순위차
1	스웨덴	0.747	-9	16	벨기에	0.626	4
2	노르웨이	0.745	0	17	체코	0.618	-7
3	아일랜드	0.736	-3	18	포르투갈	0.617	-7
4	네덜란드	0.734	-1	19	캐나다	0.599	10
5	덴마크	0.712	-10	20	이탈리아	0.588	1
6	뉴질랜드	0.697	-16	21	슬로바키아	0.580	-5
7	룩셈부르크	0.692	6	22	스페인	0.556	2
8	핀란드	0.692	-8	23	한국	0.548	2
9	오스트리아	0.687	1	24	폴란드	0.525	-3
10	영국	0.669	-3	25	일본	0.475	8
11	호주	0.666	4	26	미국	0.450	23
12	독일	0.649	1	27	헝가리	0.427	-1
13	스위스	0.646	9	28	멕시코	0.430	-1
14	아이슬란드	0.638	0	29	터키	0.404	-1
15	프랑스	0.633	-3	30	그리스	0.310	7

주) 순위차는 종합복지지수 순위에서 소득순위를 뺀 것이며, 그 값이 음수이면 소득순위보다 종합복지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

8) 통계청(2011)

□ 녹색성장지표

- 2012년 7월부터 통계청에서는 녹색성장지표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는데, 녹색성장정책지표와 녹색생활지표로 구분
- 녹색성장정책지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분야 및 10대 정책방향을 지표 작성 틀로 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지표체계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의 세 분야(대분류)로 이루어져 있음
- 매 2년마다 작성하는 이 지표는 총 3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분류 및 개별지표 체계는 다음의 표에 요약되어 있음

〈표 16〉 통계청 녹색성장정책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단위명	최근년도	최근년도 값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	kg CO ₂ /천원	2009	0.619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백만ton CO ₂	2009	607.6
		산업 온실가스 흡수량	백만ton CO ₂	2009	42.9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	TCE/백만원	2010	0.252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	2010	10.8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2010	2.61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식량자급률	%	2010	54.9
		강수예보 정확도	%	2010	75.6
		정부예산 중 재해예방투자	%	2010	2.40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정부 R&D지출 중 녹색R&D	%	2010	17.5
		GDP 대비 국내 총R&D 지출	%	2010	3.7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	건	2010	9,639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GDP 단위당 국내물질소비	kg/천원	2010	0.640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	2009	0.96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	10억원	2010	8,128
	산업구조의 고도화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비중	%	2010	58.5
		지식서비스산업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2010	48.2
		정보통신산업 총부가가치 비중	%	2010	11.4
	녹색경제 기반 조성	정부구매 온실가스 감축량	천ton CO ₂	2010	2,224
		ISO14001 인증기업수	개	2010	6,628
		환경세 세수 비중	%	2010	11.1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녹색국토, 교통조성	1인당 생활권 도시립	m ² /인	2009	7.76
		지역간 대중교통 여객수송 분담율	%	2009	40.3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	2009	3.06
	생활의 녹색혁명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TCE/인	2010	0.443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L/인/일	2009	332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kg/인/일	2009	1.02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CDM 온실가스 감축인증	천ton CO ₂	2010	17,058
		GNI 대비 ODA	%	2010	0.12
		ODA 중 녹색 ODA	%	2009	12.4

자료) <http://green.kostat.go.kr/portal/greengrow.do>

□ 지속가능발전지표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77개 지표를 선정

〈표 17〉 지속가능발전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사회	형평성	빈곤	빈곤인구비율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실업률
		노동	근로시간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남녀평등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건강	영양상태	유소년 영양상태(과잉)
		사망률	영아사망률
		수명	기대여명
		식수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건강관리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율
			사회복지지출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교육	교육수준	중등학교 순졸업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공교육비 지출
	주택	생활환경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주택수(인구 1천명당)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재해/안전	범죄, 재해	범죄발생률
			자연재해 피해
	인구	인구변화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고령인구비율
환경	대기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오존층파괴물질 배출량
		대기질	광역시도별 대기오염도(서울)
	토지	농업	농지면적 비율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화학비료 사용량
		산림	농약 사용량
			국토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도시화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목재 벌채 정도
	해양/연안	연안지역	도시화율
			수동권 인구집중도
			연안오염도(서해)
		어업	폐기물 해양투기량
			갯벌 면적 증감
	담수	수량	수산자원량
			어업양식량
		수질	취수율
			1인당 1일 물소비량
경제	경제구조	경제이행	4대강 수질오염도(물금)
			하수도 보급률
	생물다양성	생태계	자연보호지역비율
			국가생물종 수
			멸종위기종 수
			국내총생산(GDP)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1인당 GDP
			경제성장률
			GDP대비 순투자율
			소비자물가지수
		무역	무역수지
		재정상태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
			GDP대비 대외채무 비율
		대외원조	GNI 대비 공적대외원조(ODA) 비율
		물질소비	자원생산성
	소비/생산	에너지 사용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총에너지 공급량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에너지 원단위
		폐기물 관리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교통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수도권)
			자전거 도로 총 연장
			자동차 사고건수
	정보화 등	정보접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PC보유 가구비율
		정보인프라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과학기술	GDP 대비 R&D 지출 비율

9) 이내찬(2012)

- ☐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 34개 국가이며 각 지표의 데이터는 최솟값과 최댓값 간 차이를 기준으로 표준화하고 10점 만점의 양수로 정규화
- ☐ 행복지수는 총 19개의 지표로 구성
- OECD의 BLI 지표 12개에 경제적 안정, 정부에 대한 신뢰, 외부인에 대한 관용과 성차별 등 사회자본 관련 지표와 지니계수, 빈곤율 등, 부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추가되었으며, 자연 환경적 요인으로 지속가능성이 포함

〈표 18〉 행복지수의 지표

지표	출처	연도	구분
인당방수	EU-SILC, 각국 통계청	2009	BLI
필수시설불비가구비율	EU-SILC, 각국 통계청	2009	BLI
가처분소득	OECD National Account at a Glance	2010	BLI
인당GDP	database	2010	IMF
고용률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BLI
사회네트워크 안정성	Gallup World Poll	2010	BLI
관대성(소수그룹)	Society at a Glance 2011	2010	OECD
투표참가율	Society at a Glance 2011	2008	BLI
국가기관 신뢰도	Society at a Glance 2011	2010	OECD
고등학교 졸업률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8	BLI
기대수명	OECD Health Database	2008	BLI
주관적 건강상태	OECD Health Database	2008	BLI
살해율	UNODC, Eurostat	2008	BLI
상해율	Gallup World Poll	2010	BLI
지니계수	Society at a Glance 2011	2008	OECD
빈곤율	Society at a Glance 2011	2009	OECD
여성차별	Gender Inequality Index	2008	WEF
유지가능성	Ecological Footprint, Biocapacity	2010	GNF
인생만족도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2010	BLI

-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에서는 원 데이터와 추출된 주성분 간 관계를 명확히 보기 위해 유클리디안 좌표축을 회전시키는데 축 간 형성되는 각도에 따라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과 사교회전(oblique rotation)으로 구분
 - 직교회전은 추출된 주성분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사교회전은 비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
 - 직교회전은 단순 가정에 의해 주성분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고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반면, 주성분 간에 상관관계가 클 경우 정보 손실이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며 사교회전은 직교회전의 장단점을 반대로 가짐
 - 사교회전 시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주로 지표와 주성분 간 부분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패턴행렬(pattern matrix)에 따르며 경우에 따라 구조행렬(structure matrix)을 참고
 - 직교회전 시는 두 행렬이 일치
 - 여기서는 직교회전 방식인 Kaiser 정규화가 있는 배리막스 회전 방식(Varimax rotation)을 적용하되, 사교회전을 행한 결과도 부수적으로 행함

- 주성분의 선택 기준으로는 ‘고유값= 1’, ‘누적 분산 기여율 60%’ 또는 ‘총분산 대비 기여도 10%’ 등이 있으며, 시각적으로 분산 기여율을 플롯(scree plot)하여 보조적 판단 도구로 활용. Kaiser(1960)의 ‘고유값= 1’, 즉 모든 지표의 고유값의 평균값을 하한치로 주성분을 선택
- 이 외에 공통성(commonality)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도 고려한다. 주성분별 구성 지표수는 본고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PCA의 분석에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제약을 두지 않음
- 한편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내적합치도인 크론바 알파 (Cronbach' s alpha) 계수를 산출

□ 가중치

-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지수 값을 도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도출하는가가 중요
-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동일 가중치(equal weight), 일반인에 대한 설문조사(survey), 전문가 델파이(delphi) 등을 들 수 있음
 - 모든 지표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일 가중치 방법은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 중립적인 가치 판단에 입각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도 쉬움
 - 반면 지표 간 중요도의 차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적용하면 지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
 - 설문조사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본질을 간과할 수도 있음
 - 전문가 델파이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전문가 집단 선정 과정이나 시각이 편향될 수도 있으며 지표 구조가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들의 판단조차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 Nicoletti 외(2000)가 제안한 방법으로, PCA 분석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

○ 각 지표의 가중치는 당해 지표가 속한 요인부하량의 제곱을 모든 지표에 대해 합산한 값을 100%로 정규화 하여 도출

- 이 방법은 객관적인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므로 편향되지 않으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짐

□ 연구결과

〈표 19〉 부문별 한국의 순위

지표	수치	OECD 평균	순위(한국)
인당방수	3.3000	5.1735	25
필수시설불비가구비율	5.6000	8.4059	31
가처분소득	2.1245	3.8735	27
인당GDP	1.8701	2.7382	23
고용률	5.2692	6.0118	21
사회네트워크 안정성	0.5319	6.6529	34
관대성(소수그룹)	2.8904	5.9735	28
투표참가율	3.1414	5.1206	26
국가기관 신뢰도	2.4782	4.1441	25
고등학교 졸업률	8.1234	7.0676	17
기대수명	6.9231	6.1559	18
주관적 건강상태	2.1502	6.4412	32
살해율	8.0172	8.1647	26
상해율	9.4776	7.9500	5
지니계수	6.9380	7.0353	21
빈곤율	3.8462	6.3676	28
여성차별	6.3270	6.4676	20
유지가능성	0.4162	8.1824	34
인생만족도	4.5161	6.3412	28
평균	4.4179	6.2246	25

10) 남주하 · 김상봉(2012)

□ 경제행복지수 지표

〈표 20〉 경제행복지수지표

부분	변수
소비부문(3개 변수)	- 1인당 소비지출(ECOS, 15세이상 인구 KOSIS) - 1인당 교양 및 오락비 지출(ECOS) - 1인당 정부지출(ECOS, 연간자료)
미래 성장 및 부의 스톡 부문(5개 변수)	- 1인당 자본스톡(국부통계 중 유형고정자산 사용, KOSIS, 연간자료) - 1인당 R&D 스톡(국부통계 중, 무형고정자산 사용, KOSIS, 연간자료) - 인적자본:

부분	변수
	• 대학입학율(교육통계연보, 연간자료) • 가구당 교육비 지출(KOSIS) - 1인당 가계부채(ECOS)
소득분배 부문(3개 변수)	- 지니계수(KOSIS) - 소득5분위배율(KOSIS, 연간자료) - 절대적빈곤율(KOSIS, 연간자료)
경제적 안정 부문(13개 변수)	- 실업: • 실업률(KOSIS) • 청년실업률(KOSIS) - 저축률(ECOS) - 인플레이션(ECOS) - 교육: 고등교육물가지수(KOSIS) - 건강 및 의료: 국민의료비(KOSIS, 연간자료) - 생활안전: • 이혼율(KOSIS, 연간자료) • 산업재해율(KOSIS, 연간자료) - 주거안정: • 주택가격상승률-가계소득증가율(KOSIS) - 노후안정: • 고령자부양비율(KOSIS) • 55세 이상 고용률(KOSIS) - 환경변수: 대기오염물질배출량(환경부, 2008년까지 연간자료) - 재산권보호(프레이저연구소, 2008년까지 연간자료)

□ 연구결과

○ 경제행복지수의 중요도는 경제전문가 서베이를 통한 AHP 가중치에 의해 파악이 가능

- AHP 가중치는 국민의 경제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도를 경제 전문가들의 서베이를 통해 산정한 것임
- 실업(11.23%), 1인당소비지출(9.84%), 인적자본(9.2%), 노후안정(7.7%), 생활안전(6.03%), 건강 및 의료(5.73%)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1인당정부지출(2.03%), 환경변수(2.91%), 저축률(2.93%), 1인당가계부채(3.18%), 인플레이션(3.4%)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소항목과 경제행복지수와의 중요도와 기여도 분석

순위	중항목	중요도(AHP비중;%)	중항목	기여도(%)
1	실업	11.23	교육	-6.79
2	1인당소비지출	9.84	건강 및 의료	-6.52
3	인적자본	9.2	노후안정	-5.39
4	노후안정	7.7	지니계수	-5.20
5	생활안전	6.03	1인당 가계부채	-4.89
6	건강 및 의료	5.73	소득5분위배율	-4.36
7	1인당R&D스톡	4.88	절대적 빈곤율	-0.46
8	1인당자본스톡	4.26	인플레이션	0.49
9	1인당교양및오락비지출	4.18	환경변수	1.27
10	주거안정	4.17	실업	1.35
11	절대적 빈곤율	4.14	1인당 정부지출	3.01
12	소득5분위배율	3.68	저축률	3.05
13	재산권보호	3.65	주거안정	3.34
14	지니계수	3.52	1인당 자본스톡	4.21
15	교육	3.43	1인당 R&D스톡	4.63
16	인플레이션	3.4	재산권보호	4.71
17	1인당가계부채	3.18	인적자본	14.19
18	저축률	2.93	생활안전	16.99
19	환경변수	2.91	1인당 소비지출	18.34
20	1인당정부지출	2.03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58.01

3.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이용한 측정

(1)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 국가의 복지수준과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계량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 지표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사례도 있음. 이러한 사례의 경우 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국민의 ‘행복수준 제고’로 파악하고 행복을 상대적이며 심리적인 안정감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음
- 1972년 부탄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국민의 행복을 단순히 물질적 발전 외에 정신적, 사회적 만족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초기에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의 개념은 경제발전의 지속, 문화가치의 보존과 발전, 자연환경의 보존, 좋은 통치체제의 정립 등 4가지 분야에 의해 결정
- 1998년부터 부탄 정부의 부탄 연구소(The Centre for Bhutan Studies)에서 조사하고 있는 GNH는 경제적인 고도 성장이 아닌 전 국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부탄 정

부의 정책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행복지수라 할 수 있음

-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탄 국민들을 ‘행복으로 부유한 사람들’ 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2005년의 조사에서는 ‘나는 행복하다’ 라고 자가평가하는 국민의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는 등 이른바 ‘부탄 모델’로 불리는 부탄정부의 실험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독특하면서도 가치 있는 연구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음

- 9개 영역과 72개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

- GNH 지수 작성과정은 크게 식별(identification)과 합산(aggregation)의 두 단계로 이루어짐

- 식별 단계에서는 대상자들에게 9개 영역의 충족 여부를 식별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각 영역별로 최소한의 기준선(sufficiency cutoff)이 적용되며 이 때 기준선 이상에서의 성취도 차이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표 22> GNH 세부지표

영역	세부지표
정신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기도문 암송횟수, 명상횟수, 카르마(karma) 횟수, 자기만족감, 질투심, 고요한 심정, 동정심, 관대함, 좌절감, 자살의도
생태(Eco-system diversity & resilience)	강의 오염, 토지의 침식, 쓰레기 처리방법, 서식 동식물의 이름과 종, 집 주변의 식목상태
건강(Health)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지난 30일간 건강한 일수, BMI, HIV/AIDS에 대한 지식, 모유수유기간, 보건소까지 걷는 거리
교육(Education)	교육연수, 문자해독률, 지역의 전설에 대한 지식
문화(Cultural vitality & diversity)	모국어 구사수준, 전통놀이 횟수, 전통예술 기술,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공평함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지역의 가면과 춤에 대한 지식, 호혜주의 원칙의 중요성, 살인에 대한 태도, 절도에 대한 태도
삶의 수준(Living standard)	가구소득, 일상생활의 소득충분도, 음식물안전, 주거상태, 의복구매, 지역 축제 기여도, 가옥의 시급한 유지보수
시간활용(Time use & balance)	근로시간, 수면시간
지역사회 활력(Community vitality)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에 도움을 주는 횟수, 이웃과의 노동력 교환, 친구와의 교제, 부양가족, 많이 다투는 가족, 가족간 이해심, 가족내 안정감, 범죄피해, 안전감, 이웃간 적개심, 봉사활동 일수, 기부, 사회적 지지
좋은 지배체제(Good governance)	정부의 리더십, 서비스 제공도, 불평등 및 부패한 관리, 정부의 사법과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 즉, 기준선만 충족할 경우 그는 충분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고 간주되며, 기준선 이상을 성취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기준선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선과의 거리를 계산한 값을 부여받음

- 합산 단계에서는 식별된 개별 데이터들을 평균하여 국민총행복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도록 표현함
- 국가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다른 지수들과 구별되는 GNH의 가장 큰 특징은 1인당 GDP로 대표되는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정신적·영적·종교적인 측면이 강조됨
- 삶의 질 제고란 결국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인식이 통합되어 동시에 높아졌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그 수준을 주관적으로 측정한 GNH는 향후 복지국가의 성과와 위치 평가에 있어서 적지 않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Med Jones

- 2006년에 Med Jones는 GNH를 7가지 분야로 나누어 서베이(Global GNH Survey)를 통해 수치화를 제안
- Economic Wellness: 개인 채무, 실질소득, 소득분배
- Environmental Wellness: 공해, 소음, 교통
- Physical Wellness: 육체적 건강과 관련된 질병
- Mental Wellness: 우울증치료제의 사용량, 정신병 환자의 증감
- Workplace Wellness: 실업보험 신청건수, 직업변화, 작업여건 및 관련 소송
- Social Wellness: 인종차별, 안전, 범죄율, 이혼율, 내부 갈등 및 가족, 공공소송
- Political Wellness: 지방민주주의 질, 개인 자유, 외국과의 충돌
- 브라질, 이태리, 캐나다 일부에서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GNH의 개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주관적 서베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치화나 국제비교에 한계
- 본 연구에서 산출하는 국민행복지수도 GNH와 비슷하게 경제, 질병,

환경, 직장, 사회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치적인 문제 등은 배제되어 있음

-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통계치가 필요하지만 통계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며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3) 지구촌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

- 영국의 신경경제학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은 개인이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와 평균 수명(Life Expectancy), 생태학적 면적(Ecological Footprint)의 3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2006년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를 발표
 - 주요수단으로는 Community, Technology, Healthcare, Economy, Values, Family, Education, Governance, Employment, Consumption을 강조
- 생태학적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원재생 능력 이상의 과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낮아짐
 - 의식주와 에너지 등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사용된 토지 등의 면적을 의미로 인간이 자연에 남긴 발자국으로 표현
 - 수치가 높을수록 생활하는 데 많은 토지가 필요함을 의미하고, 그만큼 자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생태파괴지수’라고도 불림
 - 세계 151개국의 생태발자국 지수를 산출하는 지구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는 작년 세계 평균지수를 3.1gha(글로벌 헥타르)로 발표함
 - 한 사람이 살면서 일상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자원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면적을 측정해 헥타르(ha)로 나타낸 것으로 한 사람의 수치를 계산해 인구수를 곱하면 현 인구가 소요하는 지구의 총 면적을 구할 수 있음
 - 주목할만한 것은 고소득 국가의 평균지수가 6.4gha, 중간소득 국가가 2.2gha, 저소득 국가가 1.0gha로서 많이 가진 국가가 적게 가진 국가에게 얼마나 많은 생태적 빚을 지고 있는가의 의미
 - 따라서 생태학적 발자국의 수치가 높을수록 그 국가의 소비패턴이나 자원소비의 규모가 생태환경의 복원능력을 저해하여 행복지수를

하락시켜 행복지수와 역의 관계를 가짐

$$\text{행복지수(HPI)} = \frac{\text{삶의 만족도} \times \text{평균 수명}}{\text{생태학적 발자국}}$$

- 삶의 만족도는 “당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평가할 때 0~10중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가?” 로 조사
-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스타리카가 1위이며 한국의 행복지수는 43.8로서 151개 나라 가운데서 63위를 차지
- 코스타리카는 북쪽으로 니키라과, 남쪽으로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미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토착화되고 정치가 안정된 입헌공화국으로 400만 명이 사는 국가이며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지는 국가 중 하나임
-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1로서 63위로 중위권을 유지하며 생태학적 면적은 4.6 글로벌헥타르로 세계평균치보다 높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음
- World Bank에 따르면, 한국의 총 GDP규모는 183개 나라 가운데서 15위로 매우 높은 위치에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80개 중에서 34위를 차지하고 있음
- 결국 경제적 지표만 놓고 본다면 효율적인 산업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인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움
- G8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중위권을 유지: 영국(41위), 이태리(51위), 독일(46위), 일본(45위), 캐나다(65위), 프랑스(50위), 미국 (105위), 러시아(122위)

〈표 23〉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 1인당 국민소득, 총 GDP

행복지수(HPI)						삶의 만족도		1인당 국민소득		총 GDP	
순위	국 가	삶의 만족도	평균 수명	생태학 적 발자국	행복지 수	순위	국 가	순 위	국 가	순위	국 가
1	코스타리카	7.3	79.3	2.5	64.0	1	덴마크	2	노르웨이	1	미국
2	베트남	5.8	75.2	1.4	60.4	2	캐나다	4	룩셈부르크	2	중국
28	뉴질랜드	7.2	80.7	4.3	51.6	3	노르웨이	5	스위스	3	일본
29	노르웨이	7.6	81.1	4.8	51.4	4	스위스	6	덴마크	4	독일
32	인도	5.0	65.4	0.9	50.9	5	네덜란드	8	스웨덴	5	프랑스
34	스위스	7.5	82.3	5.0	50.3	6	스웨덴	10	네덜란드	7	영국
41	영국	7.0	80.2	4.7	47.9	9	핀란드	11	미국	9	인도
45	일본	6.1	83.4	4.2	47.5	11	오스트리아	12	오스트리아	11	캐나다
46	독일	6.7	80.4	4.6	47.2	13	코스타리카	13	핀란드	15	한국
48	오스트리아	7.3	80.9	5.3	47.1	14	아일랜드	14	캐나다	17	네덜란드
50	프랑스	6.8	81.5	4.9	46.5	15	뉴질랜드	15	벨기에	19	스위스
52	스웨덴	7.5	81.4	5.7	46.2	17	미국	17	일본	21	스웨덴
58	네팔	3.8	68.8	0.8	45.6	18	룩셈부르크	18	독일	23	벨기에
60	중국	4.7	73.5	2.1	44.7	19	영국	19	프랑스	24	노르웨이
63	한국	6.1	80.6	4.6	43.8	20	아이슬란드	20	아일랜드	26	오스트리아
65	캐나다	7.7	81.0	6.4	43.6	21	벨기에	21	영국	30	덴마크
67	네덜란드	7.5	80.7	6.3	43.1	24	프랑스	23	홍콩	34	말레이시아
70	핀란드	7.4	80.0	6.2	42.7	27	독일	25	아이슬란드	35	핀란드
73	아일랜드	7.3	80.6	6.2	42.4	44	한국	27	뉴질랜드	36	홍콩
84	말레이시아	5.6	74.2	3.9	40.5	47	일본	34	한국	44	아일랜드
88	아이슬란드	6.9	81.8	6.5	40.2	57	베트남	61	말레이시아	54	뉴질랜드
102	홍콩	5.6	82.8	5.8	37.5	60	홍콩	68	코스타리카	56	베트남
105	미국	7.2	78.5	7.2	37.3	64	말레이시아	86	중국	67	룩셈부르크
107	벨기에	6.9	80.0	7.1	37.1	87	인도	132	인도	79	코스타리카
110	덴마크	7.8	78.8	8.3	36.6	95	짐바브웨	135	베트남	103	네팔
115	짐바브웨	4.8	51.4	1.2	35.3	106	중국	160	네팔	115	아이슬란드
138	룩셈부르크	7.1	80.0	10.7	29.0	142	네팔	161	짐바브웨	128	짐바브웨

주1)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는 151개국 대상 조사, The Happy Planet Index, New Economics Foundation(2012)

주2) 1인당 국민소득은 180개국 조사, 총 GDP는 183개국 조사, World Bank

자료) NEF, 국제생태발자국 네트워크

III. 변수 및 분석방법론

1. 변수의 선정

- ☐ 국내 국민행복지수의 주요 구성항목 및 의미
- ☐ 국내 국민행복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
- ☐ 이용 가능한 분기자료와 연간자료를 이용
-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 ☐ Samuelson은 행복을 욕망에 대한 소비로 정의하므로 소비부문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대안적인 변수를 도입하여 보다 상세한 부문으로 진화할 필요
 - 소비지출 전체와 행복과 관련된 변수를 선택할 필요
 - 여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양 및 오락비 지출을 분리
 - ☐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포함
 - 개인의 경제적 행복이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행복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Osberg and Sharpe)
 - 지속가능성은 미래의 소비의 결정에도 중요
 -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표로는 1인당 정부부채, 1인당 자본스톡(유형고정자산),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지출(대학입학률, 교육비 지출, 노동생산성지수), 1인당 가계부채 등이 분석대상에 포함
- ☐ 삶의 질
 - ☐ 환경경제학자인 Robert Costanza는 삶의 질이 정부의 정책 목표로 관리되는 동안 적절한 정의와 측정이 명시적이지 못함에 따라 분야별 주관적인 웰빙 조사가 존재
 - ☐ 2008년부터 시작된 ‘행복의 심리학’에 대한 연구의 범위에 걸쳐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상정

- 삶의 질 개념은 GNP등 기존의 경제지표중심의 생활여건이나 삶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의 한계로 인해 등장한 개념
 - 비경제적 복지는 소득 획득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쉬우므로 근로환경이 삶의 질에 반작용을 가하므로 고용의 형태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건강, 민간교육비 등의 지표를 포함
 -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구입가능성을 대용변수로 사용
 - 문화시설은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여건이 되기도 하며, 여가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시켜줌으로써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
 - 환경은 질병 발생 등의 건강과 관련되며, 쾌적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 발생, 자연자원의 감소, 생태환경의 유지등과 관련하여 삶의 질에 영향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 국민행복은 경제적 안정(economic stability)에 크게 의존
 - 경제적 안정성은 중산층 비중, 물가, 노후 인구의 소득 등이 중요
- 사회전체의 후생 또는 행복을 결정하는 데에 평등한 사회(equal society), 소득분배(inequality of income), 그리고 빈곤집중(poverty intensity) 등이 중요
 - 소득분배관련 지표로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절대적 빈곤율 사용
- 사회안전은 사회적 안정(social stability)에 크게 의존
 - 사회적 안전을 나타내는 변수로 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변수를 상정하며 식품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항목 추가
- 부패지수를 포함하여 사회적 자본의 대용변수(proxy)로 사용

□ 변수선정 및 산식의 한계점

- 교육, 환경, 문화, 사회적 자본, 건강 등의 자료는 분기별 자료가 불충분하여 연간자료를 이용

<표 24> 국민행복지수의 변수 설정과 산출방식

대항목	중항목(20)	소항목(34)	산식 및 빈도	출처	
1.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6)	1인당소비지출	GDP내 최종가계소비 지출	가계최종소비지출/15세 이상 인구(분기)	한국은행	
	1인당교양 및 오락비지출	GDP내 오락문화비 지출	오락문화비지출/15세 이상 인구(분기)	한국은행	
	1인당정부부채	중앙정부부채	중앙정부부채/15세 이상 인구(연간)	통계청	
	1인당자본소득	유형고정자산	국부 유형고정자산/15세 이상 인구(연간)	통계청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대학진학률	진학자/졸업자(연간)	교육통계연보	
		가구당 교육비지출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 2인 이상) 교육항목(분기)	통계청	
		노동생산성 지수	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연간)	통계청	
1인당가계부채	가계신용	가계신용/15세 이상 인구(분기)	한국은행		
2.삶의 질(6)	고용	고용률	취업자/생산가능인구(분기)	한국은행	
		비정규직 비중	비정규직근로자/임금근로자(분기)	통계청	
	건강	기대수명	0세의 기대여명(연간)	통계청	
		사망률	1천 명당 사망자수(연간)	통계청	
	민간교육비 지출	민간교육비부담	소비자물가지수 내 고등교육물가지수(분기)	통계청	
		교육시설	10만 명당 교육시설 수(연간)	교육통계연보	
		고등학교졸업률(학업중단률)	당해 학업중단자/전년말 재학생(연간)	통계청	
	환경	온실가스배출량(CO2, CH4, N2O, HFCs, PFCs, SF6)		총배출량(연간)	환경부
		대기오염배출량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의 각 배출량의 합(연간)	
		쓰레기 배출량		종량제 봉투 판매량(연간)	
	주거	소득증가율-주택가격상승률	가계소득증가율-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분기)	통계청, KB	
	문화시설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연간)	통계청	
	3.경제/ 사회 안정 및 안전(8)	중산층 비중	중산층 비중	중위소득 50%-150%(연간)	통계청
물가		CPI	소비자물가지수(분기)	한국은행	
		생활물가지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분기)	통계청	
소득분배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연간)	통계청	
		소득5분위배율	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연간)	통계청	
		절대적 빈곤율	기초생활수급자/추계인구(연간)	통계청	
사회 안전		범죄율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연간)	경찰청	
		이혼율	이혼건수/15세 이상 인구(연간)	통계청	
		자살률	자살건수/추계인구(연간)	OECD, 통계청	
부패와 신뢰수준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자료(연간)	국제투명기구	
자연재난/재해 안전		재난/재해 피해액	재난/재해 피해액(대설, 태풍, 호우, 풍랑 등)(분기)	소방방재청	
식품안전		식품 등 수거/검사 부적합률	부적합 건수/검사건수(연간)	식품의약품안전청	
노후안정		55세 이상 고용률	55세 이상 취업자/5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분기)	통계청	
	노인빈곤율	정부발표 최저생계비(시장소득 기준)(연간)	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자료) OECD,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KOSIS(통계청), 교육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등

2. 분석방법론

- 각 변수들을 실질화, 평활화, 선형표준화 방식으로 변환
 -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명목가격으로 측정된 변수는 실질화
 - 각 지수의 계절성(seasonality)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기자료는 4분기 이동평균을 사용하여 평활화
 - 자료에 계절성이 존재하면 계절성이 존재하는 분기에는 상당히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민행복지수 산출을 위해 각 변수에 대해 지수화하여 선형표준화
 - 국민행복지수는 소항목, 중항목, 대항목로 지수화한후 각 소항목들의 가중치를 이용해 가중합을 구함
 - 단, 소항목 원자료들의 계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분기 이동평균값을 구한 후 지수화
 - 국민행복지수는 구성요소들 중의 소항목 값들을 가중평균하여 -100~0과 0~100 사이의 값으로 산출되며, 분석기간 중 상대적 국민행복수준의 추세를 보기위한 scale을 나타냄
 - 소항목의 긍정적 항목들은 0~100의 값을, 소항목의 부정적 항목들은 0~-100의 값을 갖기 때문에 가중합을 갖는 국민행복지수는 사전적으로는 -100~100이 값을 갖게됨
 - 소항목의 긍정적 요소는 0~100의 지수로 환산
 - 긍정적 요소는 값이 커질수록 지수는 양(+)의 값이 커지도록 함
$$\frac{\text{각 분기의 값} - \min}{\max - \min}$$
 - (예시) 고용률이 50%, 55%, 60%일 때 고용률지수는 각각 0, 50, 100이 됨
 - 소항목의 부정적 요소는 -100~0의 지수로 환산
 - 부정적 요소는 값이 커질수록 지수는 음(-)의 값이 커지도록 함

$$\frac{\text{min} - \text{각분기의 값}}{\text{max} - \text{min}}$$

- (예시) 범죄률은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가 30건, 35건, 40건일 때 범죄률 지수는 각각 0, -50, -100이 됨
- 중항목지수는 -100~0 또는 0~100의 소항목지수에 AHP 가중치를 적용하고,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0~100의 지수로 나타냄
- 국민행복지수는 지수화한 소항목에 AHP가중치를 가중합하여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전환
- 국민행복지수의 산출을 위한 각 구성요소들의 가중치(중요도)는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분석결과를 활용
 -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 분석에서 일관성 비율이 0.1이하인 19명의 설문결과를 평균하여 각 구성요소들의 중요도를 최종 산출
 - 대항목에서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도는 32.03%, ‘삶의 질’은 34.96%,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32.99%로 나타남

〈표 25〉 설문조사결과 AHP 가중치(중요도)

구분	일관성비율 0.1이하	일관성비율 0.1초과	전체	동등 가중치
대상지수	19	16	35	
1.1 1인당소비지출	5.82	8.30	6.95	5.56
1.2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4.13	3.47	3.83	5.56
1.3 1인당 정부부채	2.89	3.36	3.11	5.56
1.4 1인당 자본스톡	6.12	5.73	5.94	5.56
1.5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8.82	8.48	8.66	5.56
대학진학률	1.78	2.03	1.89	1.85
가구당 교육비지출	2.46	1.78	2.15	1.85
노동생산성 지수	4.57	6.20	5.31	1.85
1.6 1인당 가계부채	4.25	5.51	4.83	5.56
1.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32.03	34.85	33.32	33.33
2.1 고용	9.57	11.98	10.67	5.56
고용률	7.38	8.68	7.98	2.78
비정규직 비중	2.17	3.26	2.67	2.78
2.2 건강	9.43	14.69	11.83	5.56
기대수명	5.26	9.26	7.09	2.78
사망률	4.16	5.62	4.83	2.78
2.3 민간교육비 지출	6.14	6.49	6.30	5.56
고등교육물가	1.44	2.18	1.78	1.85
교육시설	2.80	2.29	2.57	1.85
학업중단률	2.25	2.03	2.15	1.85
2.4 환경	3.55	6.18	4.75	5.56
1인당 온실가스 배출	1.03	1.61	1.30	1.85
대기 오염 배출량	1.42	3.13	2.20	1.85
쓰레기 배출량	1.12	1.44	1.27	1.85
2.5 주거	3.84	4.65	4.21	5.56
2.6 문화시설	2.43	3.48	2.91	5.56
2. 삶의 질	34.96	47.47	40.67	33.33
3.1 중산층비중	3.09	1.61	2.41	4.17

구분	일관성비율 0.1이하	일관성비율 0.1초과	전체	동등 가중치
3.2 물가	3.60	1.84	2.79	4.17
소비자 물가 지수	1.44	0.92	1.20	2.08
생활물가지수	2.15	0.92	1.59	2.08
3.3 소득분배	4.12	1.97	3.13	4.17
지니계수	1.13	0.55	0.87	1.39
소득5분위배율	1.17	0.51	0.87	1.39
절대적 빈곤율	1.80	0.91	1.39	1.39
3.6 사회안전	6.38	3.18	4.92	4.17
범죄율	3.45	1.18	2.41	1.39
이혼율	1.07	0.50	0.81	1.39
자살률	2.31	1.48	1.93	1.39
3.7 부패와 신뢰수준	5.67	2.62	4.28	4.17
3.8 자연재난/재해 안전	2.51	1.19	1.91	4.17
3.9 식품안전	2.76	2.19	2.50	4.17
3.10 노후안정	4.86	3.13	4.07	4.17
55세 이상 고용률	2.94	1.15	2.12	1.39
노인빈곤율	2.68	1.99	2.36	1.39
3. 경제/ 사회 안정 및 안전	32.99	17.73	26.01	33.33
합	100.00	100.00	100.00	100.00

○ 변수의 측정단위의 문제 및 분포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선형표준화 방법(linear scal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표준화(Osberg and Sharpe(2002), 남주하·김상봉(2012) 등에서 사용)

-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통해 자의적인 가중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가중치(중요도)를 추정: 35명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

○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통해 자의적인 가중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가중치를 추정

- 일반적으로 정성적 지표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AHP 분석이 활용

· 예: 신용평가모형에서의 비계량적 지표의 가중치 선정 시 전문가 집단의 서베이에 의한 AHP 분석을 통해 각 정성적 변수들 간의 가중치를 선정

- AHP 분석은 각 변수들 간에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해 의사결정자들의 선호 정도를 추정

- 가중치 선정을 위해서는 35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변수별로 선호도를 서베이를 통해 조사

- 대항목들의 가중치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은 32.03%, ‘삶의 질’은 34.96%,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32.99%로 나타남
대항목들의 합계로 국민행복지수 구성

-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이란 의사결정자가 내린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전체 35명 중, 일관성 있게 답한 19명의 자료를 이용
 - 일관성비율 값이 10%이하이면 행렬 A는 일관성을 가진다고 평가, 10%이상이면 판단이 무작위라고 볼 수 있음
- 산정기간은 2003년1분기~2013년1분기
 - * 보다 자세한 연구방법론은 <부록 1>에 AHP분석방법론, <부록 2>의 설문내용, <부록 3>에 AHP가중치 참조

☐ 선형표준화의 한계점

- 연간자료가 이용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표준화의 결과가 불안정할 수 있음
- 자료의 빈도가 충분히 많아지게 되면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

<표 26> 주요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중요도(상위 10대 중항목)

순위	중항목	중요도(AHP비중,%)
1	고용	9.57
2	건강	9.43
3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8.82
4	사회안전	6.38
5	민간교육비 지출	6.14
6	1인당 자본스톡	6.12
7	1인당 소비지출	5.82
8	부패와 신뢰수준	5.67
9	노후안정	4.86
10	1인당 가계부채	4.25

IV. 국민행복지수의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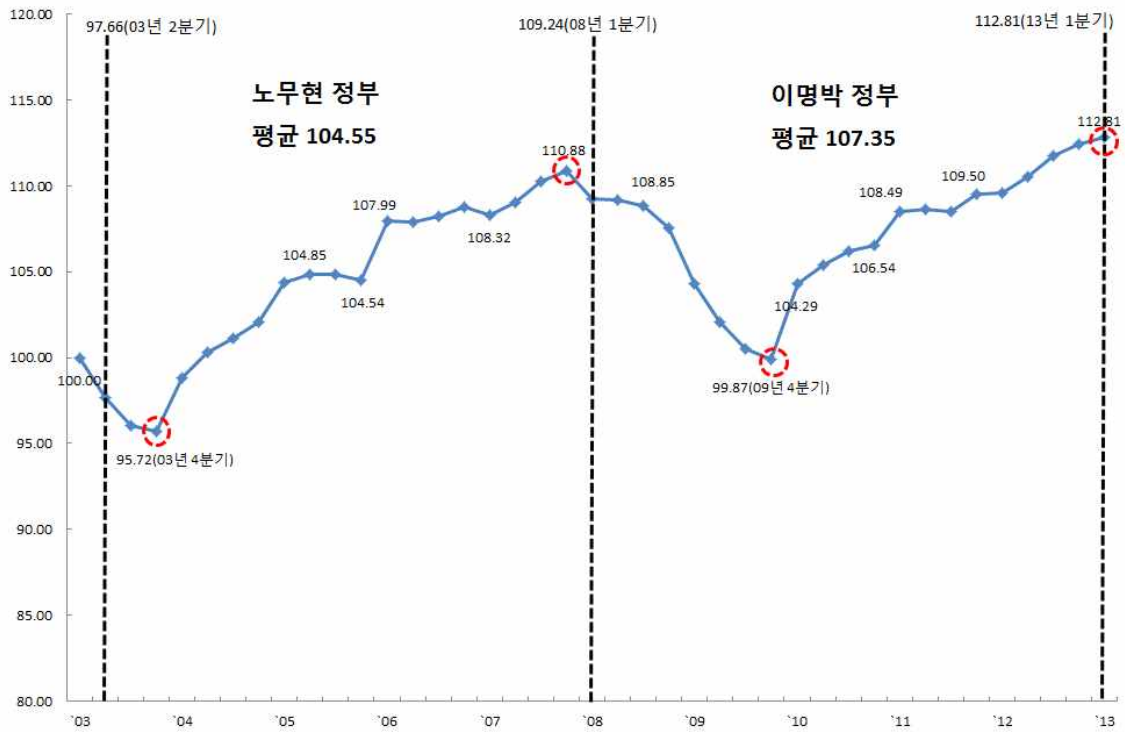
1. 전반적 결과

□ 국민행복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종합지수와 GDP성장률지수와 괴리가 존재하며 동일가중치를 이용한 행복지수는 종합가중치와 비슷한 추세를 보임

○ 분석결과

- 국민행복지수의 산출결과에 의하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95.95로 최저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11.27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4분기를 이후로 반등하여 2013년 1분기에는 113.03으로 나타남
-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국민행복지수의 대항목의 모든 부분에 걸쳐 나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민행복지수의 평균은 각각 104.55와 107.35로 이명박 정부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새정부가 2월25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분기별 데이터상 노무현정부는 2003년2분기~2008년1분기로, 이명박정부는 2008년2분기~2013년 1분기로 계산
- *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지수는 2013년 2분기부터 가능하고, 2013년 10월에 2013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를 발표

〈그림 7〉 국민행복지수



주)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기간중 국민행복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나타낸 것으로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기준

○ 2003년 4분기(과거 최저수준)와 2013년 1분기의 비교

- 카드 사태로 인한 국민행복지수의 역사적 최저점과의 비교
- 대항목에서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99.69→112.28)과 삶의 질(98.04→109.18) 상승한 반면,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98.22→91.56)은 하락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에서 1인당 최종소비 지수(5.77→100), 1인당 교양오락비 지수(4.88→100), 1인당 유형고정자산 지수(0→91.27)는 크게 상승한 반면, 1인당 정부부채 지수(0→-70.97)와 1인당 가계부채 지수(-3.25→-100) 크게 하락
-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상승, 그 중 문화시설 지수(0→100)와 교육지수(0→57.35)가 크게 상승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에서 재난/재해 피해액 지수(-100→-9.50) 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률 지수(-62.5→0)등은 크게 상승하였고, 부패지수(0→-100)와 물가지수(94.87→0) 소득분배지수(100→52.62)는 크게 하락

○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와 2013년 1분기의 비교

- 서브프라임 충격이후 최저 수준과 비교
- 대항목에서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109.00→112.28), 삶의 질(106.65→109.18),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84.53→91.34)으로 개선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에서 1인당 가계부채 지수(-64.79→-100)가 하락하였으나 1인당 교양오락비 지수(60.86→100), 1인당 정부부채 지수(-75.25→ -70.97), 1인당 최종소비 지수(64.75→100) 상승
- 삶의 질에서 건강지수(100→49.5), 환경지수(92.48→48.14)는 하락하였으나 고용이 크게 증가(0→63.5)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에서 중산층비중 지수(10.90→50.90)와 소득 분배지수(0→52.62)로 상승한 반면 물가지수(32.85→0)는 하락

○ 2007년 4분기(과거 최고수준)와 2013년 1분기의 비교

-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국민행복지수 시기와 비교
- 대항목에서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109.8→112.28)은 상승한 반면, 삶의 질(109.86→109.18)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91.60→91.56)은 하락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에서 인적자본형성 및 노동생산성지수(100→77.02), 1인당 가계 부채지수(-45.81→-100)는 하락하였으나, 1인당 교양오락비 지수(62.94→100), 1인당 유형고정자산 지수(55.77→91.27)는 상승
- 삶의 질에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한 반면 주거지수(48.43→95.90)와 문화시설지수(61.25→100)는 크게 상승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에서 중산층 비중지수(12.72→50.90)와 소득 분배지수(9.61→52.62)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부패지수(-61.53→ -100)와 물가지수(54.23→0)으로 크게 하락

○ 국민행복지수와 동일가중치 국민행복지수의 관계는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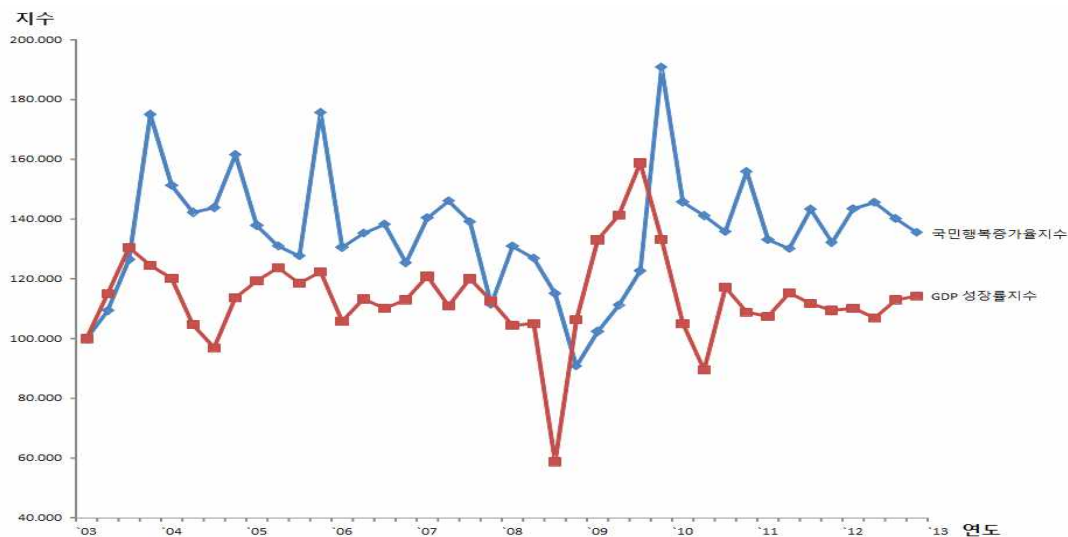
-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상관계수=0.91)

□ 국민행복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 국민행복과 GDP성장률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국민행복과 GDP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단위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
 - 국민행복지수를 국민행복지수증가율의 지수로 변환하고, GDP증가율은 지수화해서 상관관계를 도출
- 국민행복증가율지수와 GDP성장률지수의 상관관계는 0.1137로 낮음

〈그림 8〉 국민행복증가율지수와 GDP성장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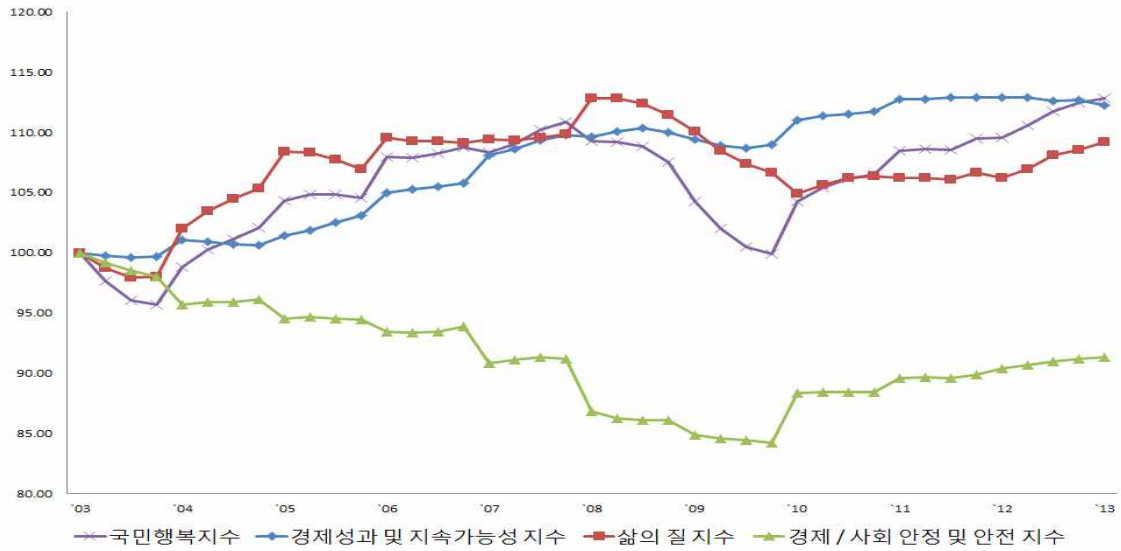


- 주1) 국민행복증가율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증가율을 지수화한후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전환
- 주2) GDP성장률지수는 GDP성장율을 0~100사이로 지수화한후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전환

2. 대항목과 국민행복지수

- 국민행복지수와 3대 대항목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민행복지수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상관계수=0.8756)
 - 국민행복지수와 삶의 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상관계수=0.8351)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좋아질수록 국민행복지수는 높아지나 전반적으로 안정 및 안전지수와 국민행복지수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상관계수=-0.6843)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악화되어도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경우는 다른 두 대항목의 증가가 있기 때문

〈그림 9〉 국민행복지수와 3대 대항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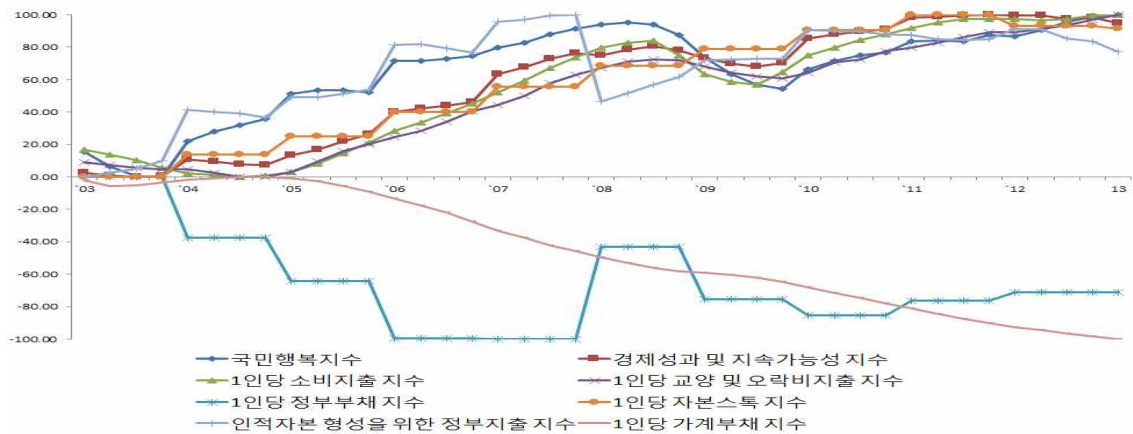
〈표 27〉 국민행복지수와 대항목간의 상관계수

항목	종합지수	동일가중치지수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지수	삶의 질 지수	경제 사회 및 안정 지수
종합지수 (유의확률)	1.0000				
동일가중치지수 (유의확률)	0.9166 00001	1.0000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지수 (유의확률)	0.8756 0.0001	0.9335 0.0001	1.0000		
삶의 질 지수 (유의확률)	0.8351 0.0001	0.6316 0.0001	0.5316 0.0003	1.0000	
경제 사회 및 안정 지수 (유의확률)	-0.6844 0.0001	-0.6923 0.0001	-0.7821 0.0001	-0.6412 0.0001	1.0000

3.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항목/소항목과 국민행복과의 상관관계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1년 4분기를 고점으로 현재는 다소 낮은 상태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는 2003년 3분기(2.20)으로 0이며 2011년 4분기(15.50)에 100

〈그림 10〉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내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표 28〉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내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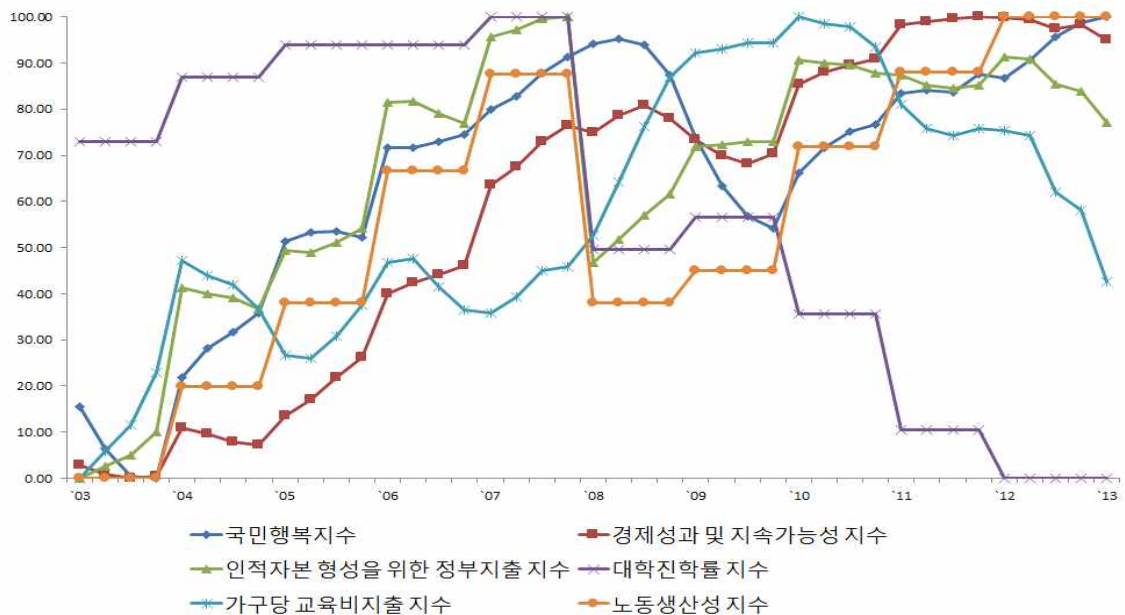
항목	종합지수	동일가중치 지수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지수	1인당 소비지출 지수	1인당 교양오락 비 지수	1인당 정부부채 지수	1인당유형 고정자산 지수	인적자본 지수	1인당가계 부채지수
종합지수 (유의화률)	1.0000								
동일가중치 지수 (유의화률)	0.9166	1.0000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지수 (유의화률)	0.8756	0.9335	1.0000						
1인당 소비지출 지수 (유의화률)	0.8420	0.9361	0.9826	1.0000					
1인당 교양오락비 지수 (유의화률)	0.8391	0.9351	0.9818	0.9905	1.0000				
1인당 정부부채 지수 (유의화률)	-0.7032	-0.4743	-0.5816	-0.4630	-0.4685	1.0000			
1인당유형 고정자산지수 (유의화률)	0.8160	0.9026	0.9795	0.9461	0.9583	-0.5716	1.0000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지출 (유의화률)	0.8251	0.6904	0.8062	0.7083	0.7117	-0.9290	0.7837	1.0000	
1인당가계 부채지수 (유의화률)	-0.7498	-0.8954	-0.9580	-0.9646	-0.9802	0.4178	-0.9622	-0.6770	1.0000

○ 1인당 소비지출지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으로 현재가 가장 높은 상태

- 1인당 소비지출지수는 2004년 3분기(₩2,873,751원)에 2013년 1분기(₩3,298,536원)에 100

-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지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태
 -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지수는 2004년 3분기(₩215,586원)에 0이며 2013년 1분기(₩303,064원)에 100
- 1인당 정부부채지수는 2008년 1분기 호전을 제외하고 악화되는 상태
 - 1인당 정부부채지수는 2007년 1분기(\$ 86,143,390달러)에 -100이며 2003년 1분기(\$ 43,584,211달러)에 0
- 1인당 자본스톡지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11년 1분기에 비해 다소 낮은 상태
 - 1인당 자본스톡지수는 2003년 1분기(₩56,224,383원)에 0이며 2011년 1분기(₩69,620,326원)에 100

〈그림 11〉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지출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지출 지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07년 4분기에 비해 낮은 상태
 -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지출 지수는 2003년 1분기(1.30)에 0이며 2007년 4분기(6.90)에 100
 - 대학진학률 지수는 2012년(71.3%)에 0이며, 2007년(82.8%)에 100
 - 가구당 교육비 지출 지수는 2003년 1분기(260,175원)에 0이며, 2010년 1분기(311,066원)에 100

- 노동생산성지수는 2003년(84.7)에 0이며, 2012년(124.9)에 100

<표 29>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지출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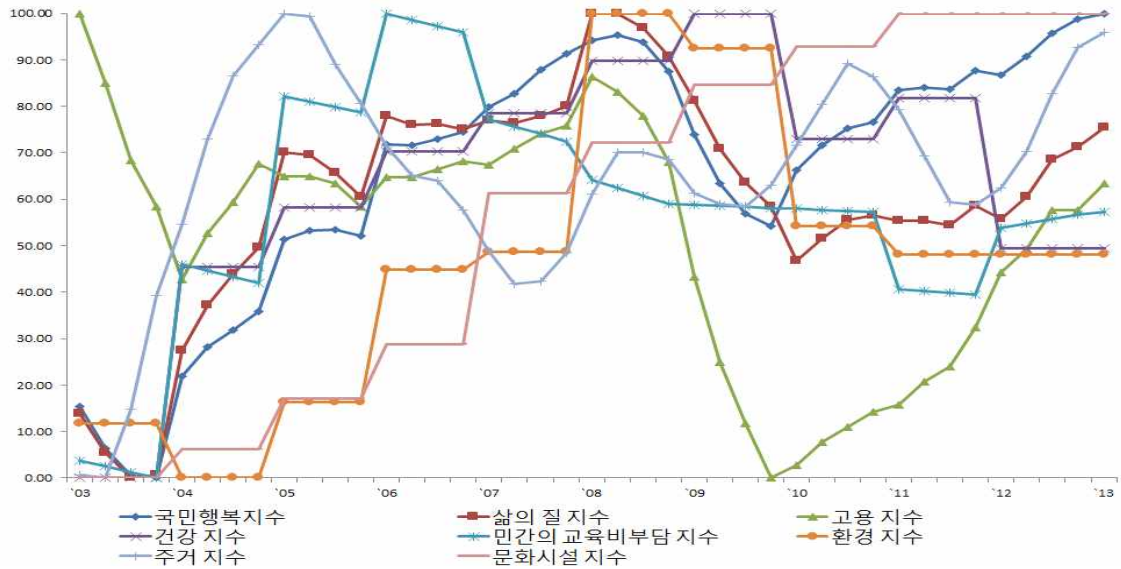
항목	종합지수	동일가중치 지수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지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지출	대학 진학률 지수	가구당 교육비 지출 지수	노동생산성 지수
종합지수 (유의확률)	1.0000 ——						
동일가중치 지수 (유의확률)	0.9166 0.0001	1.0000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지수 (유의확률)	0.8756 0.0001	0.9335 0.0001	1.0000 ——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지출 (유의확률)	0.8251 0.0001	0.6904 0.0001	0.8062 0.0001	1.0000 ——			
대학 진학률 지수 (유의확률)	-0.4739 0.0017	-0.7581 0.0001	-0.7473 0.0001	-0.3274 0.0367	1.0000 ——		
가구당 교육비 지출 지수 (유의확률)	0.5391 0.0003	0.6412 0.0001	0.7638 0.0001	0.6236 0.0001	-0.5789 0.0001	1.0000 ——	
노동생산성 지수 (유의확률)	0.8374 0.0001	0.7683 0.0001	0.8303 0.0001	0.9217 0.0001	-0.5133 0.0006	0.4501 0.0031	1.0000 ——

- 1인당 가계부채지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태(가계신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 1인당 가계부채지수는 2013년 1분기(₩21,319,861원)에 -100이며 2004년 3분기(₩15,219,792원)에 0

4. 삶의 질의 중항목/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관계분석

- 삶의 질 지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2008년 1분기에 비해 낮은 상태
- 삶의 질 지수는 2003년 3분기(-1.30)에 0이며 2008년 2분기(13.60)에 100

〈그림 12〉 삶의 질의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표 30〉 삶의 질의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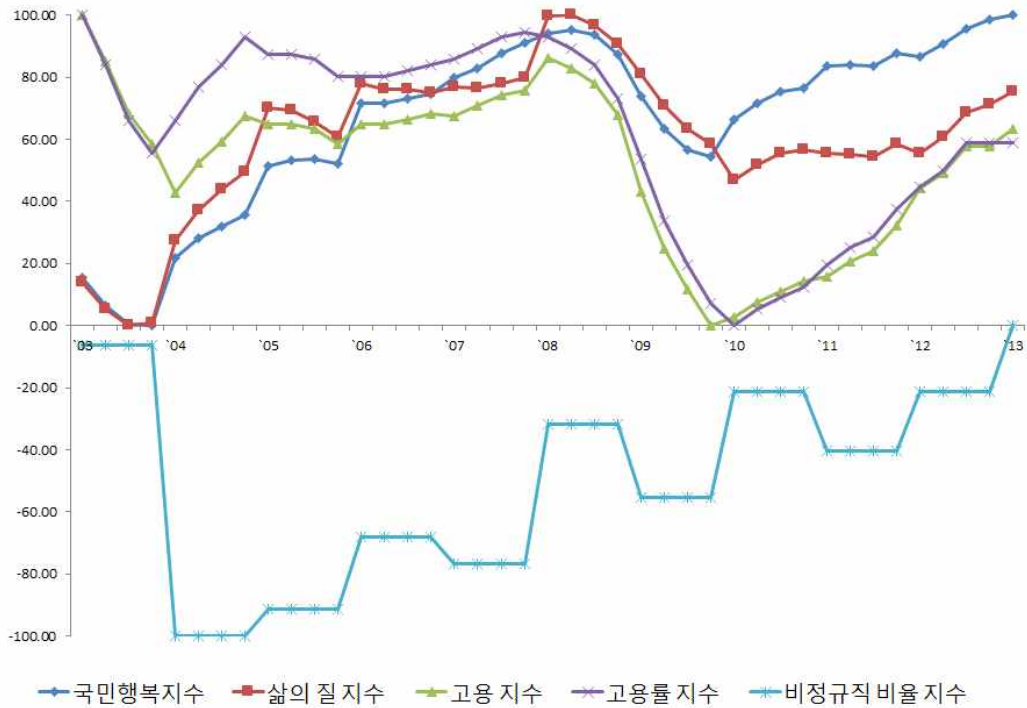
항목	종합지수	동일가중치 지수	삶의 질 지수	고용 지수	건강 지수	민간의 교육비 부담 지수	환경 지수	주거 지수	문화시설 지수
종합지수 (유의확률)	1.0000 —								
동일가중치 지수 (유의확률)	0.9166 0.0001	1.0000 —							
삶의 질 지수 (유의확률)	0.8351 0.0001	0.6316 0.0001	1.0000 —						
고용 지수 (유의확률)	-0.1221 0.4468	-0.2619 0.0982	0.1191 0.4583	1.0000 —					
건강 지수 (유의확률)	0.7040 0.0001	0.5478 0.0002	0.7937 0.0001	-0.4037 0.0089	1.0000 —				
민간의 교육비 부담 지수 (유의확률)	0.5579 0.0002	0.2642 0.0951	0.7824 0.0001	0.0427 0.7908	0.6055 0.0001	1.0000 —			
환경 지수 (유의확률)	0.6544 0.0001	0.6427 0.0001	0.6729 0.0001	-0.2280 0.1516	0.7718 0.0001	0.2758 0.0809	1.0000 —		
주거 지수 (유의확률)	0.4261 0.0055	0.4485 0.0033	0.4711 0.0019	-0.3198 0.0415	0.3816 0.0138	0.5030 0.0008	0.0644 0.6891	1.0000 —	
문화시설 지수 (유의확률)	0.7966 0.0001	0.8943 0.0001	0.4538 0.0029	-0.5615 0.0001	0.6163 0.0001	0.1182 0.4618	0.6947 0.0001	0.2915 0.0645	1.0000 —

○ 고용지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2003년 1분기에 비해 낮은 상태

- 고용지수는 2009년 4분기(-0.70)에 0이며 2003년 1분기(7.20)에 100
- 고용률 지수는 2010년 1분기(58.53)에 0이며 2003년 1분기(59.93)에 100
- 비정규직 비율 지수는 2004년(37%)에 -100 이며, 2013년 1분기

(32.3%)에 0

〈그림 13〉 고용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표 31〉 고용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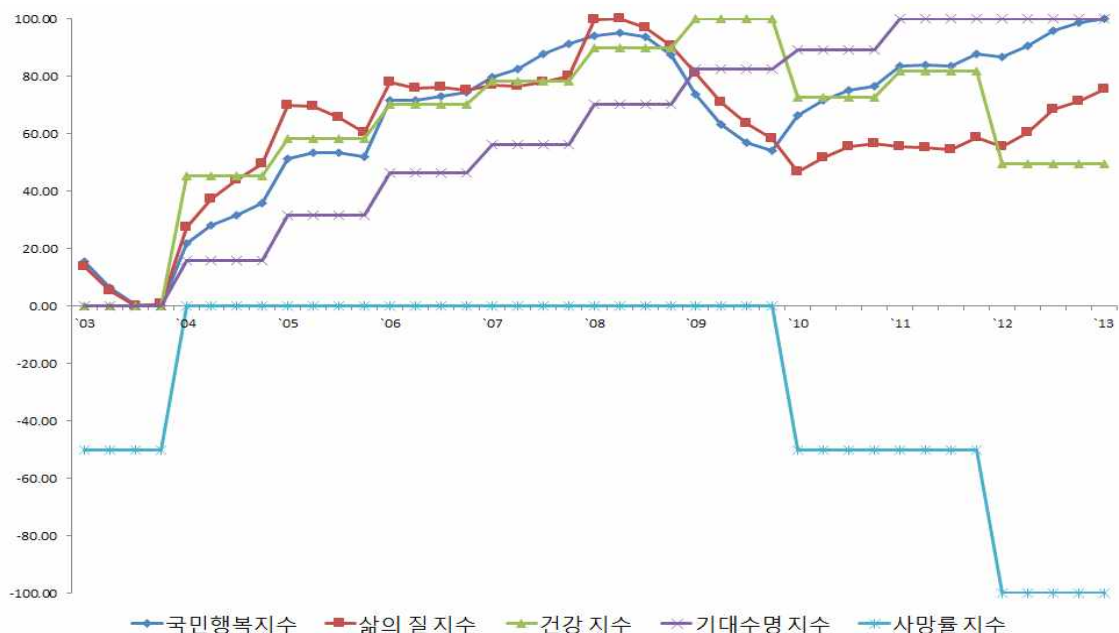
항목	종합지수	동일가중치지수	삶의 질 지수	고용 지수	고용률 지수	비정규직 비율지수
종합지수 (유의확률)	1.0000					
동일가중치 지수 (유의확률)	0.9166	1.0000				
삶의 질 지수 (유의확률)	0.8351	0.6316	1.0000			
고용 지수 (유의확률)	-0.1221	-0.2619	0.1191	1.0000		
고용률 지수 (유의확률)	-0.1527	-0.3706	0.1786	0.9526	1.0000	
비정규직 비율지수 (유의확률)	0.1335	0.4276	-0.2273	-0.1232	-0.4192	1.0000
	0.4052	0.0053	0.1529	0.4430	0.0064	

○ 건강지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2009년 1분기에 비해 낮은 상태(기대수명지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나 사망률지수의 경우 2009년 3분기를 기준으로 악화)

- 건강지수는 2003년 1분기(-2.10)에 0이며 2009년 1분기(4.40)에 100

- 기대수명 지수는 2003년(77.4세)에 0이며, 2011년(81.2세)에 100
- 사망률 지수는 2012년(5.2%)에 -100이며, 2004년(5%)에 0

〈그림 14〉 건강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표 32〉 건강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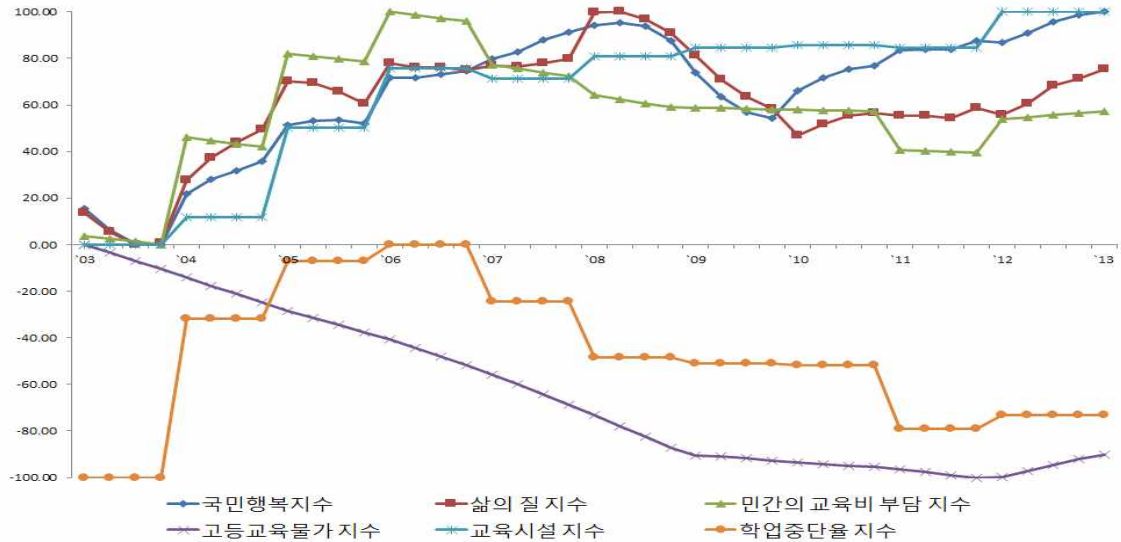
항목	종합지수	동일가중치지수	삶의 질 지수	건강 지수	기대수명 지수	사망률 지수
종합지수	1.0000					
(유의확률)	—					
동일가중치 지수	0.9166	1.0000				
(유의확률)	0.0001	—				
삶의 질 지수	0.8351	0.6316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			
건강 지수	0.7040	0.5478	0.7937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2	0.0001	—		
기대수명 지수	0.8335	0.9108	0.5115	0.6507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006	0.0001	—	
사망률 지수	-0.1808	-0.4586	0.3155	0.3899	-0.4455	1.0000
(유의확률)	0.2579	0.0026	0.0445	0.0117	0.0035	—

○ 민간의 교육비 부담지수는 현재 2006년 1분기를 고점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2003년 1분기보다 높은 상태

- 민간의 교육비 부담지수는 2003년 4분기(-2.40)에 0이며 2006년 1분기(1.50)에 100

- 고등교육 물가지수는 2011년 4분기(101.6)에 -100이며, 2003년 1분기 (65.3)에 0
- 교육시설 지수는 2003년(40.2)에 0이며, 2012년(41.1)에 100
- 학업중단률 지수는 2003년(0.021%)에 -100이며, 2006년(0.012%)에 0

〈그림 15〉 민간의 교육비 부담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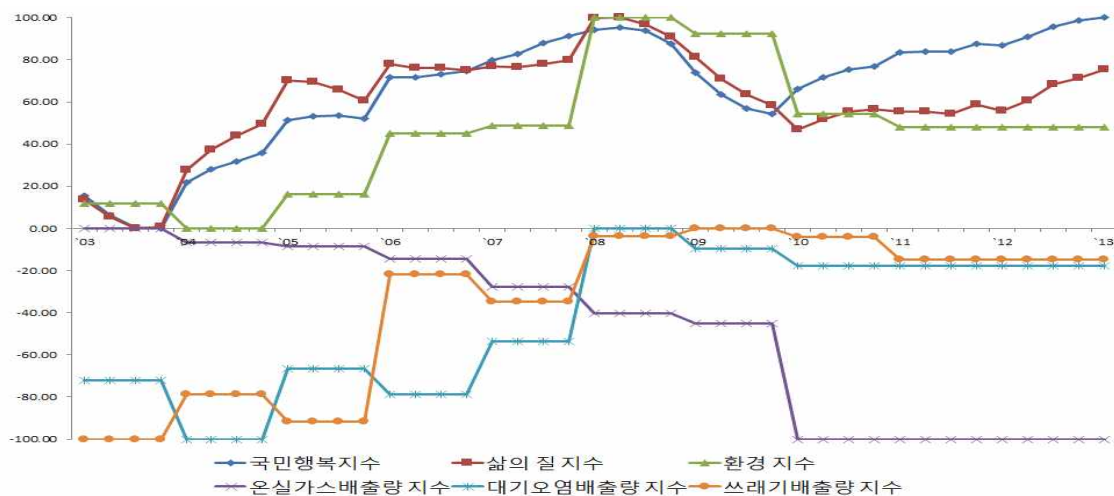


〈표 33〉 민간의 교육비 부담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계수

항목	종합지수	동일가중치 지수	삶의 질 지수	민간의 교육비 부담 지수	고등교육물가지수	교육시설 지수	학업중단률 지수
종합지수 (유의확률)	1.0000 —						
동일가중치 지수 (유의확률)	0.9166 0.0001	1.0000 —					
삶의 질 지수 (유의확률)	0.8351 0.0001	0.6316 0.0001	1.0000 —				
민간의 교육비 부담 지수 (유의확률)	0.5579 0.0002	0.2642 0.0951	0.7824 0.0001	1.0000 —			
고등교육물가지수 (유의확률)	-0.8184 0.0001	-0.8903 0.0001	-0.5289 0.0004	-0.2182 0.1706	1.0000 —		
교육시설 지수 (유의확률)	0.9201 0.0001	0.8877 0.0001	0.7204 0.0001	0.5282 0.0004	-0.9188 0.0001	1.0000 —	
학업중단률 지수 (유의확률)	0.1509 0.3463	-0.1723 0.2815	0.5297 0.0004	0.8738 0.0001	0.2015 0.2065	0.0739 0.6462	1.0000 —

- 환경지수는 2008년 1분기를 고점으로 악화된 모습이나 2003년 1분기보다 개선된 상태(온실가스배출량지수를 제외한 대기오염배출량지수와 쓰레기배출량지수는 개선되는 상태)
- 환경지수는 2005년 1분기(-2.36)에 0이며 2008년 1분기(-0.45)에 100
- 온실가스 배출량 지수는 2010년(669.8톤)에 -100이며, 2003년(559.5톤)에 0
- 대기오염 배출량 지수는 2004년(272만톤)에 -100이며, 2008년(233톤)에 0
- 쓰레기 배출량 지수는 2003년(94만매)에 -100이며, 2009년(87만매)에 0

〈그림 16〉 환경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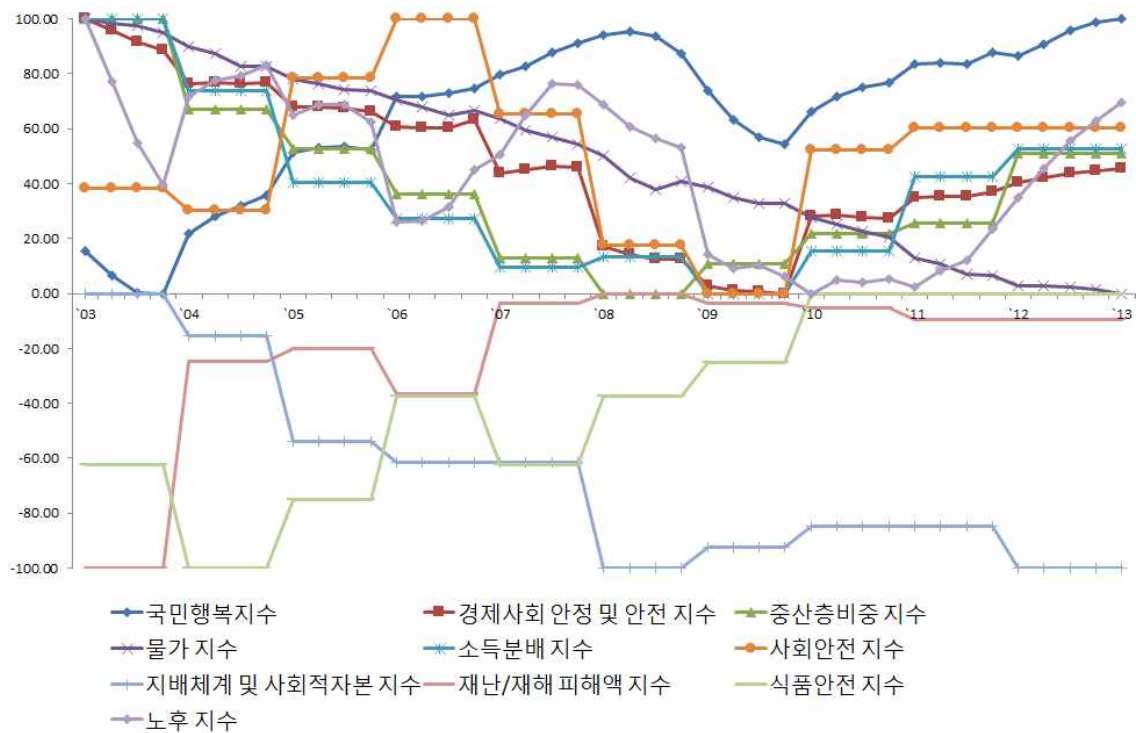
〈표 34〉 환경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상관계수

항목	종합지수	동일가중치지수	삶의 질 지수	환경 지수	온실가스 배출량 지수	대기 오염 배출량 지수	쓰레기 배출량 지수
종합지수 (유의확률)	1.0000						
동일가중치 지수 (유의확률)	0.9166	1.0000					
삶의 질 지수 (유의확률)	0.8351	0.6316	1.0000				
환경 지수 (유의확률)	0.6544	0.6427	0.6729	1.0000			
온실가스 배출량 지수 (유의확률)	-0.6493	-0.8414	-0.1908	-0.3978	1.0000		
대기 오염 배출량 지수 (유의확률)	0.6692	0.8139	0.4490	0.8400	-0.7485	1.0000	
쓰레기 배출량 지수 (유의확률)	0.8074	0.8165	0.6289	0.8510	-0.7026	0.7904	1.0000

5.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의 중항목/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 상관관계분석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2003년 4분기 이후부터 국민행복지수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2008년도 1분기 이후 동행하는 모습으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동향이 달라짐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2003년 1분기에 비
해 낮은 수준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는 2009년 4분기(-19.04)에 0이며 2003
년 1분기(-3.26)에 100

〈그림 17〉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내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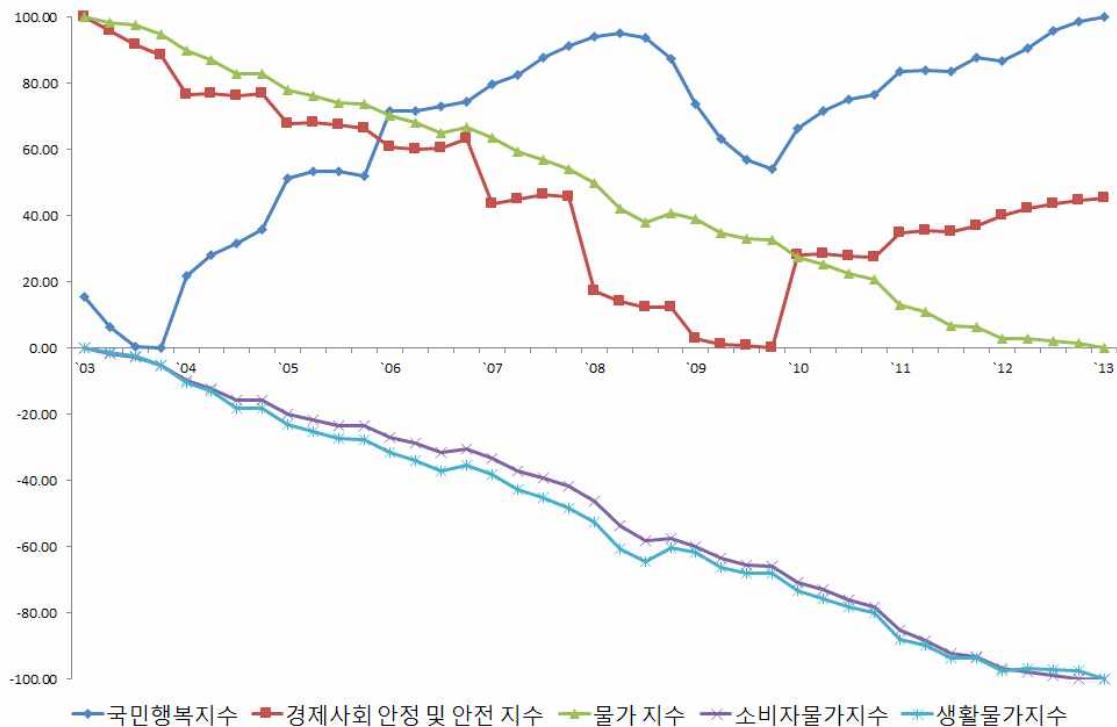
〈표 35〉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계수

항목	종합지수	동일가중치 지수	경제사회 및 안정 지수	중산층 비중 지수	물가 지수	소득분 배 지수	사회안 전 지수	지배체 계 및 사회적 자본 지수	자연재 난·재해 안전 지수	식품안 전 지수	노후 지수
종합지수	1.0000										
(유의확률)	—										
동일가중치 지수	0.9166	1.0000									
(유의확률)	0.0001	—									
경제사회 및 안정 지수	-0.6844	-0.6923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								
중산층비중 지수	-0.7746	-0.6345	0.8860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001	—							
물가 지수	-0.7849	-0.9119	0.7113	0.5398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001	0.0003	—						
소득분배 지수	-0.6865	-0.5006	0.8341	0.9471	0.4354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9	0.0001	0.0001	0.0044	—					
사회안전 지수	0.1992	0.0359	0.4295	0.1526	0.0424	0.0652	1.0000				
(유의확률)	0.2118	0.8239	0.0051	0.3408	0.7923	0.6857	—				
지배체계 및 사회적자본 지수	-0.8925	-0.9086	0.8762	0.7915	0.8775	0.7362	0.0665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6794	—			
자연재난·재해 안전 지수	0.7924	0.6977	-0.7763	-0.8368	-0.6592	-0.7807	-0.0930	-0.7964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5629	0.0001	—		
식품안전 지수	0.6393	0.8041	-0.6171	-0.4233	-0.8946	-0.3630	0.0441	-0.7786	0.3667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001	0.0058	0.0001	0.0197	0.7841	0.0001	0.0184	—	
노후 지수	-0.2811	-0.3666	0.6048	0.4600	0.5626	0.4803	0.0407	0.5202	-0.3128	-0.7136	1.0000
(유의확률)	0.0750	0.0184	0.0001	0.0025	0.0001	0.0015	0.8007	0.0005	0.0465	0.0001	—

- 중산층 비중지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2003년 1분기에 비해 낮은 수준
 - 중산층비중지수는 2008년 1분기(66.30)에 0이며 2003년 1분기(71.80)에 100
-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태(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가 악화됨을 시사)

- 물가지수는 2013년 1분기(-3.59)에 0이며 2003년 1분기(0)에 100
-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2년 4분기(106.7)에 -100이며, 2003년 1분기(80.29)에 0
- 생활물가지수는 2013년 1분기(107)에 -100이며, 2003년 1분기(76.84)에 0

〈그림 18〉 물가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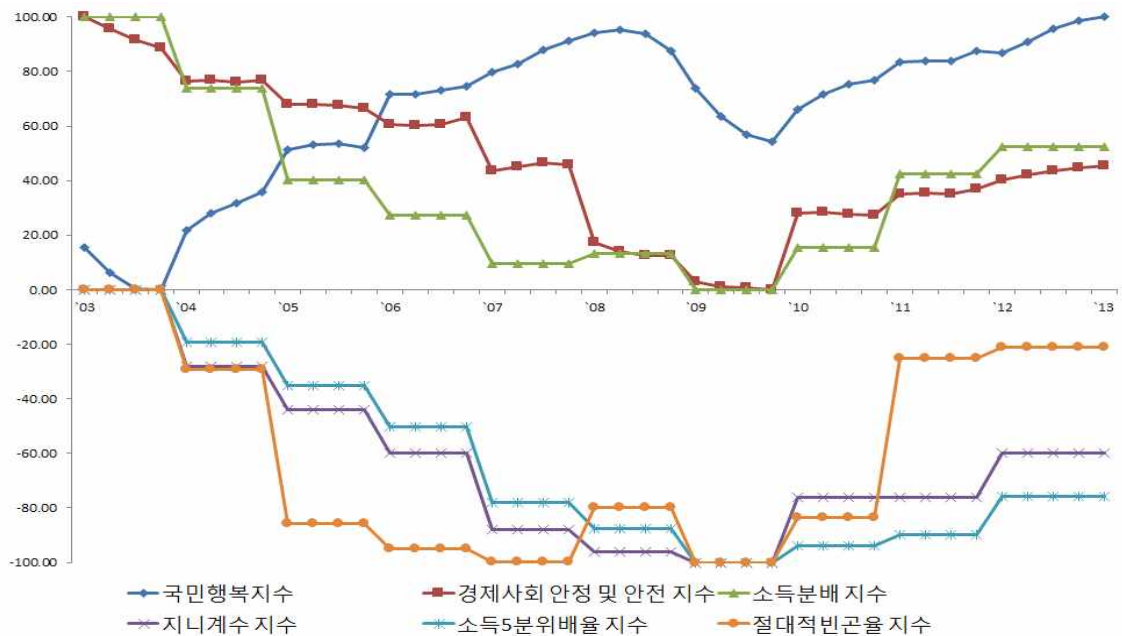


〈표 36〉 물가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관계

확률	종합지수	동일가중치지수	경제사회 및 안정 지수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종합지수	1.0000					
(유의확률)	—					
동일가중치지수	0.9166	1.0000				
(유의확률)	0.0001	—				
경제사회 및 안정 지수	-0.6844	-0.6923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			
물가 지수	-0.7849	-0.9119	0.7113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001	—		
소비자 물가지수	-0.7624	-0.9009	0.6926	0.9990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001	0.0001	—	
생활물가지수	-0.7995	-0.9184	0.7233	0.9996	0.9973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

- 소득분배지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2003년 1분기에 비해 낮은 수준
- 소득분배지수는 2009년 1분기(-4.10)에 0이며 2003년 1분기(0)에 100
 - 지니계수 지수는 2009년(0.295)에 -100이며, 2003년(0.27)에 0
 - 소득5분위배율 지수는 2009년(6.11)에 -100이며, 2003년(4.66)에 0
 - 절대적빈곤율 지수는 2009년(3.18)에 -100이며, 2003년(2.87)에 0

〈그림 19〉 소득분배 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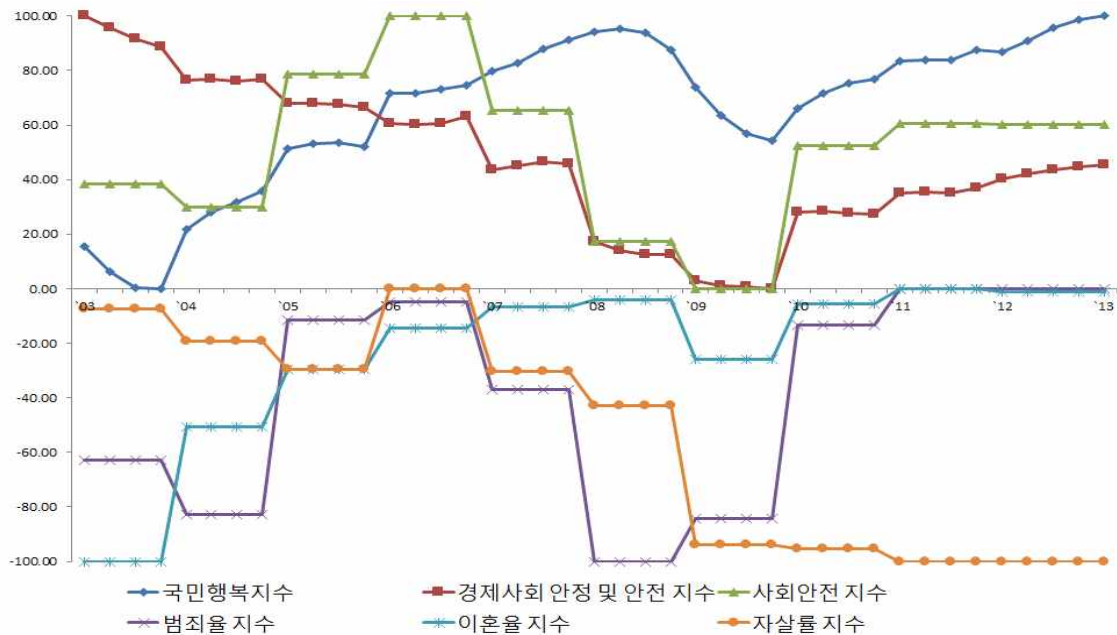
〈표 37〉 소득분배 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관계

항목	종합지수	동일가중치 지수	경제사회 및 안정 지수	소득분배 지수	지니계수 지수	소득5분위배율 지수	절대적 빈곤율 지수
종합지수	1.0000						
(유의확률)	—						
동일가중치 지수	0.9166	1.0000					
(유의확률)	0.0001	—					
경제사회 및 안정 지수	-0.6844	-0.6923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				
소득분배 지수	-0.6865	-0.5006	0.8341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9	0.0001	—			
지니계수 지수	-0.8012	-0.6826	0.9340	0.9379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001	0.0001	—		
소득5분위배율 지수	-0.8241	-0.8128	0.9437	0.8311	0.9421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	
절대적 빈곤율 지수	-0.3752	-0.1007	0.5092	0.8770	0.6672	0.4670	1.0000
(유의확률)	0.0157	0.5310	0.0007	0.0001	0.0001	0.0021	—

○ 사회 안전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며 2003년 1분기에 비해 높은 상태
(자살률지수를 제외한 이혼율지수, 범죄율지수는 줄어듦을 시사)

- 사회 안전지수는 2009년 4분기(-5.43)에 0이며 2006년 4분기(-.048)에 100
- 범죄율 지수는 2008년(42.16)에 -100이며, 2011년(35.20)에 0
- 이혼율 지수는 2003년(55.08)에 -100이며, 2011년(34.73)에 0
- 자살률 지수는 2011년(31.95)에 -100이며, 2006년(22.02)에 0

〈그림 20〉 사회안전 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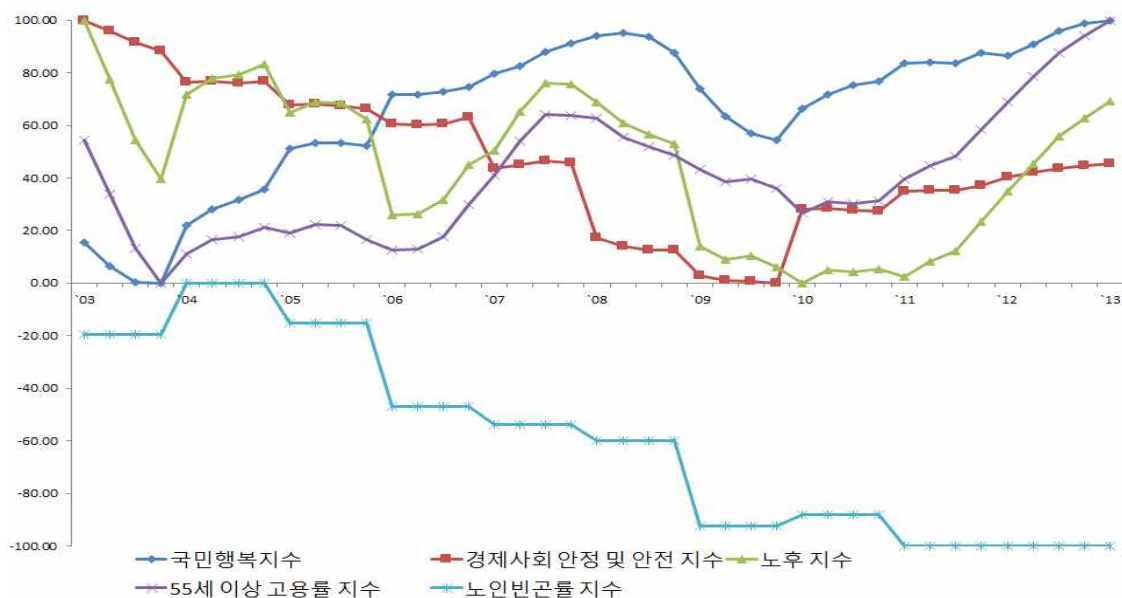


〈표 38〉 사회안전 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관계

항목	종합지수	동일기중치지수	경제사회 및 안정 지수	사회안전 지수	범죄율 지수	이혼율 지수	자살률 지수
종합지수 (유의확률)	1.0000						
동일기중치 지수 (유의확률)	0.9166	1.0000					
경제사회 및 안정 지수 (유의확률)	-0.6844	-0.6923	1.0000				
사회안전 지수 (유의확률)	0.1992	0.0359	0.4295	1.0000			
범죄율 지수 (유의확률)	0.3552	0.3345	0.1538	0.8381	1.0000		
이혼율 지수 (유의확률)	0.9493	0.8545	-0.6968	0.2424	0.4090	1.0000	
자살률 지수 (유의확률)	-0.5300	-0.7207	0.6895	0.2686	-0.2721	-0.5575	1.0000
	0.0004	0.0001	0.0001	0.0894	0.0853	0.0002	

- 지배체계 및 사회적 자본지수는 계속 악화되는 추세며 현재가 가장 낮은 상태(부패지수가 높음을 시사)
 - 지배체계 및 사회적 자본지수는 2008년 1분기(5.60)으로 -100이며 2003년 1분기(4.30)에 0
- 재난/재해 피해지수는 2008년 고점을 기준으로 현재 다소 악화된 상태
 - 재난/재해 피해지수는 2003년 1분기(₩7,139,430,296천원)에 -100이며 2008년 1분기(₩73,353,394천원)에 0
- 식품안전지수는 점차 회복되어 현재가 가장 높은 상태(식품부적합률이 낮음을 시사)
 - 식품안전지수는 2004년 1분기(1.50)에 -100이며 2010년 1분기(0.70)에 0
- 노후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나 2003년 1분기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노후지수는 2010년 1분기(-1.57)에 0이며 2003년 1분기(1.07)에 100
 - 55세 이상 고용률 지수는 2003년 4분기(43.29)에 0이며, 2013년 1분기(46.31)에 100
 - 노인빈곤율 지수는 2011년(42%)에 -100이며, 2004년(30.3)에 0

〈그림 21〉 노후 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간의 추이



〈표 39〉 노후 지수의 소항목과 국민행복지수 상관관계

확률	종합지수	동일가중치지수	경제사회 및 안정 지수	노후 지수	55세 이상 고용률 지수	노인빈곤율 지수
종합지수	1.0000					
(유의확률)	—					
동일가중치지수	0.9166	1.0000				
(유의확률)	0.0001	—				
경제사회 및 안정 지수	-0.6844	-0.6923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			
노후 지수	-0.2811	-0.3666	0.6048	1.0000		
(유의확률)	0.0750	0.0184	0.0001	—		
55세 이상 고용률 지수	0.6799	0.7349	-0.3890	0.1320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120	0.4107	—	
노인빈곤율 지수	-0.7181	-0.8255	0.7594	0.6887	-0.6278	1.0000
(유의확률)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

- 종합지수와 대항목 3개의 변수의 불안정성을 보면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표준편차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의 표준편차가 작음

〈표 40〉 국민행복지수와 대항목의 기초통계치

	국민행복지수	동일가중치지수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안정 및 안전
평균	65.91	51.86	58.70	60.67	46.56
표준편차	28.15	28.50	35.72	24.30	27.26
왜도	-1.01	-0.18	-0.46	-0.96	0.06
첨도	0.08	-1.06	-1.34	0.97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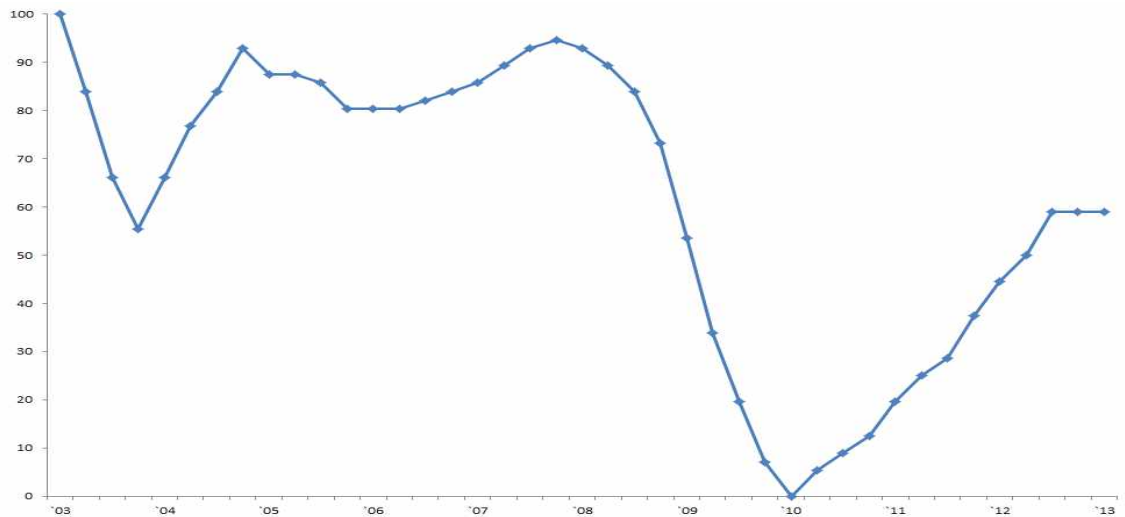
V.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

1. 정책적 시사점

-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주요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부흥, 복지확대, 사회안전, 문화융성 등에 초점을 맞춰 100% 국민행복시대를 추구
 - 새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국민행복지수의 개발이 중요하고,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주요 중항목의 중요도와 공약의 중요도
 - 상위 10대 중항목으로는 고용, 건강, 인적자본형성 및 노동생산성, 사회안전, 민간교육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음
 - 반면 박근혜정부의 주요공약은 고용률(70%), 중산층 70% 복원, 반값등록금(교육), 소득분배 개선, 건강(사망률, 기대수명) 및 의료복지 개선, 사회안전(사회폭력, 식품안전 등), 노동의 질(정규직 비중) 등으로 이중 고용률, 사회안전, 교육(반값등록금), 건강, 노동의 질(비정규직 비중)은 전문가 서베이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행복증대를 위한 새정부의 주요공약들이 경제전문가들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함을 시사
 - 범죄율, 이혼률, 자살률, 자연재난, 식품안전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국민안전지수의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미래연구원의 「국민안전지수」를 참고할 것
- 주요 공약과 정책적 시사점
 - 향후 국민행복지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주요공약의 실천과 개선이 중요함을 시사
 - 특히 최근 국민행복지수가 증가하는 이유도 상기 주요공약과 관련된 항목들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

- 고용률은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으나 2003년 1분기에 비해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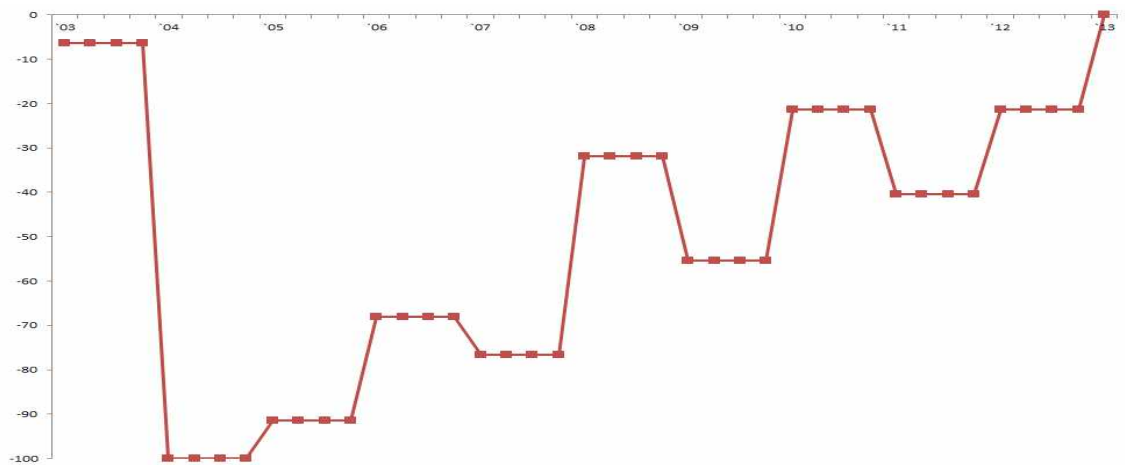
〈그림 22〉 고용률지수 추이



주) 고용률지수는 실제 데이터를 4분기 이동평균한 후 0~100사이의 값으로 지수화. 즉, 분석기간 중 최저값인 2010년 1분기의 고용률(58.53%)은 0이며 최고값인 2003년 1분기의 59.93%은 100을 부여

- 비정규직 비율은 현재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재 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음을 나타내고 비정규직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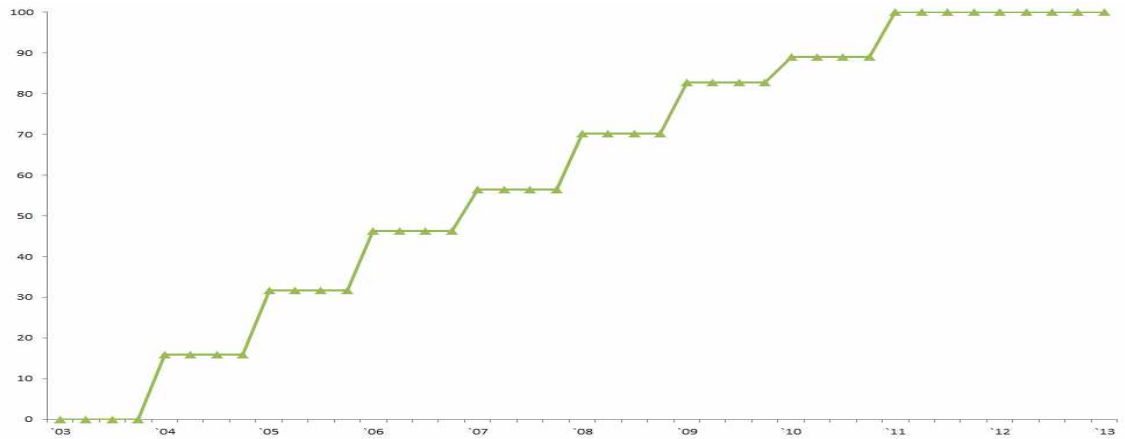
〈그림 23〉 비정규직비율지수 추이



주) 비정규직비율지수는 부정적요소이기 때문에 실제데이터를 4분기 이동평균한 후 0~-100으로 지수화. 분석 기간 중 최댓값인 37%(2004년 1분기)는 -100이며 최솟값(2013년 1분기의 32.3%)은 0

-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해 현재가 가장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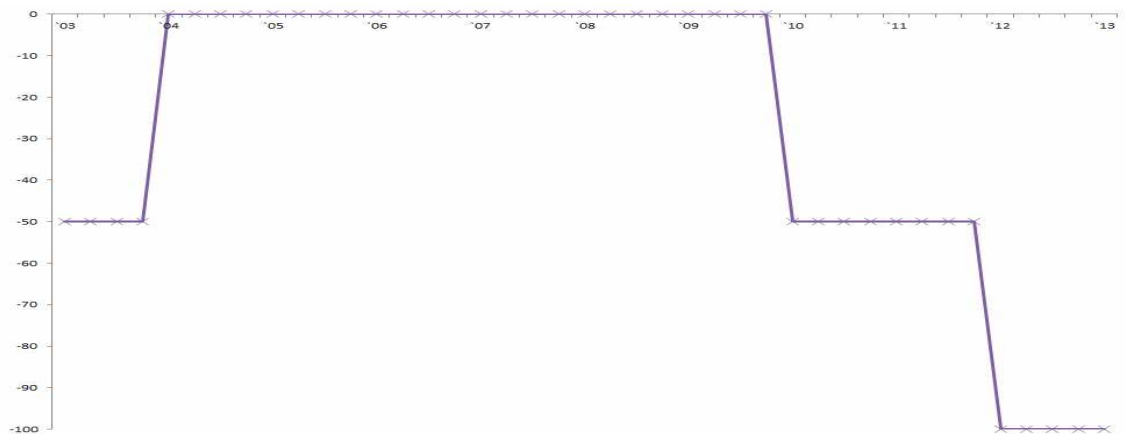
<그림 24> 기대수명지수 추이



주) 기대수명지수는 실제데이터를 4분기 이동평균한 후 0~100으로 지수화. 분석기간 중 최소값인 2003년 1분기의 77.4세는 0이며, 최고값인 2013년 1분기의 82.2세는 100

- 사망률은 현재가 가장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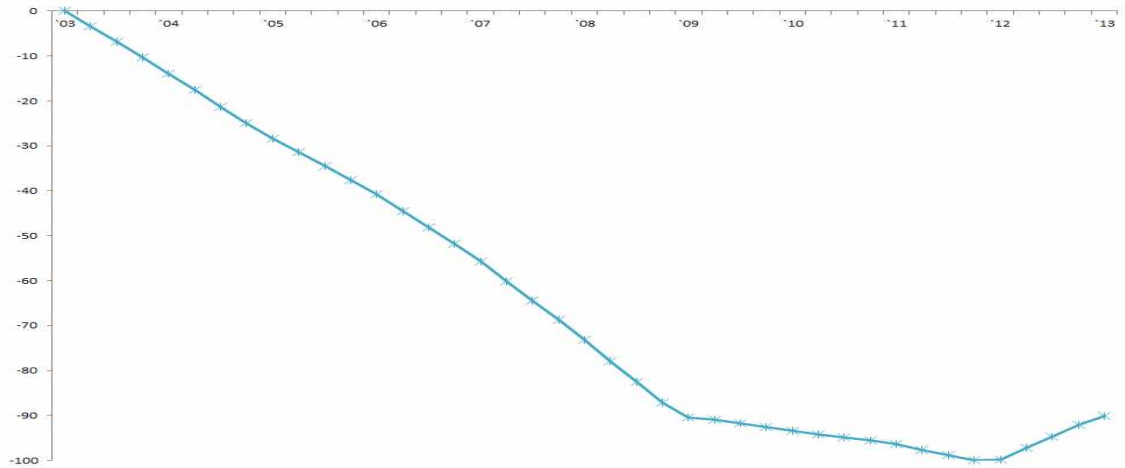
<그림 25> 사망률지수 추이



주) 사망률지수는 부정적요소로 실제데이터를 4분기 이동평균한 후 0~-100으로 지수화. 분석기간중 최고값인 2013년 1분기의 5.2%는 -100이며 최저값인 2004년 1분기의 5%는 0

- 고등교육물가지수는 점차 최근 들어 회복하는 추세(교육비 감소를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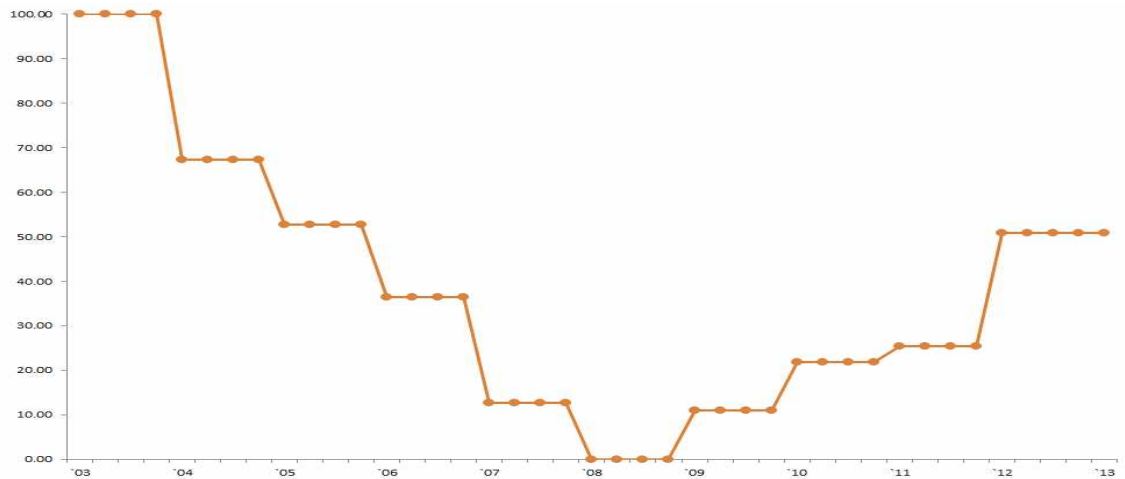
〈그림 26〉 고등교육물가지수 추이



주) 고등교육물가지수는 부정적요소로 실제 데이터를 4분기 이동평균한 후 0~-100으로 지수화. 분석기간중 최대값인 2011년 4분기의 101.6은 -100이며 최소값인 2003년 1분기의 65.3은 0

- 중산층비중은 2003년 대비해 크게 낮으나 최근에 점진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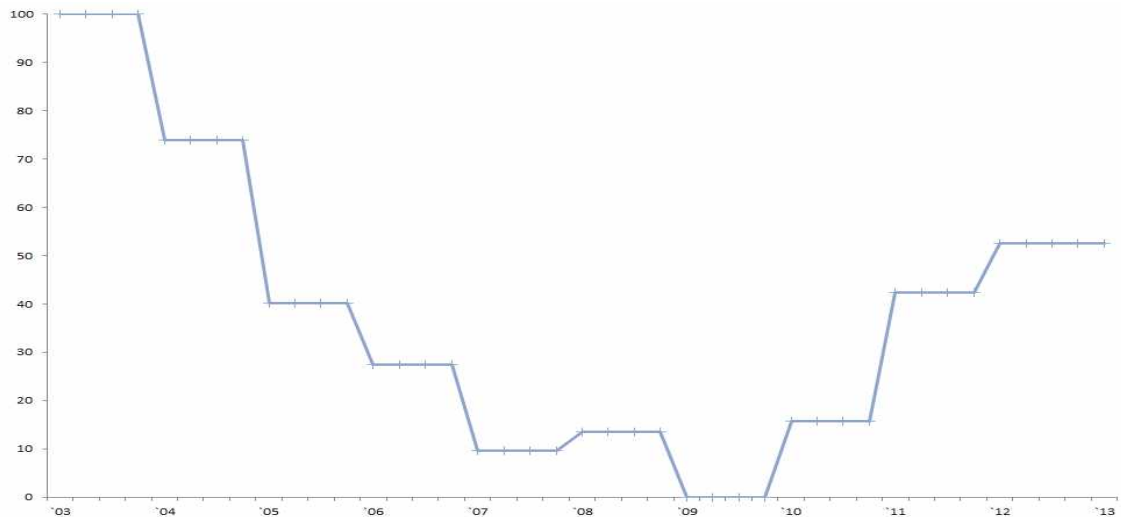
〈그림 27〉 중산층비중지수 추이



주) 중산층비중지수는 실제 데이터를 4분기 이동평균한 후 0~100으로 지수화. 분석기간 중 최소값인 2008년 1분기의 66.3%은 0이며 최대값인 2003년 1분기의 71.8%은 100

- 소득분배는 09년 4분기를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양극화가 개선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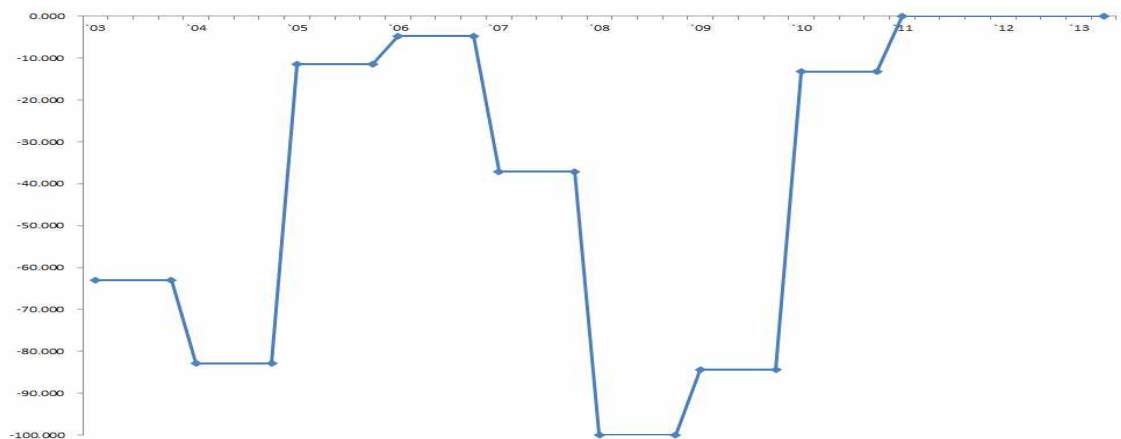
〈그림 28〉 소득분배지수 추이



주) 소득분배지수는 중항목이기 때문에 소득분배지수에 포함되어있는 소항목(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절대적 빈곤율)의 지수들을 가중평균하여 0~100으로 지수화. 분석기간 중 최저값인 2009년 1분기의 -4.1은 0이며 최고값인 2003년 1분기의 0.0은 100

- 사회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율지수의 경우 2008년 저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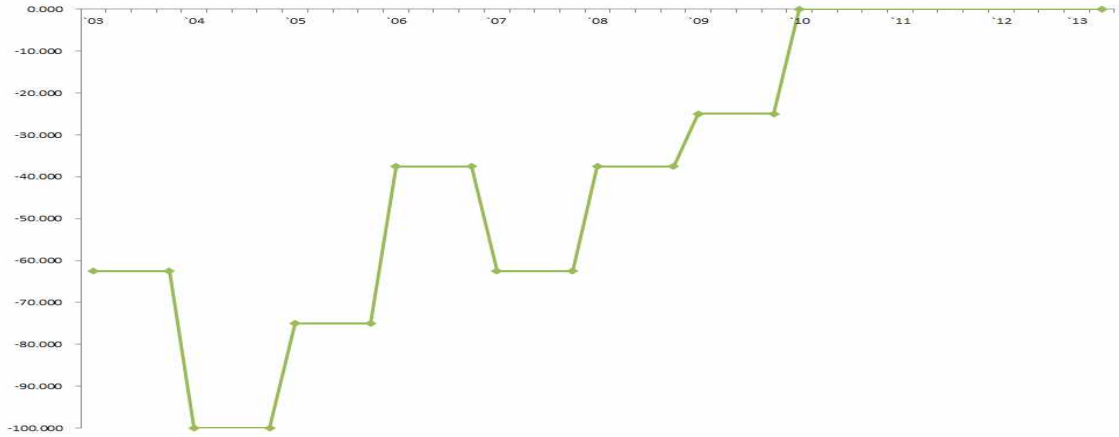
〈그림 29〉 범죄율지수 추이



주) 범죄율지수는 부정적 요소로 실제 데이터를 4분기 이동평균한 후 0~-100으로 지수화. 분석기간 중 최고값인 2008년 1분기의 42.16건(인구10만명당)은 -100이며 최소값인 2011년 1분기의 35.20건은 0

- 식품안전지수는 2004년 저점을 기준으로 2007년의 단기간의 역전을 제외하면 개선되는 추세임

〈그림 30〉 식품안전지수 추이



주) 식품안전지수는 부정적 요소로 실제 데이터를 4분기 이동평균한 후 0~-100으로 지수화. 분석기간 중 최고값인 2004년 1분기(1.50건)는 -100이며 최소값인 2010년 1분기(0.70건)는 0

2. 분석의 한계점

- 지금까지 양적경제성장이 국민행복과 관련이 적다는 시각 하에 다양한 국민행복지수의 산정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음
- 본 연구는 2003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 사이 상대적 국민행복정도를 비교한 것으로 국민행복산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음
 - 국민행복지수는 경제성장의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을 포함하는 34개의 소항목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다만 과거 10년간 시점간 국민의 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서는 과거 10년간 존재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목선택시 제한적
 - 또한 항목들의 단위 및 편차 등에 의한 왜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긍정적 요소는 0~100, 부정적 요소는 0~-100으로 지수화 하였으나 각 소항목들의 실제 데이터의 변화가 국민행복지수에 미치는 정확한 분석은 한계가 있음
 - 연간자료의 경우 표준화에 따라 변수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으나 자료가 장기화될 경우 불안정성은 완화될 수 있음

〈참고문헌〉

- 김용하 · 윤강재 · 김계연(2009),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하 · 임성은 · 윤강재 · 우선희(2011), 지속가능한 선진복지모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상호 · 김영선 · 주영은(2012), 보건복지 종합지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주하 · 김상봉(2012), “한국의 경제행복지수의 측정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1-28
- 박명호 · 이재열 · 전홍택 · 이영섭 · 오완근 · 장덕진 · 장용석 · 한상범 (2009),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경제사회 발전지표의 개발 및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삼성경제연구소(2010), 경제행복도지수로 본 한국경제, CEO Information, 제750호.
- 서울특별시(2012), 2011 「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가
구 · 외국인 · 사업체 조사 분석
- 이내찬(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5-40.
- 장영식 · 고경환 · 손창균 · 이수현(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09), OECD 세계포럼의 이해, 통계청.
- 통계청(2011), 녹색성장지표 분석보고서, 통계청.
- 현대경제연구원(2011), 제8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결과, 한국경제주평, 제8호.
- LG경제연구원, Weekly 포커스, LG Business Insight, 각호.
- EIU(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quality-of-life index.
- French Conseil d'Analyse Économique and German Expert Council

- for the Assessment of Macroeconomic Development(2010), Monitoring Economic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A Comprehensive Set of Indicators.
- Global Footprint Network(2010a), Calculation Methodology for The National Footprint account, 2010 EDITION.
- _____ (2010b), Ecological Footprint Atlas 2010.
- Hall, J., Giovannini, E., Morrone, A., and Rannuzi, G. (2010), A framework to measure the progress of societies. Paris: OECD Statistics Directorate Working Paper No 34.
- Med Jones(2006), “The American Pursuit of Unhappiness–Gross National Happiness (GNH) – A New Socioeconomic Policy,” Executive White Paper,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 New Economic Foundation, *The Happy Planet Index*, Annual Report.
- Newsweek(2010). THE WORLD’S BEST COUNTRIES. Retrieved March 2012, from <http://www.thedailybeast.com/newsweek/2010/08/16/best-countries-in-the-world.html>.
- Nordhaus, W. D. and Tobin, J.(1972), “Is Growth Obsolete?,” in Economic Growth, *NBER*, General Series 96, 1-80.
- OECD(2011). 2010 Society at a glance. Retrieved March 2012, from <http://www.oecd.org/dataoecd/37/42/42495745.pdf>.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1), National Statistician’s reflections on the National Debate on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Okun, A. M.(1962), “Potential GNP: Its Measurement and Significance,” *Proceedings of the Business and Economics Statistics Section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 Osberg, L. and Sharpe, A.(2002), “An index of Economic Well-being for Selected OECD countr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8(3), 291-316.

Samuelson, P. A.(1961), “The Evaluation of Social Income: Capital formation and Wealth” , The Theory of Capital, Proceedings of an IEA Conference, Lutz and Hague, eds., New York: St. Martin’ s Press.

_____ (1964), *Economics*, 6th ed., McGraw-Hill, Maidenhead.

Samuelson, P. A. and Nordhaus, W. D.(1992), *Economics*, 14th ed., McGraw-Hill, New York.

Sharpe A.(2005), “A Survey of Indicators of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CPRN.

Stiglitz, J. E., Sen, A., and Fitoussi, J.(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Stiglitz, J. E., Sen, A., and Fitoussi, J.(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UNDP(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World Economic Forum(201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0. Retrieved March 2012, from http://www3.weforum.org/docs/WEF_GenderGap_Report_2010.pdf.

〈부록 1〉 AHP 분석방법론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의사결정자의 오랜 경험과 판단을 바탕으로 하므로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정량적인 평가 항목은 물론 의사결정문제에서 다루기 곤란하면서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성적인 평가항목들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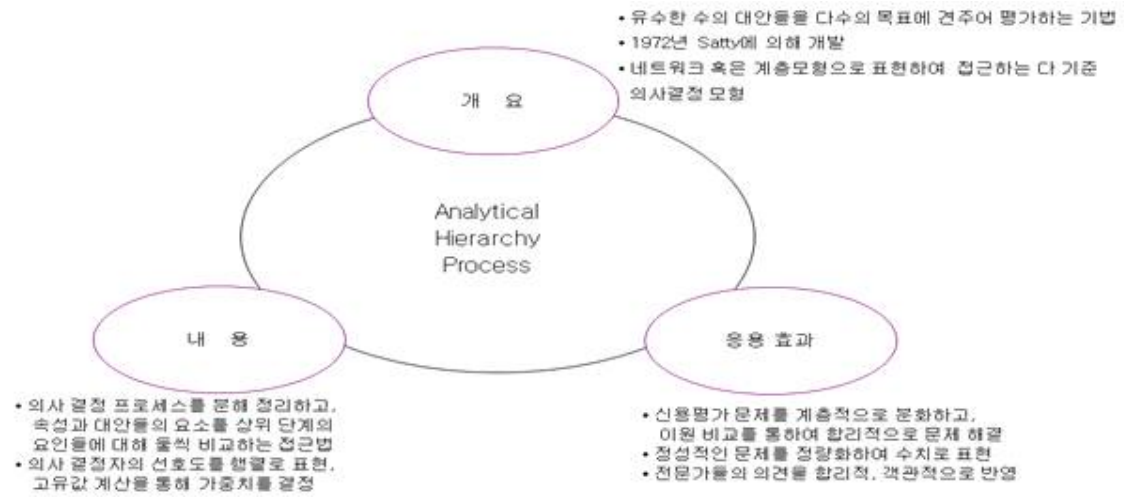
(1) 의사결정과제의 관련 요소들을 분해하는 단계: 의사결정요소들을 계층화하는 단계로서 최상위 계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목표가 주어지고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보다 세분화된 의사결정요소들로 분해된다. 이때 계층간의 의사결정 요소들은 종속적 관계, 같은 계층의 요소들끼리는 독립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2) 요소들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하는 단계: AHP에서는 의사결정요소들을 2개씩 쌍대비교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자의 선호(preference) 정도를 9점 척도로 수치화된다.

(3) 특성치(eigenvalue)에 의한 요소들의 중요도(가중치)를 구하는 단계: 의사결정요소들의 중요도를 구하기 위해 $A \cdot W = \lambda_{\max} \cdot W$ 를 이용한다. 여기서 A는 쌍대비교로 얻어진 정방행렬이며 $\lambda_{\max}$ 는 A의 최대고유치(maximum eigenvalue)이고 W는 고유벡터(eigenvector)이다.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이란 의사결정자가 내린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일관성비율 값이 10%이하이면 행렬 A는 일관성을 가진다고 평가하며 10%이상이면 의사결정자가 내린 판단이 어느 정도 무작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판단의 과정이나 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

(4) 산출된 가중치를 종합하여 각 대안들에 대한 복합가중치를 구하는 단계: 최상위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문제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최상위계층에 있는 대안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또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복합가중치를 구한다.

<부록 그림 1> AHP분석 개요



<부록 2> 설문지의 내용

대항목	중항목(20)	소항목(34)	산출방식	기준
1.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1인당 소비지출	GDP내최종가계소 비지출	최종가계소비지출/15세이 상 인구	1인당 가계소비지출이 높을수록 긍정적 으로 평가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GDP내오락문화비 지출	오락문화비 지출/15세이 상 인구	1인당 오락문화비 지출이 높을수록 긍정 적으로 평가
	1인당정부부채	중앙정부부채	중앙정부부채/15세이상 인구	1인당 중앙정부채가 높을수록 부정적으 로 평가
	1인당자본소득	유형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15세이상 인구	1인당 유형고정자산이 높을수록 긍정적 으로 평가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 지출	대학진학률	대학입학자수/고등학교 졸업자수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
		가구당 교육비지 출	가구당 교육비 지출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긍정적 으로 평가
		노동생산성 지수	산출량 지수/노동투입량 지수	노동생산성 지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
	1인당가계부채	가계신용	가계신용/15세이상 인구	1인당 가계부채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2. 삶의 질	고용	고용률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
		비정규직 비중	비정규직근로자수/임금근 로자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건강	기대수명	인구변동요인 고려	기대수명이 길수록 긍정적으로 평가
		사망률	사망자수/인구10만명	사망률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민간의 교육비 부담	고등교육물가	고등교육물가지수	고등교육 물가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교육시설	학교수	교육시설이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
		학업중단률	학업중단자수/재적학생수	학업중단률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환경	1인당온실가스배 출	CO2, CH4, N2O, HFCs, PFCs, SF6 총배출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많을수록 부정적 으로 평가
		대기오염배출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많을수록 부정적 으로 평가
		쓰레기 배출량	종량제 봉투 판매량	쓰레기 배출량이 많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주거	가계소득증가율- 주택가격상승률	가계소득증가율-주택가격 상승률	가계소득증가율이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
	문화시설	문화시설	문화기반 시설수 평균(도 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 예회관, 문화원)/인구10만 명	문화시설이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

대항목	중항목(20)	소항목(34)	산출방식	기준
3.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중산층 비중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지표 중위소득 50%~150%미만	중산층 비중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 가
	물가	CPI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 가
		생활물가지수	생필품으로 이루어진 체 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 가
	소득분배	지니계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0~1의 값을 가 지며 0이면 완전평등을 나타냄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소득5분위배율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 득/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	소득5분위배율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 가
		절대적 빈곤율	기초생활수급자/연간 전 체인구	절대적 빈곤율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 가
	사회안전	범죄율	범죄사건수/인구10만명	범죄율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이혼율	이혼건수/15세이상인구	이혼율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자살률	자살건수/인구10만명	자살률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지배체제 및 사회적 자본	부패지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부 패 정도	부패지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자연재난/재해 안전	재난/재해 피해액	대설,태풍,호우,풍랑 등에 의한 피해액	자연재해 피해액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 가
	식품안전	식품 등 수거/검 사 부적합률	수거한 식품 중 부적합률	식품부적합률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 가
	노후	55세 이상 고용률	55세 이상 취업자/55세 이상 인구	55세 이상 고용률이 높을수록 긍정적으 로 평가
		노인빈곤율	정부발표 최저 생계비 이 하 비중	노인빈곤율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부록 3> 설문조사결과 AHP 가중치

구분	일관성비율 0.1이하	일관성비율 0.1초과	전체	동일 가중치
대상자수	19	16	35	
1.1 1인당소비지출	5.82	8.30	6.95	5.56
1.2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4.13	3.47	3.83	5.56
1.3 1인당 정부부채	2.89	3.36	3.11	5.56
1.4 1인당 자본스톡	6.12	5.73	5.94	5.56
1.5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지출	8.82	8.48	8.66	5.56
대학진학률	1.78	2.03	1.89	1.85
가구당 교육비지출	2.46	1.78	2.15	1.85
노동생산성 지수	4.57	6.20	5.31	1.85
1.6 1인당 가계부채	4.25	5.51	4.83	5.56
1.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32.03	34.85	33.32	33.33
2.1 고용	9.57	11.98	10.67	5.56
고용률	7.38	8.68	7.98	2.78
비정규직 비중	2.17	3.26	2.67	2.78
2.2 건강	9.43	14.69	11.83	5.56
기대수명	5.26	9.26	7.09	2.78
사망률	4.16	5.62	4.83	2.78
2.3 민간의 교육비 부담	6.14	6.49	6.30	5.56
고등교육물가	1.44	2.18	1.78	1.85
교육시설	2.80	2.29	2.57	1.85
학업중단률	2.25	2.03	2.15	1.85
2.4 환경	3.55	6.18	4.75	5.56
1인당 온실가스 배출	1.03	1.61	1.30	1.85
대기 오염 배출량	1.42	3.13	2.20	1.85
쓰레기 배출량	1.12	1.44	1.27	1.85
2.5 주거	3.84	4.65	4.21	5.56
2.6 문화시설	2.43	3.48	2.91	5.56
2. 삶의 질	34.96	47.47	40.67	33.33
3.1 중산층비중	3.09	1.61	2.41	4.17
3.2 물가	3.60	1.84	2.79	4.17
소비자 물가 지수	1.44	0.92	1.20	2.08
생활물가지수	2.15	0.92	1.59	2.08
3.3 소득분배	4.12	1.97	3.13	4.17
지니계수	1.13	0.55	0.87	1.39
소득5분위배율	1.17	0.51	0.87	1.39
절대적 빈곤율	1.80	0.91	1.39	1.39
3.6 사회안전	6.38	3.18	4.92	4.17
범죄율	3.45	1.18	2.41	1.39
이혼율	1.07	0.50	0.81	1.39
자살률	2.31	1.48	1.93	1.39
3.7 지배체제 및 사회적 자본	5.67	2.62	4.28	4.17
3.8 자연재난/재해 안전	2.51	1.19	1.91	4.17
3.9 식품안전	2.76	2.19	2.50	4.17
3.10 노후	4.86	3.13	4.07	4.17
55세 이상 고용률	2.94	1.15	2.12	1.39
노인빈곤율	2.68	1.99	2.36	1.39
3. 경제/ 사회 안정 및 안전	32.99	17.73	26.01	33.33
합	100.00	100.00	100.00	100.00

〈부록 4〉 종합지수와 중항목 이하의 상관관계

	국민행복지수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1인당 최종소비 지수	1인당 교양오락비 지수	1인당 정부부채 지수	1인당유형고 정자산지수	인적자본지 수	대학진학률 지수	가구당 교육비 지출 지수	노동생산성 지수	1인당가계부 채지수	삶의 질	고용 지수	고용률지수	비정규직비 율지수	건강지수	기대수명지 수	사망률지수	교육지수	고등교육물 가지수	교육시설지 수	학업중단율 지수
국민행복지수	1.0000	0.8756	0.8420	0.8391	-0.7032	0.8160	0.8251	-0.4739	0.5391	0.8374	-0.7498	0.8351	-0.1221	-0.1527	0.1335	0.7040	0.8335	-0.1808	0.5579	-0.8184	0.9201	0.1509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0.8756	1.0000	0.9826	0.9818	-0.5816	0.9795	0.8062	-0.7473	0.7638	0.8303	-0.9580	0.5316	-0.4633	-0.5525	0.4195	0.6311	0.9740	-0.4371	0.2079	-0.9711	0.9156	-0.2323
1인당 최종소비 지수	0.8420	0.9826	1.0000	0.9905	-0.4630	0.9461	0.7083	-0.7939	0.6893	0.7805	-0.9645	0.4685	-0.3756	-0.5108	0.5454	0.5255	0.9381	-0.5181	0.0944	-0.9349	0.8656	-0.3525
1인당 교양오락비 지수	0.8391	0.9818	0.9905	1.0000	-0.4685	0.9583	0.7117	-0.8097	0.7160	0.7785	-0.9802	0.4817	-0.4030	-0.5288	0.5224	0.5425	0.9575	-0.5216	0.1091	-0.9527	0.8843	-0.3438
1인당 정부부채 지수	-0.7032	-0.5816	-0.4630	-0.4685	1.0000	-0.5716	-0.9290	0.0349	-0.4493	-0.8005	0.4178	-0.6264	0.3607	0.2471	0.2704	-0.6912	-0.5911	-0.0981	-0.7878	0.5712	-0.7470	-0.5319
1인당유형고정 자산지수	0.8160	0.9795	0.9461	0.9583	-0.5716	1.0000	0.7837	-0.7847	0.8317	0.7904	-0.9622	0.4813	-0.5951	-0.6664	0.3981	0.6523	0.9959	-0.4387	0.1850	-0.9877	0.9092	-0.2446
인적자본지수	0.8251	0.8062	0.7083	0.7117	-0.9290	0.7837	1.0000	-0.3274	0.6236	0.9217	-0.6770	0.6029	-0.4536	-0.3993	-0.0511	0.6943	0.7928	-0.1429	0.6025	-0.7776	0.8593	0.2658
대학진학률지 수	-0.4739	-0.7473	-0.7939	-0.8097	0.0349	-0.7847	-0.3274	1.0000	-0.5789	-0.5133	0.8835	-0.0324	0.4633	0.6362	-0.6927	-0.1193	-0.7832	0.8091	0.3107	0.7396	-0.5710	0.6751
가구당 교육비 지출 지수	0.5391	0.7638	0.6893	0.7160	-0.4493	0.8317	0.6236	-0.5789	1.0000	0.4501	-0.7376	0.3601	-0.7834	-0.7862	0.2270	0.7182	0.8140	-0.1404	0.1531	-0.8659	0.7132	-0.1165
노동생산성지 수	0.8374	0.8303	0.7805	0.7785	-0.8005	0.7904	0.9217	-0.5133	0.4501	1.0000	-0.7631	0.4915	-0.3195	-0.3350	0.1393	0.4589	0.8078	-0.4386	0.4394	-0.7482	0.8344	0.0467
1인당가계부채 지수	-0.7498	-0.9580	-0.9645	-0.9802	0.4178	-0.9622	-0.6770	0.8835	-0.7376	-0.7631	1.0000	-0.3430	0.5153	0.6424	-0.5579	-0.4584	-0.9804	0.6242	-0.0067	0.9448	-0.8378	0.4331
삶의 질	0.8351	0.5316	0.4685	0.4817	-0.6264	0.4813	0.6029	-0.0324	0.3601	0.4915	-0.3430	1.0000	0.1191	0.1786	-0.2273	0.7937	0.5115	0.3155	0.7824	-0.5289	0.7204	0.5297
고용 지수	-0.1221	-0.4633	-0.3756	-0.4030	0.3607	-0.5951	-0.4536	0.4633	-0.7834	-0.3195	0.5153	0.1191	1.0000	0.9526	-0.1232	-0.4037	-0.5732	0.2192	0.0427	0.5880	-0.3989	0.1757
고용률지수	-0.1527	-0.5525	-0.5108	-0.5288	0.2471	-0.6664	-0.3993	0.6362	-0.7862	-0.3350	0.6424	0.1786	0.9526	1.0000	-0.4192	-0.2967	-0.6400	0.4263	0.1995	0.6504	-0.4402	0.4074
비정규직비율 지수	0.1335	0.4195	0.5454	0.5224	0.2704	0.3981	-0.0511	-0.6927	0.2270	0.1393	-0.5579	-0.2273	-0.1232	-0.4192	1.0000	-0.2370	0.3769	-0.7365	-0.5231	-0.3727	0.2456	-0.8044
건강지수	0.7040	0.6311	0.5255	0.5425	-0.6912	0.6523	0.6943	-0.1193	0.7182	0.4589	-0.4584	0.7937	-0.4037	-0.2967	-0.2370	1.0000	0.6507	0.3899	0.6055	-0.7034	0.7323	0.3857
기대수명지수	0.8335	0.9740	0.9381	0.9575	-0.5911	0.9959	0.7928	-0.7832	0.8140	0.8078	-0.9604	0.5115	-0.5732	-0.6400	0.3769	0.6507	1.0000	-0.4455	0.2312	-0.9849	0.9310	-0.2097
사망률지수	-0.1808	-0.4371	-0.5181	-0.5216	-0.0981	-0.4387	-0.1429	0.8091	-0.1404	-0.4386	0.6242	0.3155	0.2192	0.4263	-0.7365	0.3899	-0.4455	1.0000	0.4335	0.3652	-0.2656	0.7090
교육지수	0.5579	0.2079	0.0944	0.1091	-0.7878	0.1850	0.6025	0.3107	0.1531	0.4394	-0.0067	0.7824	0.0427	0.1995	-0.5231	0.6055	0.2312	0.4335	1.0000	-0.2182	0.5282	0.8738
고등교육물가 지수	-0.8184	-0.9711	-0.9349	-0.9527	0.5712	-0.9877	-0.7776	0.7396	-0.8659	-0.7482	0.9448	-0.5289	0.5880	0.6504	-0.3727	-0.7034	-0.9849	0.3652	-0.2182	1.0000	-0.9188	0.2015
교육시설지수	0.9201	0.9156	0.8656	0.8843	-0.7470	0.9092	0.8593	-0.5710	0.7132	0.8344	-0.8378	0.7204	-0.3989	-0.4402	0.2456	0.7323	0.9310	-0.2656	0.5282	-0.9188	1.0000	0.0739
학업중단율지 수	0.1509	-0.2323	-0.3525	-0.3438	-0.5319	-0.2446	0.2658	0.6751	-0.1165	0.0467	0.4331	0.5297	0.1757	0.4074	-0.8044	0.3857	-0.2097	0.7090	0.8738	0.2015	0.0739	1.0000
환경지수	0.6544	0.6882	0.6778	0.6918	-0.3449	0.6744	0.4516	-0.3536	0.6919	0.3126	-0.6002	0.6729	-0.2280	-0.3063	0.3187	0.7718	0.6695	0.0980	0.2758	-0.7414	0.7303	-0.0525
온실가스배출 량지수	-0.6493	-0.8913	-0.8857	-0.8883	0.3955	-0.9224	-0.6490	0.9036	-0.7229	-0.7477	0.9456	-0.1907	0.6220	0.7345	-0.5399	-0.3436	-0.9130	0.7021	0.0456	0.8760	-0.7471	0.4359

	국민행복지수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1인당 최종소비 지수	1인당 교양오락비 지수	1인당 정부부채 지수	1인당유형고 정자산지수	인적자본지 수	대학진학률 지수	가구당 교육비 지출 지수	노동생산성 지수	1인당가계부 채지수	삶의 질	고용 지수	고용률지수	비정규직비 율지수	간강지수	기대수명지 수	사망률지수	교육지수	고등교육물 가지수	교육시설지 수	학업중단율 지수
대기오염배출 량지수	0.6892	0.8510	0.8675	0.8792	-0.2347	0.8631	0.4627	-0.7379	0.7569	0.4609	-0.8556	0.4490	-0.4179	-0.5606	0.5816	0.5785	0.8515	-0.3506	-0.0068	-0.8866	0.7715	-0.4057
쓰레기배출량 지수	0.8074	0.8882	0.8490	0.8580	-0.6135	0.8857	0.7551	-0.5560	0.8333	0.6597	-0.8123	0.6289	-0.4640	-0.5236	0.3234	0.7731	0.8827	-0.1591	0.3527	-0.9076	0.8950	-0.0442
주거지수	0.4261	0.2821	0.1856	0.2295	-0.3920	0.3586	0.3909	-0.2326	0.3770	0.3430	-0.2555	0.4711	-0.3198	-0.2037	-0.2301	0.3816	0.3945	-0.0285	0.5030	-0.3608	0.4244	0.4064
문화시설 지수	0.7966	0.9900	0.9580	0.9712	-0.5175	0.9917	0.7507	-0.7940	0.8133	0.7677	-0.9736	0.4538	-0.5615	-0.6524	0.4526	0.6163	0.9848	-0.4676	0.1182	-0.9829	0.8873	-0.3137
경제 사회 및 안정	-0.6844	-0.7821	-0.7259	-0.7547	0.4715	-0.8117	-0.6056	0.4492	-0.8719	-0.4348	0.7062	-0.6412	0.5069	0.5224	-0.1914	-0.8683	-0.8086	-0.0491	-0.2980	0.8681	-0.7951	0.0247
중산층비중지 수	-0.7746	-0.7054	-0.6265	-0.6220	0.6640	-0.6860	-0.7120	0.1540	-0.7022	-0.5004	0.5161	-0.8186	0.3080	0.2569	0.0909	-0.9608	-0.6742	-0.3153	-0.5616	0.7371	-0.7643	-0.3048
물가지수	-0.7849	-0.9530	-0.9372	-0.9591	0.4872	-0.9733	-0.7234	0.8685	-0.7603	-0.7958	0.9829	-0.4082	0.5505	0.6412	-0.4488	-0.5140	-0.9798	0.5822	-0.1139	0.9555	-0.8740	0.3215
소비자물가지 수 지수	-0.7624	-0.9425	-0.9293	-0.9533	0.4633	-0.9659	-0.7045	0.8840	-0.7523	-0.7860	0.9839	-0.3754	0.5564	0.6514	-0.4642	-0.4836	-0.9727	0.6094	-0.0835	0.9456	-0.8570	0.3491
생활물가지수	-0.7965	-0.9592	-0.9415	-0.9621	0.5030	-0.9772	-0.7355	0.8569	-0.7649	-0.8015	0.9812	-0.4302	0.5458	0.6336	-0.4378	-0.5342	-0.9836	0.5630	-0.1344	0.9611	-0.8845	0.3023
소득분배지수	-0.6865	-0.5821	-0.4833	-0.5035	0.7491	-0.5879	-0.7162	-0.0025	-0.6466	-0.4631	0.4020	-0.7973	0.3237	0.2464	0.1624	-0.9296	-0.5879	-0.3831	-0.6875	0.6517	-0.7416	-0.4533
자니계수지수	-0.8012	-0.7744	-0.6997	-0.7104	0.6723	-0.7627	-0.7478	0.2575	-0.7445	-0.5639	0.6189	-0.7981	0.3567	0.3248	0.0049	-0.9499	-0.7571	-0.2019	-0.5146	0.8125	-0.8272	-0.2080
소득분위배율 지수	-0.8241	-0.9177	-0.8594	-0.8708	0.6509	-0.9272	-0.7986	0.5323	-0.8575	-0.6847	0.8265	-0.6520	0.5368	0.5603	-0.2258	-0.8530	-0.9175	0.1070	-0.3505	0.9514	-0.9047	0.0294
절대적빈곤율 지수	-0.3752	-0.1612	-0.0516	-0.0583	0.6559	-0.1540	-0.4715	-0.4440	-0.3115	-0.1665	-0.0558	-0.6798	0.1018	-0.0376	0.4264	-0.7291	-0.1625	-0.6625	-0.7972	0.2317	-0.4165	-0.7433
사회안전지수	0.1992	-0.0287	-0.0545	-0.0832	-0.4837	-0.0804	0.3300	0.1793	-0.3547	0.4430	0.1135	0.1035	0.1807	0.2259	-0.1976	-0.1503	-0.0477	-0.1194	0.5007	0.1390	0.1348	0.4345
범죄율 지수	0.3552	0.3355	0.3085	0.2934	-0.5528	0.3385	0.5275	-0.3008	0.0141	0.6898	-0.3377	0.0335	-0.2324	-0.2434	0.1005	-0.0546	0.3664	-0.5087	0.3126	-0.2612	0.4106	0.0845
이혼율지수	0.9493	0.8446	0.7688	0.7673	-0.8005	0.8213	0.8956	-0.4216	0.6398	0.8431	-0.7038	0.8026	-0.3223	-0.2848	-0.0330	0.7819	0.8369	-0.0930	0.6476	-0.8211	0.9131	0.2895
자살률 지수	-0.5300	-0.8187	-0.7930	-0.8316	0.3192	-0.8951	-0.5545	0.8551	-0.7935	-0.5831	0.9042	-0.1675	0.7249	0.7976	-0.4385	-0.4280	-0.8896	0.5742	0.1039	0.8755	-0.6965	0.4520
부패지수변환	-0.8825	-0.9054	-0.8665	-0.8917	0.5913	-0.9107	-0.7389	0.6244	-0.7657	-0.7038	0.8436	-0.7372	0.3901	0.4431	-0.2813	-0.7584	-0.9289	0.2323	-0.4363	0.9342	-0.9659	0.0007
재난/재해 피해액	0.7924	0.7134	0.6065	0.6330	-0.6682	0.7259	0.7667	-0.3005	0.7028	0.6225	-0.5828	0.7722	-0.3936	-0.2858	-0.2422	0.8526	0.7345	0.1145	0.5730	-0.7527	0.7601	0.3375
부적합률 지수	0.6393	0.8644	0.8791	0.8814	-0.4181	0.8894	0.6033	-0.8389	0.6947	0.6849	-0.9103	0.2388	-0.5516	-0.7130	0.6797	0.3727	0.8883	-0.6379	0.0259	-0.8625	0.8085	-0.4251
노후지수	-0.2811	-0.5494	-0.4789	-0.4875	0.4722	-0.6461	-0.5217	0.4322	-0.7783	-0.3814	0.5406	-0.0770	0.8450	0.8586	-0.2791	-0.5148	-0.6282	0.1549	-0.1082	0.6485	-0.5611	0.1319
55세 이상 고용률지수	0.6799	0.6912	0.7537	0.7691	-0.1857	0.6165	0.4098	-0.6328	0.2155	0.6130	-0.7334	0.3976	0.1164	-0.0906	0.4472	0.1770	0.6335	-0.5597	-0.0170	-0.5963	0.5962	-0.3794
노인빈곤율 지수	-0.7181	-0.9370	-0.9273	-0.9453	0.5066	-0.9583	-0.7094	0.8022	-0.7687	-0.7479	0.9610	-0.3513	0.5783	0.6966	-0.5463	-0.5337	-0.9567	0.5310	-0.0725	0.9454	-0.8694	0.3811

	환경지수	온실가스배출량지수	대기오염배출량지수	쓰레기배출량지수	주거지수	문화시설지수	경제 사회 및 안정지수	중산층비중지수	불가지수	소비자불가 지수 지수	생활불가 지수 지수	소득분배지 수	지니계수지 수	소득분위배 율지수	절대적빈곤 율지수	사회안전지 수	범죄율 지수	이혼율지 수	자살률 지수	부패지수변 환	재난/재해 피해액	부적합률 지수	노후지수	55세 이상 고용률지수	노인빈곤율 지수
국민행복지수	0.6544	-0.6493	0.6692	0.8074	0.4261	0.7966	-0.6844	-0.7746	-0.7849	-0.7624	-0.7995	-0.6965	-0.8012	-0.8241	-0.3752	0.1992	0.3552	0.9493	-0.5300	-0.8925	0.7924	0.6393	-0.2811	0.6799	-0.7181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1인당	0.6882	-0.8913	0.8510	0.8882	0.2821	0.9800	-0.7821	-0.7054	-0.9530	-0.9425	-0.9592	-0.5921	-0.7744	-0.9177	-0.1612	-0.0287	0.3355	0.8446	-0.8187	-0.9054	0.7134	0.8644	-0.5494	0.6912	-0.9370
최중소비 지수 1인당	0.6778	-0.8857	0.8675	0.8490	0.1856	0.9580	-0.7259	-0.6265	-0.9372	-0.9293	-0.9415	-0.4933	-0.6997	-0.8594	-0.0516	-0.0545	0.3065	0.7668	-0.7930	-0.8665	0.6065	0.8791	-0.4789	0.7537	-0.9273
교양오락비 지수 1인당	0.6918	-0.8883	0.8792	0.8580	0.2295	0.9712	-0.7547	-0.6220	-0.9591	-0.9533	-0.9621	-0.5035	-0.7104	-0.8708	-0.0583	-0.0692	0.2934	0.7673	-0.8316	-0.8917	0.6330	0.8814	-0.4875	0.7691	-0.9453
정부부채 지수 1인당유형고정 자산지수	-0.3449	0.3955	-0.2347	-0.6135	-0.3920	-0.5175	0.4715	0.6640	0.4872	0.4633	0.5030	0.7491	0.6723	0.6509	0.6559	-0.4837	-0.5528	-0.8005	0.3192	0.5913	-0.6692	-0.4181	0.4722	-0.1857	0.5066
인적자본지수	0.4516	-0.6480	0.4627	0.7551	0.3909	0.7507	-0.6056	-0.7120	-0.7234	-0.7045	-0.7355	-0.7162	-0.7478	-0.7986	-0.4715	0.3300	0.5275	0.8856	-0.5545	-0.7389	0.7667	0.6033	-0.5217	0.4098	-0.7094
대학진학률지 수	-0.3536	0.9006	-0.7379	-0.5560	-0.2326	-0.7940	0.4492	0.1540	0.8685	0.8840	0.8569	-0.0025	0.2575	0.5323	-0.4440	0.1793	-0.3008	-0.4216	0.8551	0.6244	-0.3005	-0.8389	0.4322	-0.6328	0.8022
가구당 교육비 지출 지수	0.6919	-0.7229	0.7569	0.8333	0.3770	0.8133	-0.8719	-0.7022	-0.7603	-0.7523	-0.7649	-0.6466	-0.7445	-0.8675	-0.3115	-0.3547	0.0141	0.6398	-0.7935	-0.7657	0.7028	0.6947	-0.7783	0.2155	-0.7687
노동생산성지 수	0.3126	-0.7477	0.4609	0.6597	0.3430	0.7677	-0.4348	-0.5004	-0.7958	-0.7860	-0.8015	-0.4631	-0.5639	-0.6847	-0.1665	0.4430	0.6898	0.8431	-0.5931	-0.7038	0.6225	0.6849	-0.3814	0.6130	-0.7479
1인당가계부채 지수	-0.6002	0.9456	-0.8556	-0.8123	-0.2555	-0.9736	0.7062	0.5161	0.9829	0.9839	0.9812	0.4020	0.6189	0.8265	-0.0558	0.1135	-0.3377	-0.7038	0.9042	0.8436	-0.5828	-0.9103	0.5406	-0.7334	0.9610
삶의 질	0.6729	-0.1907	0.4490	0.6289	0.4711	0.4538	-0.6412	-0.8186	-0.4082	-0.3754	-0.4302	-0.7973	-0.7981	-0.6520	-0.6798	0.1035	0.0335	0.8026	-0.1675	-0.7372	0.7722	0.2388	-0.0770	0.3976	-0.3513
고용 지수	-0.2280	0.6220	-0.4179	-0.4640	-0.3198	-0.5615	0.5069	0.3080	0.5505	0.5564	0.5458	0.3237	0.3567	0.5368	0.1018	0.1807	-0.2324	-0.3223	0.7249	0.3901	-0.3936	-0.5516	0.8450	0.1164	0.5783
고용률지수	-0.3063	0.7345	-0.5606	-0.5236	-0.2037	-0.6524	0.5224	0.2569	0.6412	0.6514	0.6336	0.2464	0.3248	0.5603	-0.0376	0.2259	-0.2434	-0.2948	0.7976	0.4431	-0.2858	-0.7130	0.8586	-0.0306	0.6966
비정규직비율 지수	0.3187	-0.5399	0.5816	0.3234	-0.2901	0.4526	-0.1914	0.0809	-0.4488	-0.4642	-0.4378	0.1624	0.0049	-0.2258	0.4264	-0.1976	0.1005	-0.0330	-0.4385	-0.2813	-0.2422	0.6797	-0.2791	0.4472	-0.5463
건강지수	0.7718	-0.3436	0.5785	0.7731	0.3816	0.6163	-0.8683	-0.9608	-0.5140	-0.4836	-0.5342	-0.9296	-0.9499	-0.8530	-0.7291	-0.1503	-0.0546	0.7819	-0.4280	-0.7584	0.8526	0.3727	-0.5148	0.1770	-0.5337
기대수명지수	0.6685	-0.9130	0.8515	0.8827	0.3945	0.9848	-0.8036	-0.6742	-0.9798	-0.9727	-0.9836	-0.5879	-0.7571	-0.9175	-0.1625	-0.0477	0.3664	0.8369	-0.8896	-0.9289	0.7345	0.8883	-0.6282	0.6335	-0.9567
사망률지수	0.0980	0.7021	-0.3506	-0.1591	-0.0285	-0.4676	-0.0491	-0.3153	0.5822	0.6094	0.5630	-0.3831	-0.2019	0.1070	-0.6625	-0.1194	-0.5087	-0.0930	0.5742	0.2323	0.1145	-0.6379	0.1549	-0.5597	0.5310
교육지수	0.2758	0.0456	-0.0068	0.3527	0.5030	0.1182	-0.2930	-0.5616	-0.1139	-0.0835	-0.1344	-0.6875	-0.5146	-0.3505	-0.7972	0.5007	0.3126	0.6476	0.1039	-0.4363	0.5730	0.0259	-0.1082	-0.0170	-0.0725
고등교육불가 지수	-0.7414	0.8760	-0.8896	-0.9076	-0.3608	-0.9829	0.8881	0.7371	0.9555	0.9456	0.9611	0.6517	0.8125	0.9514	0.2317	0.1390	-0.2612	-0.8211	0.8755	0.9342	-0.7527	-0.8625	0.6485	-0.5963	0.9454
교육시설지수	0.7303	-0.7471	0.7715	0.8950	0.4244	0.8873	-0.7951	-0.7643	-0.8740	-0.8570	-0.8845	-0.7416	-0.8272	-0.9047	-0.4165	0.1348	0.4106	0.9131	-0.6965	-0.9659	0.7601	0.8085	-0.5611	0.5862	-0.8694
학업중단율지 수	-0.0525	0.4359	-0.4057	-0.0442	0.4064	-0.3137	0.0247	-0.3048	0.3215	0.3491	0.3023	-0.4533	-0.2080	0.0294	-0.7433	0.4345	0.0945	0.2895	0.4520	0.0007	0.3375	-0.4251	0.1319	-0.3794	0.3811
환경지수	1.0000	-0.3978	0.8400	0.8509	0.0644	0.6947	-0.9244	-0.8390	-0.5704	-0.5489	-0.5845	-0.7835	-0.8769	-0.8380	-0.5066	-0.4161	-0.2607	0.5791	-0.4749	-0.8146	0.5794	0.5713	-0.4701	0.4184	-0.6752
온실가스배출 량지수	-0.3978	1.0000	-0.7485	-0.7026	-0.3556	-0.9149	0.5681	0.3890	0.9498	0.9548	0.9453	0.2779	0.4689	0.7290	-0.1507	0.0003	-0.4772	-0.6628	0.9138	0.7374	-0.5309	-0.8987	0.5855	-0.5913	0.8922
대기오염배출	0.8400	-0.7485	1.0000	0.7904	0.1714	0.8928	-0.8664	-0.6606	-0.8258	-0.8185	-0.8299	-0.5594	-0.7356	-0.8588	-0.1551	-0.3825	0.0026	0.5974	-0.8054	-0.8714	0.5697	0.7996	-0.5256	0.6081	-0.8575

	환경지수	온실가스배출량지수	대기오염배출량지수	쓰레기배출량지수	주거지수	문화시설지수	경제 사회 및 안정	중산층비중지수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지수	생활물가지수 지수	소득분배지수	지니계수지수	소득분위배율지수	절대적빈곤율지수	사회안전지수	범죄율지수	이혼율지수	자살률지수	부패지수변환	재난재해 피해액	부적합률지수	노후지수	55세 이상 고용률지수	노인빈곤율지수
량지수																									
쓰레기배출량지수	0.8509	-0.7026	0.7904	1.0000	0.2492	0.8730	-0.8831	-0.8194	-0.8084	-0.7914	-0.8191	-0.7460	-0.8668	-0.9238	-0.3898	-0.1519	0.1030	0.7964	-0.6807	-0.8905	0.6971	0.7888	-0.6472	0.4852	-0.8631
주거지수	0.0644	-0.3556	0.1714	0.2492	1.0000	0.2915	-0.2844	-0.2888	-0.4015	-0.3944	-0.4059	-0.3023	-0.2728	-0.3098	-0.2366	0.1857	0.3111	0.5895	-0.3553	-0.4543	0.6321	0.1791	-0.1792	0.0470	-0.1751
문화시설 지수	0.6947	-0.9149	0.8928	0.8730	0.2915	1.0000	-0.8186	-0.6700	-0.9670	-0.9611	-0.9700	-0.5707	-0.7580	-0.9245	-0.1263	-0.1506	0.2793	0.7777	-0.9042	-0.8986	0.7003	0.8797	-0.6034	0.6709	-0.9646
경제 사회 및 안정	-0.9244	0.5681	-0.8664	-0.8831	-0.2844	-0.8186	1.0000	0.8860	0.7113	0.6826	0.7233	0.8341	0.9340	0.9437	0.5082	0.4295	0.1538	-0.6968	0.6895	0.8762	-0.7763	-0.6171	0.6048	-0.3890	0.7594
중산층비중지수	-0.8390	0.3890	-0.6606	-0.8194	-0.2888	-0.6700	0.8860	1.0000	0.5398	0.5071	0.5614	0.9471	0.9817	0.8827	0.7220	0.1526	0.0730	-0.8075	0.4142	0.7915	-0.8368	-0.4233	0.4599	-0.2866	0.5708
물가지수	-0.5704	0.9498	-0.8258	-0.8084	-0.4015	-0.9670	0.7113	0.5398	1.0000	0.9990	0.9996	0.4354	0.6348	0.8340	-0.0068	0.0424	-0.4034	-0.7734	0.9122	0.8775	-0.6592	-0.8946	0.5626	-0.6846	0.9426
소비자물가지수 지수	-0.5489	0.9548	-0.8185	-0.7914	-0.3944	-0.9611	0.6826	0.5071	0.9990	1.0000	0.9973	0.4027	0.6064	0.8150	-0.0414	0.0498	-0.4066	-0.7499	0.9200	0.8613	-0.6368	-0.8961	0.5585	-0.6865	0.9407
생활물가지수 지수	-0.5845	0.9453	-0.8299	-0.8191	-0.4059	-0.9700	0.7233	0.5614	0.9996	0.9973	1.0000	0.4573	0.6535	0.8461	0.0168	0.0373	-0.4008	-0.7886	0.9059	0.8876	-0.6738	-0.8926	0.5649	-0.6825	0.9428
소득분배지수	-0.7835	0.2779	-0.5594	-0.7460	-0.3023	-0.5707	0.8341	0.9471	0.4354	0.4027	0.4573	1.0000	0.9379	0.8311	0.8770	0.0652	0.0098	-0.7397	0.3452	0.7362	-0.7807	-0.3630	0.4803	-0.1739	0.5043
지니계수지수	-0.8769	0.4689	-0.7356	-0.8668	-0.2728	-0.7580	0.9340	0.9817	0.6348	0.6064	0.6535	0.9379	1.0000	0.9421	0.6672	0.1994	0.0464	-0.8144	0.5273	0.8525	-0.8453	-0.5109	0.4960	-0.3857	0.6789
소득분위배율지수	-0.8380	0.7290	-0.8588	-0.9298	-0.3098	-0.9245	0.9437	0.8927	0.8340	0.8150	0.8461	0.8311	0.9421	1.0000	0.4670	0.1878	-0.1234	-0.8379	0.7600	0.9217	-0.8205	-0.7409	0.6343	-0.5046	0.8672
절대적빈곤율지수	-0.5066	-0.1507	-0.1551	-0.3898	-0.2366	-0.1263	0.5092	0.7220	-0.0068	-0.0414	0.0168	0.8770	0.6672	0.4670	1.0000	-0.0906	0.0660	-0.4580	-0.0749	0.3838	-0.5277	0.0227	0.2619	0.1744	0.0780
사회안전지수	-0.4161	0.0003	-0.3825	-0.1519	0.1857	-0.1506	0.4295	0.1526	0.0424	0.0498	0.0373	0.0652	0.1994	0.1878	-0.0906	1.0000	0.8381	0.2424	0.2686	0.0665	-0.0930	0.0441	0.0407	-0.0879	0.0862
범죄율 지수	-0.2607	-0.4772	0.0026	0.1030	0.3111	0.2793	0.1538	0.0730	-0.4034	-0.4066	-0.4008	0.0098	0.0464	-0.1234	0.0660	0.8381	1.0000	0.4090	-0.2721	-0.2307	0.0864	0.4693	-0.2850	0.1679	-0.3466
이혼율지수	0.5791	-0.6628	0.5974	0.7964	0.5895	0.7777	-0.6968	-0.8075	-0.7734	-0.7499	-0.7886	-0.7397	-0.8144	-0.8379	-0.4580	0.2424	0.4090	1.0000	-0.5575	-0.8786	0.8882	0.5996	-0.4058	0.4823	-0.6788
자살률 지수	-0.4749	0.9138	-0.8054	-0.6807	-0.3553	-0.9042	0.6895	0.4142	0.9122	0.9200	0.9059	0.3452	0.5273	0.7600	-0.0749	0.2686	-0.2721	-0.5575	1.0000	0.7388	-0.5777	-0.8115	0.6120	-0.5481	0.8815
부패지수변환	-0.8146	0.7374	-0.8714	-0.8905	-0.4543	-0.8986	0.8762	0.7915	0.8775	0.8613	0.8876	0.7362	0.8525	0.9217	0.3838	0.0665	-0.2307	-0.8786	0.7388	1.0000	-0.7964	-0.7786	0.5202	-0.6036	0.8499
재난재해 피해액	0.5794	-0.5309	0.5697	0.6971	0.6321	0.7003	-0.7763	-0.8368	-0.6592	-0.6368	-0.6738	-0.7807	-0.8453	-0.8205	-0.5277	-0.0930	0.0864	0.8882	-0.5777	-0.7964	1.0000	0.3667	-0.3128	0.3996	-0.5379
부적합률 지수	0.5713	-0.8987	0.7996	0.7888	0.1791	0.8797	-0.6171	-0.4233	-0.8946	-0.8961	-0.8926	-0.3630	-0.5109	-0.7409	0.0227	0.0441	0.4693	0.5996	-0.8115	-0.7786	0.3667	1.0000	-0.7136	0.5294	-0.9476
노후지수	-0.4701	0.5855	-0.5256	-0.6472	-0.1792	-0.6034	0.6048	0.4599	0.5626	0.5585	0.5649	0.4803	0.4960	0.6343	0.2619	0.0407	-0.2850	-0.4058	0.6120	0.5202	-0.3128	-0.7136	1.0000	0.1320	0.6887
55세 이상 고용률지수	0.4184	-0.5913	0.6081	0.4852	0.0470	0.6709	-0.3890	-0.2866	-0.6846	-0.6865	-0.6825	-0.1739	-0.3957	-0.5046	0.1744	-0.0879	0.1679	0.4823	-0.5481	-0.6036	0.3996	0.5294	0.1320	1.0000	-0.6278
노인빈곤율지수	-0.6752	0.8922	-0.8575	-0.8631	-0.1751	-0.9646	0.7594	0.5708	0.9426	0.9407	0.9428	0.5043	0.6789	0.8672	0.0780	0.0962	-0.3466	-0.6788	0.8815	0.8499	-0.5379	-0.9476	0.6887	-0.6278	1.0000